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5 Vol · 221



부산시립무용단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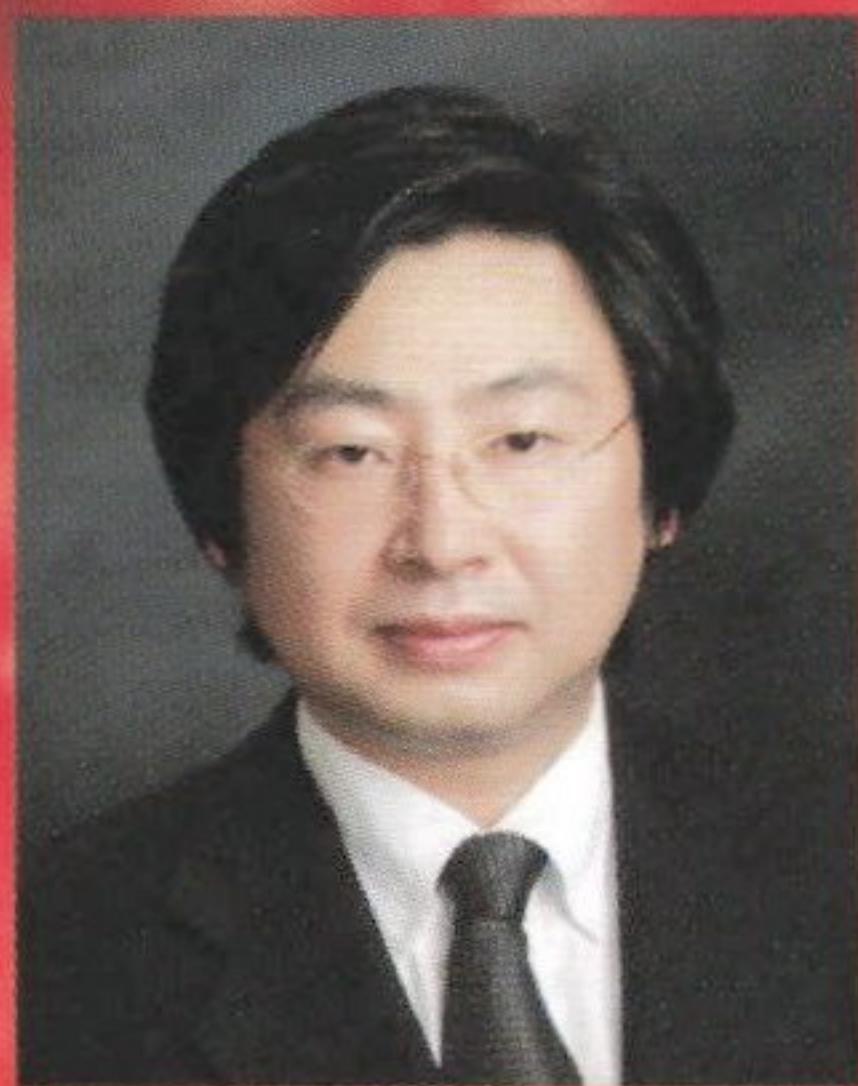
# 11시에 만나요

## Dance in Classic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댄스

남국의 관능과 정열

비제 '카르멘' 중 전주곡 - 하바네라 - 꽃노래 - 집시의 노래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 4번 '이탈리아' 중 제 4악장  
비발디 '글로리아' 중 '도미네 데우스'  
로시니 춤. 나폴리 타란텔라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지휘  
이동신



해설 및 진행  
김문경



테너  
김지호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안무 및 댄스  
김희정

2010. 5. 20 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607-3111~3(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0(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20% 할인(단, 매수 제한 있음)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2010 GEORGE WINSTON SOLO PIANO CONCERT IN KOREA

#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 GEORGE WINSTON

solo piano



### LOVE WILL COME

# 2010. 5. 23(일) 5:00pm 을숙도문화회관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일보  
busanilbo.com

주관 SM기획

티켓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후원 (주)동서디지털 Home plus 부산열음방송

공연문의

# 1600-1602

예매 인터파크 / 옥션 / 티켓링크 / 맥스티켓

소설, 음악을 만나 웃다.

그랜드오페라단 제28회 정기공연

# 오페라 봄봄

2010. 5. 28(금)~29(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금/오후 3:00, 7:30 토/오후 4:00, 7:30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주최 | 그랜드오페라단 | 후원 | BSCF 부산문화재단 부산경상대학

| 협찬 | NH 농림 DAESUNG (주)대성건설 세신전자(주)

DaehanSteel 대한제강 세일음악문화재단 (주)유원

| 공연안내 · 예매 | (051) 853-2341 www.grandopera.or.kr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소설,  
김유정의 「봄봄」을 기억하십니까?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장인  
키는 작지만 야무지고 껌직한 점순이

봄날 버드나무 새순 같은  
시골 남녀의 풋풋한 사랑에,  
탁월한 언어감과 해학적인 문체로  
지루한 국어시간을 재미있게 했던 소설 「봄봄」

웃음이 묻어나는 오페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연출 안호원 지휘 정금련 안무 왕정희 베이스 김정대 바리톤 이태영 테너 황성학 테너 서민규 소프라노 김정원 소프라노 이지현 소프라노 황윤정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 2010년 경성대학교 교수음악회



피아노 서심미



소프라노 박미경



피아노 조현선



테너 장원상



바이올린 임병원



바리톤 김성규



피아노 최윤희



오르간 정경님



트럼펫 드미트리 로키펜코프



피아노 이화영선



피아노 김희정

## 2010. 5. 12(수) pm. 7:3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주최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문화기획단

| 후원 | 경성대학교

| 입장권 | 30,000원

| 문의 | (051) 663-4918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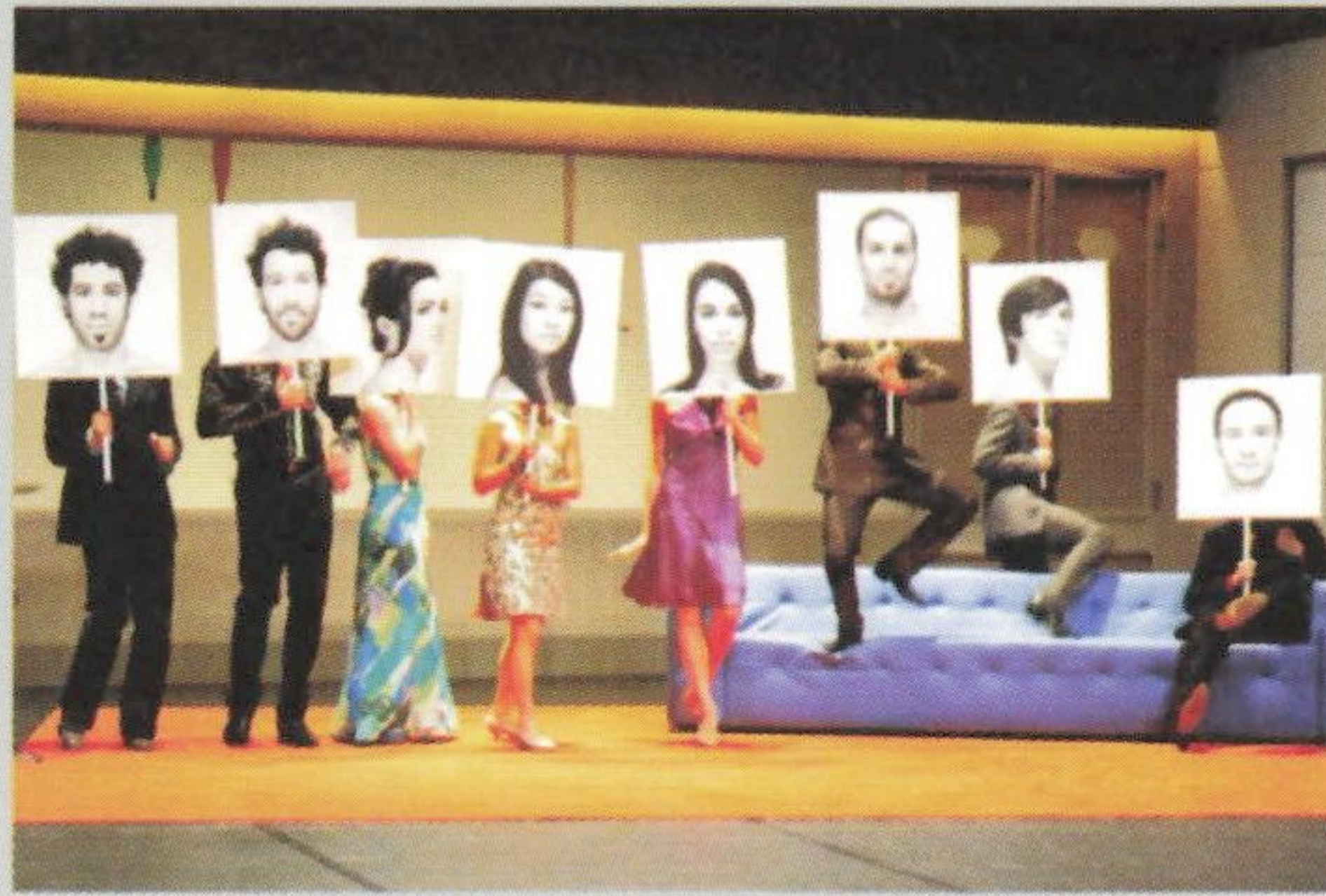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 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8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743-7784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3층 피아노사(동백섬앞)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5층	051-266-4747
광복롯데백화점 9층	051-246-0660

# Contents



## 10 커버스토리

부산시립무용단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

## 12 프리뷰

## 18 반갑습니다

2010 부산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한  
극단 누리예 상임연출가 강성우

## 20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⑤

지금, 저 설유화처럼! | 정일근

##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중국문화와 서양문화를 결합시킨 유화작가 푸천시  
| 박건해

##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⑤

영화 '투게더' | 이동신

## 28 불멸의 거장, 쇼팽 ③

나의 심장은 조국에... | 노경원

## 29 월드뮤직

스페인 I 플라멩고(Flamenco) | 황윤기

## 30 리뷰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신설령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경계도시 2 | 김희진

## 32 그곳에 가면

영화공간 '보기도문'

## 34 우리는 문화가족

함께하는 즐거움 'The 화음여행(The 和音餘幸)'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3 나의 애청음반

수크 트리오와 슈베르트의 '노투르노' | 김의호

## 5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6 부산문화회관 소식

## 57 100자 토크

##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예술의 초대 2010 + 05 Vol. 221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4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SUN 30	MON 31	TUE 6/1
<p><b>소</b>   포유발레 정기공연 16:00 김응경(010-8331-5588)</p>	<p><b>중</b>   제10회 아르스팔레트 연주회 19:30 무료/정매니지먼트(011-589-3111)</p>	<p><b>중</b>   멜로매니아정기연주회 제 1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멜로매니아(011-590-1115)</p>
<p><b>2</b></p> <p><b>중</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Nasser Martin-Gousset Company 'COMEDY' 19: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p> <p><b>소</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예선 10:0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802-8003)</p>	<p><b>3</b></p> <p><b>소</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예선 10:0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802-8003)</p>	<p><b>4</b></p> <p><b>소</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예선 10:0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802-8003)</p>
<p><b>9</b></p> <p><b>중</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한국 극단 수레무대 '이슬람 수학자' 19: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p> <p><b>소</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본선 10:0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802-8003)</p>	<p><b>10</b></p> <p><b>중</b>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한국 극단 수레무대 '이슬람 수학자' 20: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p>	<p><b>11</b></p> <p><b>중</b>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p>
<p><b>16</b></p> <p><b>중</b>   한국플루트교육자협의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8:00 균일 3만원/플루트하우스(02-3487-2462)</p> <p><b>소</b>   제 20회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부산대회 13:00 무료/재능문화(02-3670-0180, 016-291-5620)</p>	<p><b>17</b></p> <p><b>중</b>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9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이치선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b>18</b></p> <p><b>중</b>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9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슈만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p> <p><b>소</b>   박순자 피리독주회 19:30 초대/박순자(010-6806-4566)</p>
<p><b>23</b></p> <p><b>중</b>   제 5회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19:00 무료 E-Zen엔터테인먼트(904-8881, 011-856-4753)</p> <p><b>소</b>   피아노 스타 정기연주회 19:00 이상기(611-7537, 010-5294-3811)</p>	<p><b>24</b></p>	<p><b>25</b></p> <p><b>중</b>   창작합창 21 2010 정기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19:30 1만원 · 5천원/조혜선(010-8501-5117)</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전시실

- ▶ 추사서화예술전국공모대전-대전시실  
4월 29일(목)~5월 3일(월)  
※ 시상식 4월 29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문의 : 추사서예가협회  
(632-7077, 010-8463-2300)
- ▶ 제 5회 부산디카사랑전시회-중전시실  
4월 30일(금)~5월 2일(일)  
문의 : 부산디카사랑 임구택  
(263-0035, 011-9393-9880)
- ▶ 제 6회 국제종합예술대전-대 · 중전시실  
5월 6일(목)~5월 9일(일)  
문의 : 정건남  
(817-2950, 011-9317-0081)
- ▶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대 · 중전시실  
5월 14일(금)~5월 23일(일)  
※ 오프닝 5월 14일 오후 5:00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3천원  
문의 : (사)K-ART국제교류협회  
(803-8830, 011-882-8150)
- ▶ 제 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대전시실  
5월 25일(화)~5월 28일(금)  
문의 : 국민예술협회 부산지부  
(643-4803, 011-845-9599)
- ▶ 제 14회 부산 회화제  
5월 31일(월)~6월 6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 010-3029-2997)

#### 국제회의장

- ▶ 부산무용인 세미나  
5월 1일(토) 오전 11:00  
문의 : 부산무용협회(632-5116)
- ▶ 2010 부산국제연극제 세미나  
5월 1일(토) 오후 7:00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WED	THU	FRI	SAT
			1
			중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극단 Nasser Martin-Gousset Company 'COMEDY' 18: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
5	6	7	8
중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극단 누리예 '꿈꾸는 화석' 19:00 1만 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	중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극단 누리예 '꿈꾸는 화석' 20:00 1만 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	소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트러스트무용단 '세번째 전환' 20:00 1만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	소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트러스트무용단 '세번째 전환' 19:00 1만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802-8003)
소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예선 10:00 무료 부산국제연극제(802-8003)			
12	13	14	15
중   제 39회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	중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가요합창음악회 여섯 번째 이야기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 가요 합창'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9회 정기연주회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I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8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017-843-6688)
소   Moooo...n Dance Project-차이(差異) 추억 그리고 기억 20:00 균일 1만 5천원/문라옥(011-880-9215)	소   Moooo...n Dance Project-차이(差異) 추억 그리고 기억 20:00 균일 1만 5천원/문라옥(011-880-9215)	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9. 이상은-스타더스트 STARDUST 20:00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9	20	21	22
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9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II-이탈리아, 스페인, 라틴댄스 '남국의 관능과 정열'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중   첼리스트 송영훈의 월드 프로젝트 콘서트 Part III '라틴 아메리카의 여정' 17:00 5만 5천원 · 4만 4천원 · 3만 3천원 더 스톱프(02-2658-3546)
소   춤패 연분 흥 젊은 춤 작가 육성 프로젝트 1 조희정의 '먹거나 먹히거나' 20:00 2만원 · 5천원/김경희(010-2434-4466)	소   춤패 연분 흥 젊은 춤 작가 육성 프로젝트 1 조희정의 '먹거나 먹히거나' 20:00 2만원 · 5천원/김경희(010-2434-4466)	소   한·일 전통 타악페스티벌 15:00 초대/부산레일아트(816-9991)	소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6중주 & 금관5중주' 16:00 무료(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6)
26	27	28	29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5회 정기연주회 '우리시대의 낭만음악'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그랜드오페라단 제 28회 정기공연 창작오페라 '불꽃' 15:00,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중   그랜드오페라단 제 28회 정기공연 창작오페라 '불꽃' 16:00,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소   토요일상설무대-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립무용단 제 62회 정기공연

# 허허바다 - 갈매기의 飛上

5월 27일-28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시립무용단이 끝없이 넓고 큰 바다를 향해하는 갈매기의 비상을 춤 언어로 표현한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으로 2010년 부산 무용 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연출자 황해순 콤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은 자유의 참의미를 깨닫기 위해 향해하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이다.

한계에 갇힌 인간이 아닌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개척해가는 과정을 갈매기로 치환하여 형상화한 안무자 홍기태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며 멀고 긴 항해를 끝내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오는 삶의 여정을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순환적 이미지로 담아낸다.

작품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현대무용과의 어울림을 시도,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이 결합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춤 언어로 관객과 소통한다. 현대무용 부분은 춤패 연분 홍 대표 임현미가 안무 작업에 참여,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을 위한 도약의 춤사위를 선보인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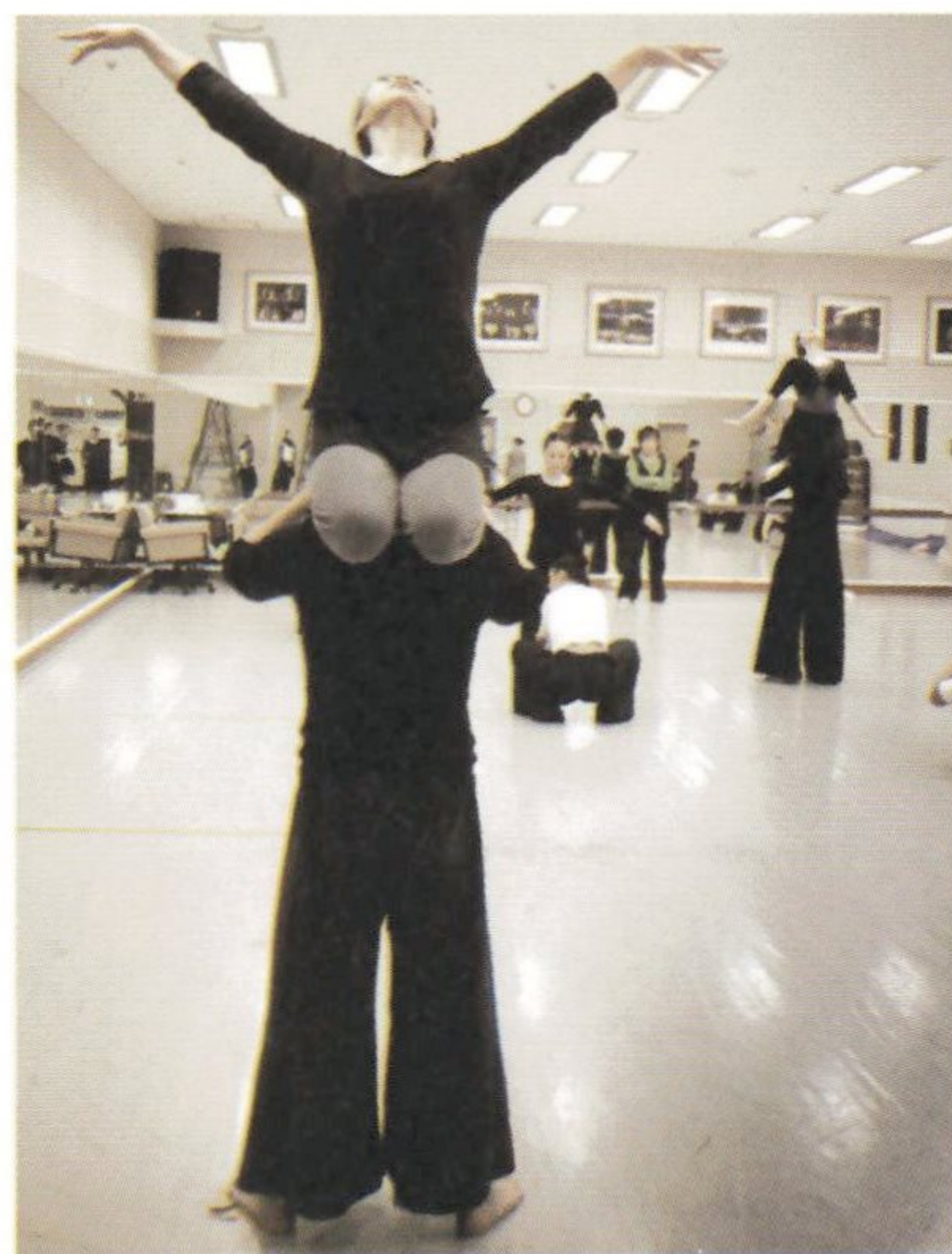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무용가 신승민, 안선희, 송영일, 신상현, 조현배, 최규식, 이용진 등 7명이 객원으로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은 전체 5막으로 구성된다. 갈매기의 탄생, 물의 요정과 갈매기의 걸음마춤, 첫 비행으로 구성된 1막 ‘봄의 여명(봄의 바다)’은 어둠의 껍질을 깨고 동터오는 파도의 여명, 격랑 속에 사라졌다 나타나는 물길을 따라 깊고 푸른 허허바다로 나아가는 갈매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2막 ‘욕망의 바다(여름의 바다)’는 생존을 위한 일상의 반복과 무료함, 낭만과 쾌락의 추구, 광기의 일탈행동을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3막 ‘길을 찾아서(가을의 바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외톨이의 비행, 고독과 구도의 행, 자유에의 의지, 머나먼 항해, 깨달음의 희열을 나누기 위한 날갯짓을 춤으로 표현해

낸다. 갈등이 고조되는 4막 ‘암흑의 바다(겨울의 바다)’에서는 어둠과 파멸, 죽음의 그림자, 고통의 바다, 거대한 유조선의 침몰과 시커먼 기름에 절어 죽어가는 새, 저 멀리 등대의 불빛을 형상화한다. 마지막 5막 ‘또 다시 봄... 그리고 비상’은 서해안갯벌에 찾아 온 자원봉사 물결, 죽음의 땅에 움트는 새싹, 자연의 치유 능력, 물의 생명력과 정화, 자유와 평화에의 승고한 의지를 담아낸다.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은 이미지를 형상화 하면서 음악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다. 비발디의 ‘사계’, 어어부밴드, 유키 구라모토의 ‘물의 요정’, 레퀴엠, 그레고리안 찬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해준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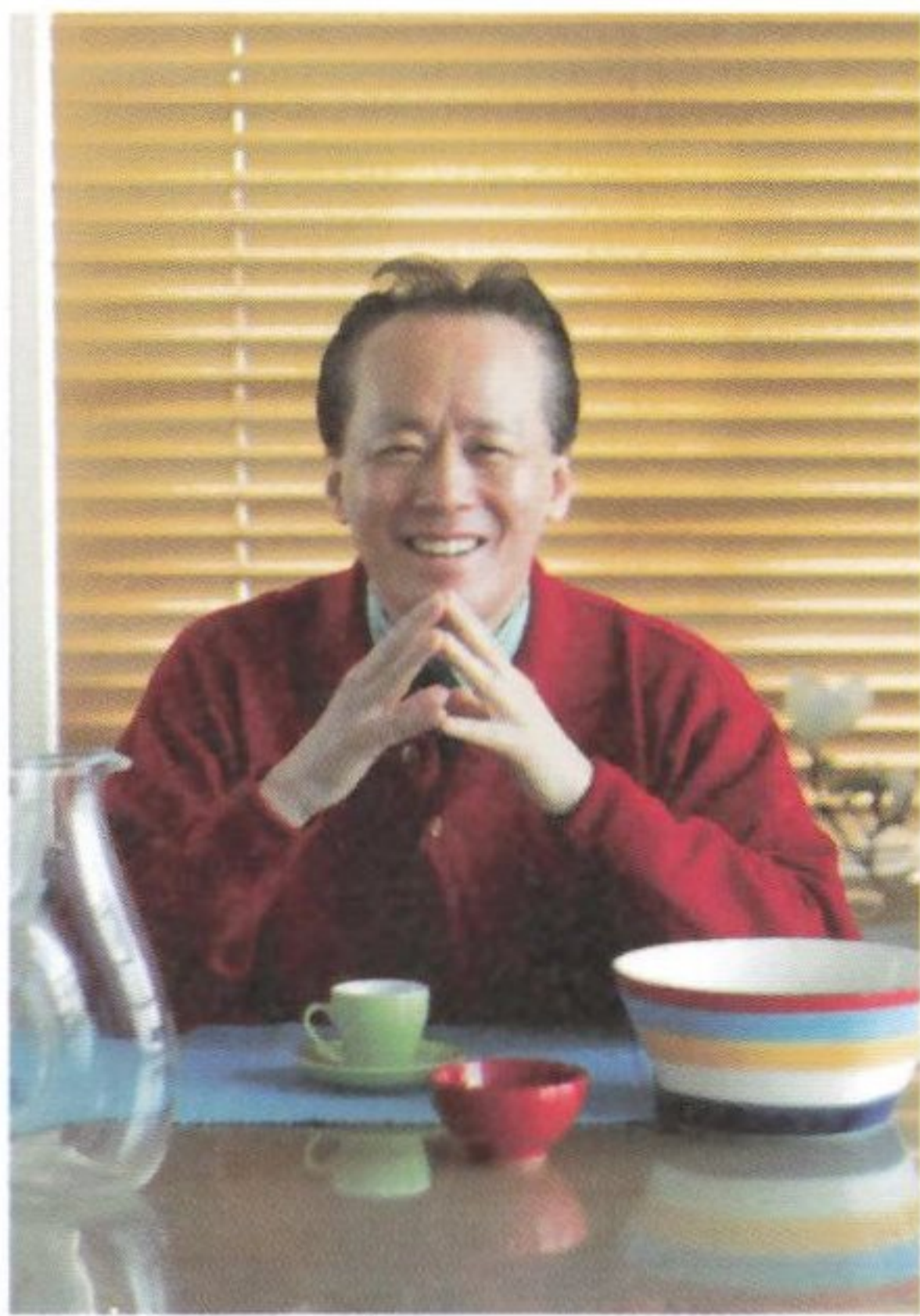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연출자 황해순 콤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은 자유의 참의미를 깨닫기 위해 항해하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 춤으로 표현한다.(사진은 허허바다-飛上 연습장면)



## 5월 가정의 달 기념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족사랑 콘서트 '천원의 행복'

5월 3일~27일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지휘자 금난새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문화나들이는 어떨까. 부산문화회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지역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이 區 문화회관이 있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하는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은 5월 3일 부산시립합창단의 금정문화회관 연주를 시작으로, 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양상블, 앙상블 디 마레,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이 을숙도문화회관과 북구문화빙상센터,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총 11회의 공연을 펼친다.

특히 5월 7일, 8일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휘자 금난새와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을숙도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봄'과 '여름'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 입장권은 전석 1,000원으로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구매할 수 있다.

### ▶ 공연장소 및 일정

#### • 금정문화회관

5월 3일(월) 19:30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가곡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프로그램

봄노래모음, 이탈리아 가곡메들리, 독일가곡 '영원한 사랑',  
이탈리아 가곡 '후니쿨라 후니쿨라' 등

·지휘, 해설/김강규

5월 6일(목)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노래가 있는 즐거운 나의 집'

·연주/앙상블 디 마레

5월 8일(토) 16:00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비발디 '사계' 중 '봄', '여름', 아  
렌스키 '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지휘/금난새 ·협연/황세미(마림바)

·연주/유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

#### • 을숙도문화회관

5월 7일(금) 19:30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비발디 '사계' 중 '봄', '여름', 아  
렌스키 '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지휘/금난새 ·협연/황세미(마림바)

·연주/유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



부산시립무용단

5월 17일(월) 19:30

부산시립무용단 '전래동화 속의 우리춤'

프로그램

토끼와 거북이, 꽃타령, 흥부 VS 놀부, 춘접무, 천지현황

·안무, 구성/홍기태

·출연/김병주, 김시현, 최의옥, 허태성, 권봉정, 황대현, 조

은미, 박민화,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정진희 외

5월 26일(수) 19:30

부산시립합창단 '우리들의 노래 7080이야기'

프로그램

팔도강산, 짱가, 로봇트 태권브이, 독수리 5형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못 다핀 꽃 한송이 등 수곡

·지휘, 해설/김강규

• 영도문화예술회관

5월 10일(월) 19:30

부산시립무용단 '전래동화 속의 우리춤'

프로그램

토끼와 거북이, 꽃타령, 흥부 VS 놀부, 춘접무, 천지현황

·안무, 구성/홍기태

·출연/김병주, 김시현, 최의옥, 허태성, 권봉정, 황대현, 조

은미, 박민화,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정진희 외

5월 19일(수)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어린이합창 그리고 즐거운 나의 집'

·연주/레이디스필 앙상블

• 북구문화빙상센터

5월 18일(화)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프로그램

대금독주 '청성곡', 가야금산조, 판소리, 시나위, 영화 '왕의 남자' 중 '인연',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국악실내악 '방향'

·지휘/김철호 ·해설/백규진

5월 27일(목) 19:30

부산시립합창단 '우리들의 노래 7080이야기'

프로그램

팔도강산, 짱가, 로봇트 태권브이, 독수리 5형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못 다핀 꽃 한송이 등 수곡

·지휘, 해설/김강규

• 동래문화회관

5월 27일(목)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가 있는 국악'

프로그램

이경섭 '공놀이', 강상구 '해금협주곡-세상 풍경', 이준호 '국악관현악-축제', 강상구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추억의 동백섬', 원일 '신밧놀이'

·지휘/김철호 ·해설/백규진

·협연/방병원(해금), 박성희(소리), 정선희(소리)

• 관람료 균일 1,000원(culture.busan.go.kr에서 예매)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 2010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가요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은 7080 가요를 부산시립합창단의 정통 앙상블로 들려주는 '7080 가요합창음악회' 2010년 무대가 5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7080 가요합창음악회'는 7080 세대들에게 인기높았던 음악들을 다양한 합창음악으로 편곡, 세대를 초월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7080 가요합창음악회'의 첫 무대는 '리멤버 2009'. 지난해 무대에서 관객들의 반향이 가장 컸던 레퍼토리 '팔도강산' '경상도아가씨' '나의 기타이야기'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1970년대 즐겨보았던 만화영화와 드라마 주제곡을 통해 추억의 그 시절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어린시절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짱가' '로봇 태권브이' '독수리 5형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등 만화영화 주제곡과 그 시절 온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았던 '여로' '꿈나무' '전우' 등 인기드라마 주제곡을 들려준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듣는 합창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첼리스트 김기량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추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유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이장희)' '못다 핀 꽃 한송이(김수철)' 등 애청발라드를 들려준다. '연출이 있는 노래'에서는 '최진사댁 셋째 딸' '새색시 시집가네'를 간단한 음악극으로 구성,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어서는 1970~80년대 금지곡이었다 해금된 김민기 곡 '친구' '늙은 군인의 노래', 한대수 곡 '행복의 나라로'를 합창음악으로 새롭게 편곡해 들려준다. 트럼펫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충석이 함께한다.

마지막 무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머니와 고등어' '라구요' '짚레꽃' 등 부모님의 사랑을 노래에 담은 가요 메들리로 꾸며진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 BBB II (Beethoven & Brahms in Busan)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 프로젝트 BBB 시리즈 두 번째 무대가 5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지난 4월 16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지휘로 펼쳐진 BBB 시리즈 첫 무대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유리엘 세갈의 객원지휘로 베토벤과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들려준다.

객원지휘자 유리엘 세갈은 지난 해 부산국제음악제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를 통해 부산음악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지휘자이다. 1969년 뉴욕의 국제 미트로폴로스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유리엘 세갈은 유럽과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어 수많은 객원 지휘를 하였고 현재 인디애나 음대의 제이콥스 음악원 수석객원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뉴욕 주 처토크 페스티벌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8년 간 활동하기도 한 유리엘 세갈은 일본 오사카의 센추리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8년간 이끌었으며, 현재는 명예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켄터키의 루이스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필하모니아 헝가리카, 본머스 심포니 수석지휘자, 이스라엘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 수석객원지휘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번 무대는 1, 2부 모두 협연자 없이 교향곡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베토벤이 테레제와 약혼 후 가장 기쁘고 평온한 시기를 보내던 시기에 작곡된 '교향곡 제 4번 내림나장조 작품 60'을, 2부에서는 노년기에 이른 브람스의 심경이 잘 드러나는 '교향곡 제 4번 마단조 작품 98'을 들려준다.

베토벤 교향곡 제 4번은 당시 작곡가의 심리적 여유가 그대로 작품 속에 반영된 곡으로, 향기로운 로맨티시즘과 우아한 뉘앙스, 서정성 등이 잘 조화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슈만은 이 교향곡을 가리켜 '두 북구신화(北歐神話)의 거인(巨人)사이에 끼어 있는 청순한 그리스의 아가씨 같은 교향곡'이라 말한 바 있다. 두 거인은 교향곡 제 3번 '영웅'과 제 5번 '운명'을 일컫는 말.

브람스 교향곡 제 4번은 교향곡 1번에서 볼 수 있는 어둡고 비극적 성격, 2번의 밝고 목가적인 기쁨, 3번에서의 동경이나 환희, 힘차고 장대한 느낌들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내성적이면서 허전한 적막감이 도는 우수만이 차 있어,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브람스의 서정적 마음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녹아있어 브람스 스스로도 매우 아끼던 교향곡이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를 지켜본 곡이기도 하다.



객원지휘자 유리엘 세갈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II

## Dance in Classic

###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 - 남국의 관능과 정열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설 및 진행 김문경



테너 김지호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발레리나 김희정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II-Dance in Classic' 두 번째 무대가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3월 24일 펼쳐진 2010년 웰빙콘서트 첫 무대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남국의 관능과 정열이 넘치는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들로 흥겨운 무대를 연다.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클래식 춤곡을 재발견하기 위해 기획된 'Dance in Classic'은 바로크 춤곡에서 미뉴에트까지 춤곡의 변천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테너 김지호, 메조소프라노 김정화의 협연과 발레리나 김희정의 댄스를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의 열정을 함께 선사한다.

테너 김지호와 메조 소프라노 김정화는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연주자들이다. 지휘자 금난새로부터 '내가 아는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무장한 메조소프라노'라는 찬사를 받은 김정화는 관객을 압도하는 연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카르멘으로 무대에서 빛을 발한다. 이번 웰빙콘서트에서도 비제 '카르멘' 중 '하바네라', 비발디 '글로리아' 중 '도미네 데 우스'(시칠리아노)를 들려준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김지호는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국립오페라단 '살로메', 2009년 쿠바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등에 주역 출연하는 등 오페라 무대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춤. 나폴리 타란텔라', 비제 '카르멘' 중 '꽃의 노래'를 들려준다. 브이쉬발레단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발레리나 김희정은 비제 '카르멘',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열정적인 춤으로 'Dance in Classic'의 매력을 선사한다.

협연자들이 선사하는 이 곡 외에도 오페라 '카르멘' 전주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 4번 '이탈리아',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으로 남국의 관능과 정열이 넘치는 'Dance in Classic' 무대를 펼친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은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에서 부산 초연된 곡으로 '전주-Somewhere-스케르초-맘보-차차-만남-Cool Fugue-결투-피날레'로 구성된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인공 토니가 마리아의 오빠를 죽이고 마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는 'Somewhere'와 파티장에서의 활기찬 분위기와 푸에르토리칸의 정서를 보여주는 '스케르초' '맘보'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감동을 전한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BBB III (Beethoven & Brahms in Busan)

6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프로젝트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세 번째 무대가 6월 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이번 무대는 불굴의 투지로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이자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교향곡 제 3번 '영웅'으로 고전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첫 무대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부산출신 연주자를 선발하는 부산연주인시리즈 2010년 연주자로 선발된 피아니스트 최정윤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4번'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피아니스트 최정윤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클리블랜드 음악원 수료 후 매릴랜드 대학에서 박사(DMA)를 취득하였다. 월간음악 콩쿠르, 부산음악교육연구회 콩쿠르, 부산교육위원회 콩쿠르에서 1위, 부산음악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한 바 있는 최정윤은 미국 유학시 Honors 콩쿠르와 Ulrich 콩쿠르, Concerto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조던 홀에서 연주와 협연 및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최정윤은 몽고메리 대학과 워싱턴 콘서바토리에 재직하면서 '한트리오'를 창단, 활동한 연주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정윤이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제 4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곡 중에서도 초기의 형태를 벗어난 새롭고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숨은 명곡이다. 서정적인 1악장과 시를 읊는 듯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대비가 뚜렷한 2악장에 이어, 생생한 리듬감의 3악장이 바로 연주된다. 1808년 12월 빈에서의 공개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속에 실려 오르는 피아노 선율이 마치 천상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보는 듯 하다'는 격찬을 받았다.

2부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 3번 '영웅'으로 연다. 1803년에 작곡된 교향곡 제 3번은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자유와 평등, 형제애로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해 줄 영웅으로 이상화하여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 작곡한 곡이었지만 후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실망과 분노로 헌정문이 적혀있는 표지를 찢어버렸다고 전해진다. 이 설화가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토벤이 원래 이 교향곡의 제목을 '보나파르트(Bonapart)'라고 붙였다가 스스로 변경한 것만은 사실이다. 작품의 배경에 관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교향곡 제 3번은 영웅의 위대한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불멸의 작품이다. 1804년 12월, 로브코비츠가에서 비공개로 초연되었고 공개초연은 1805년 4월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전체 연주시간은 50분이다.



지휘자 이동신



피아니스트 최정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한

### 극단 누리에 상임연출가 강성우

젊은 연출가 강성우. 힘든 연극인의 삶을 선택한 이후로 그는 매일 꿈을 꾸다.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젊은 연출가의 꿈은 연극애호가들에게는 크나큰 행복이다.

지난 4월 12일 막을 내린 2010년 부산연극제에서 꿈 많은 젊은 연출가 강성우가 연출한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부산연극제에 도전한지 세 번 만에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창단 10년을 갖 넘긴 극단 누리에 부산연극제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큼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부산 대표로 나가는 전국연극제에서 좋은 결

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 전국창작희곡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고연옥 작가의 희곡을 무대에 올린 ‘꿈꾸는 화석’은 일본 강점기 조선인 전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좋은 희곡 때문에 큰 영광을 안게 되었다는 그는 연극제가 끝났지만 5월 부산국제연극제와 6월 전국연극제 무대에 오르게 되는 ‘꿈꾸는 화석’ 공연 준비로 분주하다. 좋은 희곡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배우들의 내면연기를 작품에 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극단 누리에는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국연극제에 자유참가작 공연을 신청해둔 터라 전국연극제 기간동안 ‘꿈꾸는 화석’ 외 소극장 자유참가작으로 ‘적의 화장법’을 함께 무대에 올린다.

이번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은 극단 누리에로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 1997년 창단된 극단 누리에는 그동안 ‘10년 후’, ‘적의 화장법’, ‘청춘 예찬’으로 젊은 연극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던 ‘꿈꾸는 화석’은 따뜻한 세상이야기를 그려온 누리에의 기존 작품들과 다르다.

누리에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0년 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극단 해체를 고민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단원들이 사비를 털어 제작에 직접 참여했고 전 단원들이 홍보에 팔을 걷어 올리고 다리품을 팔았다. 당시 강성우 씨는 하루에 포스터 200장을 부치며 부산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마지막이라 더 절실했지만 누리에 단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이번 대상수상은 평소 아들의 고생을 안스러워하던 어머니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극단 대표를 맡고 있는 강봉금 씨는 그의 아내이다. 연극이 좋아 고등학생 신분으로 무작정 배우 이재용 씨를 찾아갔던 강성우 씨는 부산예술대학 연극과 1기로 입학했다. 아내 강봉금 씨가 부산예술대학 연극과 3기이지만 극단 누리에는 부인 강봉금씨가 창단 멤버로 먼저 입단했다. 1999년 극단 누리에에 입단한 강성우씨는 2005년 극단 누리에 대표로 활동하다 부산연극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아내 강봉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꿈꾸는 화석’에는 아내 강봉금 씨가 배우로도 출연했다. 아내처럼 그 자신도 연기를 하고 싶어 칠수와 만수, 2003 낙원의 길목에서, 환생구역, 즐거워라 무릉도원, 셰익스피어의 연인들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연출에 전념하고 있다.

“예전보다 서울 작품들의 부산공연이 활발해 지면서 부산 관객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작품에 대해 어느 때 보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객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극단 누리에는 극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강성우 씨는 연극의 향기가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오래도록 부산 연극무대를 지켜나가고 싶다.

(글, 사진/백경옥)

# 지금, 저 설유화처럼!

정일근 \_ 시인



사진/정일근

저는 벚꽃의 도시 진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4월에 벚꽃이 필 때도 좋았지만 저는 벚꽃이 질 때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벚꽃이 바람에 분분설처럼 날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귀한 따뜻한 남쪽도시에서 꽃이 눈을 대신해 내리는 것 같은 즐거움, 시적으로 이름 하자면 '쓸쓸한 즐거움'이었지만 저는 눈이 내리는 벚꽃나무 아래서 하염없이 서 있곤 하였습니다.

은현리에 살면서 진해의 벚꽃을 대신하는 것이 설유화(雪柳花)입니다. '유'로 읽고 '柳'로 쓰는 것이 이상하지만 이건 우리 마을의 이름이며, 저도 이 마을사람이기에 그 이름에 따릅니다.

설유화란 조팝나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팝나무의 가지가 버드나무 가지처럼 휘어지는데 그



##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가지에 빼곡하게 피는 하얀 꽃이 마치 눈 같습니다.

은현리 조팝나무에 하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이 좁쌀을 튀겨 놓은 것 같아서 처음엔 조팝나무였다가 지금은 조팝나무가 된, 배고픈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꽃나무 이름이어서 꽃이 필 때 더욱 마음 갑니다.

보릿고개 무렵에 이밥(쌀밥) 같은 꽃이 피는 '이팝나무'도,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수북수북 피어 봄나물이 된 '쭉부쟁이'도 마찬가지로, 조팝나무 이름 앞에서 꽃 속에 숨어 빛나는 남루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색깔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살며 오직 거문고를 벗하며 살았다는 신라사람 백결 선생이, 가난하고 배고픈 아내를 위해 세모에 쌀 찢는 방앗공이 소리를 거문고로 연주한 것을 꽃으로 비유하자면 아마 조팝꽃과 같은 색깔일 것입니다.

외래종이 난무하는 자연에 조팝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꽃이기에 더더욱 고마운 이 땅의 꽃입니다.

조팝나무 중에 관상용으로 심는 '가는조팝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아 그 꽃을 '설유화'라 부릅니다. 꽃이 피면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눈이 내렸다'고 말하게 하는 꽃입니다.

이웃 마을에 설유화 묘목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성탄전야의 선물꾸러미를 지고 찾아오는 산타크로스처럼 설유화를 나눠줘 온 마을에 봄날의 폭설을 선물하는 분입니다.

설유화가 필 때 은현리는 설국(雪國)으로 변합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첫 문장 '국경을 지나자 눈의 나라였다'가 아니라, '은현리에 도착하니 눈의 나라였다'는 새로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은현리란 눈의 나라에서, 내게 늘 아득한 당신을 생각합니다. 한 때는 차가운 슬픔이었지만 그 눈물에 찍힌 눈발자국을 따라 가다 만난 당신이라는, 저 하얀 꽃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일이 꽃이 피고 지는 일과 같지만, 한평생 지지 않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설유화처럼!

## 중국문화와 서양문화를 결합시킨 유화작가 푸천시(傅晨曦)

박건해 \_ 중국통신원

중국문화와 서양문화를 결합시킨 유화작가 푸천시(傅晨曦)는 1985년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다 1990년 미국 Montana대학교로 유학, 유화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각지에서 개인 유화작품 전시회를 가지면서 세계 화단에 그의 존재를 알린 푸천시의 작품은 개인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보잉 등 대기업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경력과 신분을 지닌 그는 오랫동안 중국 문화와 서양문화 사이를 넘나들면서 두 가지 문화 충돌 하에 떨어진 인간관계를 체감함과 동시에 이를 특유한 방식으로 본인의 작품을 통해 구현시켰다. 예술사의 차원에서 푸천시의 유화 창작은 동서양 문화 전통을 결합, 창조적인

전환을 거쳐 그만의 독특한 풍격을 형성했다. 그는 유화 창작 시 심오한 사실적 특징과 흡입력을 가지는 기법을 결합시켜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현실적 체험을 토대로 초현실적인 광경을 만들어낸 후 풍부하고 민감한 색조, 조금은 신경질적인 조형과 애상적인 정서를 결합시켜 사람 간에 친밀한 듯 하지만 멀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듯 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상태, 관람자와 역동적인 관계를 구현하는 면에서 깊이를 가진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작가 푸천시와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 1985년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한 후 모교에 남아 교사



wheat field



Long Road(56X45, 1997년)

직으로 있다가 1990년 미국 Montana대학에 유학, 유화를 전공했다. Montana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명문세가에서 태어났다. 당시 나의 증조부는 쉬페이홍(徐悲鴻:중국 현대화의 개혁가이지 대표주자, 1953년 타계)선생을 프랑스에 유학시켜 유화를 배우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쉬 선생은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 증조부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쉬 선생은 증조부의 자택에 한 번 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 같은 가정의 영향을 받아 학문을 닦는 일은 당연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쉬 선생의 영향을 받아 외국 유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부친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또 나는 어릴 적부터 유화 그리기를 좋아 했다. 체계적인 서양 예술교육을 받고 대가의 원화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에 나의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 종족과 민족의 문화예술, 생활, 생존 상태를 알고 싶은 지식욕으로 충만했다.

▶ 1985년 졸업 시 '무송이 호랑이를 잡다(武松打虎)' 작품 시리즈를 창작한 후 모교에 남아 교편을 잡았다. 이 시기에 주로 어떤 작품을 창작했는가?

학창시절에 나는 틈만 있으면 시골에 가 농민들의 생활과 대자연을 체험했다. 중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내가 그린 유화 <무송이 호랑이를 잡다> 시리즈는 중국인들에 널리 알려진 <수호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지만, 나는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1980년대 초반의 중국은 '긍정적' 인물 부각 면에서 이른바 1960-1980년대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전통 관념에 따른 '규범적 양식'이 있었다. 나는 이처럼 견고한 기존의 모델을 파괴하는 것이 새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전통적인 서술식의 영웅주의를 바탕으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미시켜 새로운 심미관을 수립하고 관련 경험을 누적했다.

▶ 당신은 중국과 서양의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 중국과 서양의 대학교 미술교육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미술교육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서양에는 전통적이고 우수한 예술대학이 많지만 지도방식은 중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1980년대 중국의 정보산업과 미디어산업은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못했으며, 더빙 영화나 당국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은 서적들을 통해 외국 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중국의 미술교육은 기술적인 연습에만 국한되었는데, 그것도 교사의 개인적 이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반면에 서양의 예술교육은 학생의 사고방식과 혁신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예술교육은 예술가가 정밀하고 민감한 인지능력을 갖춰 사회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서양의 예술교육은 연구토론을 중요시해서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자유롭게 각자의 견해를 토론한다. 이 점은 내가 당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러한 수업방식이 의사표현 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 훈련에 큰 도움이 됨을 발견했다. 예술은 사고와 표현의 결합체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행위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관중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이 중국과 서양 예술교육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秋千, 局部(120cm X 110cm)



Lake-1(30X30, 1998년)



cloudy world(92X92, 1995년)

▶ 1990년대에 해외 유학을 떠난 후 '조기조락(潮起潮落)' '먼길(長路)' '허수아비(稻草人)' '호수(湖)' 등의 작품을 창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어린 시절 제기던지기 게임을 좋아했다. 여러 조각의 형겅을 바느질로 깎은 후 그 안에 모래 혹은 옥수수 등 곡물을 넣어 제기를 만든다. 그리고 땅바닥에 나무가지로 큰 장방형 모양의 금을 긋는다. 두 어린이가 좌우 양측에서 젓 먹던 힘을 다해 금 안에서 있는 어린이를 향해 제기를 던지면, 금 안에 있는 어린이는 그 제기를 피하려고 요리저리 뛰어 다닌다. 나는 오랫동안 제기던지기 게임이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생각해왔는데, 나중에 이 게임의 발원지가 아프리카이고 세계 각 종족들도 비슷한 게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 온 후 나는 습관적인 테마 창작으로부터 예술가의 자유로운 개성 발휘를 비롯해 서양의 독특한 예술교육

방식과 예술창작 방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제기던지기 게임에서 가운데 서 있는 어린이는 금 밖을 뛰쳐나가지 않는 전제 아래 제기를 피해 아무 방향으로 달려도 되지만, 날아오는 제기를 재치 있게 피해 얻는 쾌감에 비하면 그 의미는 훨씬 작다. 인류의 가치관은 사실 대동소이하다. 제기던지기 게임처럼 금 밖 좌우측에 서 있는 어린이가 제기를 던져 금 안에서 있는 어린이의 머리부위를 맞으면 압승을 하고, 다리 부위를 맞으면 득점하는 것처럼 모두 명중을 기준으로 한다. 인류의 정감은 대체로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게임 결과는 흔히 비슷한 경우가 많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격언은 아마도 이런 도리를 말하지 않는가 싶다.

▶ 동년배인 다수 예술가들은 창작 시 관련 역사, 회고 등의 테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반해 당신의 작품은 개성이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서구화적이다.



동년배 예술가들과 다른 풍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창작은 예술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할 뿐이다. 현재 예술가들의 창작 자유도는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예술가가 선택한 사물마다 다양한 동기가 부여되고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취향과 함께 각자가 '제기 던지기 게임' 속에서 다양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래야만 '제기던지기 게임' 시 제기 던지는 자와 제기를 피해 달리는 자, 관객 모두가 각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중앙미술학원에서 받은 전통적인 구상화 교육은 인간, 대자연 두 컨셉을 거의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후에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매우 소원한 관계이며, 문화와 문화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태이며, 이러한 모호함은 또 상대적인 조화로움을 형성한다. 나의 작품에서 이러한 상태는 은연 중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 중국 예술시장은 1990년대 초반에야 싹트기 시작했기에, 그 성숙도는 서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과 서양의 판이한 시장체계 하에서 당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어떠한가? 당신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1991년 미국에서 갤러리와 손을 잡았다. 나와 제휴한 적이 있는 갤러리들은 모두 유구한 경영사를 갖고 있었으며, 소장 매니아들은 동 갤러리와 수세대 이상 내려오며 업무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내 갤러리의 경영스타일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다수 갤러리의 경영자들은 모두 예술 관련 학력을 소지하고 훌륭한 문화적 소양, 뛰어난 예술품 소장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각 갤러리마다 양호한 경영기반을 갖췄다. 소장하는 단체는 개인, 예술기관, 사인 미술관 등이었으며, 예술작품은 그들에 의해 소장된 후 시중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었다. 이 점은 중국에서의 예술품 소장 상황과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술품을 감상 시 각자가 받은 교육과 문화적 소

양, 사회적 체험에 따라 해석하며, 이를 통해 흥미 있는 면을 찾는다. 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보다는 예술가로서의 내가 완벽한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지녔는가에 대해 더욱 마음을 둔다. 즉,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예술가로서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御水而行(120cmX120cm, 2009년)



順流(55cmX55cm, 1999년)

# 영화 Together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영화 '투게더'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 주옥같은 명곡이 흐른다

감독은 가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오고가는 대화에서 힌트를 얻거나 책을 읽다가 감동받기도 하고 우연히 목격한 사건을 영화화하기도 한다. 첸 카이저 감독은 우연히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아들의 스승을 찾아 북경으로 무작정 상경한 부자가 나오는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화 '투게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아들의 연주를 세계 어느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보다 더 행복한 표정으로 듣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영화 '투게더'는 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첸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다. 또한 재능 있는 자식을 위해 가난하지만 온 몸을 바쳐 희생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휴먼드라마이자 신파영화다. 자본의 물결과 함께 물질만능주의에 잠식돼 가는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감독은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흐르는 가운데 영화는 시작된다. 바이올린 천재로 소문난 샤오천은 가난한 시골 요리사 리우 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장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함께 북경으로 올라온다. 하지만 꿈의 도시 북경은 촌뜨기 부자에게 좌절을 안겨준다. 뛰어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콩쿠르에서 겨우 5등을 차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리우 청은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인 지양 교수를 찾아가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샤오천을 제자로 보낸다. 음악에 몰입하는 지양 교수와 샤오천, 그리고 아들을 위해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아버지의 모습위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 주옥같은 명곡이 흐른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바라는 아버지는 단지 훌륭한 예술가로 키우고 싶어 하는 지양 교수를 떠나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 교수에게 가기로 결정한다. 마지막 레슨에서 지양 교수의 반주에 맞추어 샹오천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위로 제 3번’ 연주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다. 진정한 음악이란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음악,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시키는 음악,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악이 아닐까.

샹오천의 재능을 알아본 유 교수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국제 콩쿠르에 대비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 유 교수의 도움으로 몰라보게 세련되어진 아들을 보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리우 청은 콩쿠르가 열리는 날 고향으로 걸음을 돌린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샹오천은 콩쿠르 대신 기차역으로 달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3악장’을 연주한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울림과 현란하고 격정적인 선율로 아버지가 겪었던 그간의 고생을 보상한다.

첸 카이거 감독이 여태껏 ‘패왕별희’, ‘풍월’ 등 현대사의 굴곡을 반영하는 서사극을 주로 그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가족의 정으로 귀결되는 ‘투게더’는 통속적이고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다. 하지만 바이올린 선율 속에 그가 견져

올리는 가족애는 분명 감동적이다.

김형구의 촬영은 중국인의 심성을 완급을 조절해 가며 느낌의 미학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의상 하용수, 조명 이강산 등 한국인 스텝이 눈에 띄고 배우 김혜리가 유 교수의 부인 역으로 출연한 것도 반갑다. 자오린이 담당한 음악은 영화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 넣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바이올린의 선율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한다. 저명한 음악가 유 교수 역은 첸 카이거 본인이 직접 연기하여 더욱 눈길을 끈다.

작가주의를 견지하던 첸 카이거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시도는 전작들과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인 변신이다. ‘투게더’의 또 다른 특징은 이데올로기를 털고 중국의 현재와 민중의 건실하고 진솔한 삶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 커플은 제목처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투게더(동행)를 한다. 이를 통해 부자의 행복은 중국인 모두에게 행복으로 하나 되기를 권한다. 과감한 생략과 자연스런 연기 그리고 단순한 구도에 담긴 과학적인 연출은 작가감독으로서 격변기에 있는 지금의 중국을 ‘투게더’에 담아내기에 충분하다. 중국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현실을 통해 역사를 보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며 어떻게 미래로 향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 치열한 생존 경쟁, 정체성의 상실 등 중국이 앓고 있는 몸살을 담고 싶었던 감독은 보통 사람들의 작은 행복과 끈끈한 정을 그리고 싶었으리라.

# 나의 심장은 조국에...

노경원 \_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프랑스 파리 Cimetière du Père Lachaise(페르 라세즈 공동묘지) 쇼팽의 무덤. 폴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붉고 흰장미가 가득하다.



폴란드 Krzyża Warszawa(바르샤바 성 십자교회)의 돌기둥 아래 쇼팽의 심장이 안치된 곳.

천안함 침몰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꽃다운 전사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조국을 향한 뭉클한 열정이 솟아나는 요즈음, 조국애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민족의 얼을 담아내었던 음악가가 떠오르니 바로 쇼팽이다.

프랑스인인 쇼팽의 아버지는 아내의 조국 폴란드를 위해 혁명군 장교로서 전쟁까지 참전했던 그 애국심을 폴란드 젤라조바 볼라에서 태어난 쇼팽에게 물려주었다. 빈에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해 봉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쇼팽은 즉시 전선에 뛰어들려 했으나 음악을 통해 폴란드를 널리 알리는 게 더 큰 힘이 될 거란 만류에 눈물을 머금고 영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이르러 수도 바르샤바가 러시아 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엾은 아버지, 어머니 굶주리고 계시겠지. 누이와 동생은 어린 몸을 러시아 군인에게 짓밟혔을까? 나는 아무 짝도 쓸모가 없구나. 괴로워라. 오로지 절망을 피아노에 쏟을 뿐이구나...”라는 글을 남기며 아버지의 조국인 프랑스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애국적인 시에 곡을 붙이거나 ‘스케르쑈 Bb 단조 op. 20’과 ‘연습곡 op.10-no.12, 혁명’과 같은 격렬한 피아노 독주곡을 작

곡하면서 스스로를 달랬다고 한다. 이후로 그는 연주회 수익의 대부분을 조국 폴란드의 독립운동 지하자금으로 보내었고 건강이 악화된 말년에도 폴란드 난민을 위한 자선 무도회에서만은 연주했으며 평생 러시아에 항거, 바르샤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쇼팽의 애국심은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했지만 오히려 민족성이 담긴 훌륭한 작품을 쓰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귀족적이고도 당당한 폴로네이즈 16곡과 60여 곡에 달하는 서민적 마주르카는 모두 폴란드의 민속무곡을 고도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곡들이다. 여기에는 폴란드 민속음악에서 나타나는 Drone-Bass(오르간포인트의 일종)와 교회선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폴로네이즈는 ‘조국, 투쟁, 영원한 슬픔’에 대한 구상을 기초로 3부형식을 이룬다. 이미 7세에 작곡했던 폴로네이즈 G단조는 당시 콘스탄틴 대공의 마음을 끌어 대공의 군악대가 행진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장송행진곡을 담고 있는 ‘소나타 Bb 단조 op.35’ 역시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애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하는데 ‘혁명’ ‘스케르쑈 Bb 단조’ 등과 더불어 서사적이고도 열정적인 걸작으로 남아있다.

결국 쇼팽은 프랑스 파리에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며 ‘나의 심장을 조국 폴란드에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남겨 이후 여동생이 그의 심장만 폴란드 바르샤바의 성 십자가 교회로 옮겼다. 그러나 그의 몸은 파리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에 묻혀있는데 조국을 떠나 빈으로 향하던 시절 그의 스승이었던 엘스너와 음악원 친구들이 ‘영원히 조국 폴란드를 잊지 말라’며 은으로 만든 잔에 담아주었던, 그가 평생토록 간직했던,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다고 한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여기 파리 하늘 아래 그대가 잠들어 있으나 그대는 영원히 조국 폴란드의 흙 위에 잠들어 있노라...’.

## 스페인(Spain) I

# 플라멩꼬(Flamenco)

황윤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유럽이 걸어 온 역사의 길 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스페인은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을 라틴(Latin)의 기질로 물들인 나라이다. 흔히 스페인의 음악으로 플라멩꼬(Flamenco)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플라멩꼬가 스페인 전체를 대표하는 음악은 절대 아니다. 스페인 속에는 하나의 국경 안에 있을 뿐, 까탈루냐(Cataluña), 바스크(Basque), 갈리시아(Galicia), 남부의 안달루시아(Andalucía)와 같은 너무나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중해 세력들 간의 각축장이었고 한 때는 유럽 역사의 중심 무대였던 스페인은 고대부터 복잡한 역사의 흐름이 이어졌던 곳이다. 지중해 서쪽의 요충지였던 탓에 로마와 카르타고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베리아 반도 위에서 벌어졌고, 유명한 포에니 전쟁으로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몰아낸 로마가 반도를 지배하며 발전된 문명을 전파했다. 이어 게르만족과 고트족이 들어오고, 서 고트 왕국이 건립되어 고대와 중세를 잇는 과도기를 이어 나갔다. 음악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의 문화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711년부터 1492년까지 8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이어진 이슬람 세력의 지배였다. 이들의 알-안달루시아(Al-Andalucía) 왕국은 당시 기독교 문명보다 선진적인 문명으로 반도에 아랍문화를 만개시켰다. 그 중심지였던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에는 지금도 아랍 문화의 흔적들이 크게 남아 있다.

안달루시아 지방을 기원으로 하는 플라멩꼬에 음악적, 정서적으로 아랍의 요소들이 깃들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인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멩꼬는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까지 흘러 들어온 집시들과 아랍인, 그리고 유대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음악이다. 기독교 왕국으로 통일된 스페인의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핍박 받았던 이들의 한이 담겨있는 음악인 것이다. 전통적인 플라멩꼬가 심오하고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죽음, 번뇌, 절망 등을 정서적 근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다. 집시들의 한과 아랍인들의 숙명론적인 세계관, 안달루시아 사람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음악 색채를 보여 준다.

플라멩꼬는 칸테(Cante-노래), 토카르(Tocar-기타), 바일레(Baile-춤)를 3대 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도 득음의 경지에 이른 듯한 거친 목소리로 영혼을 뒤흔드는 노래는 플라멩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두엔데(Duende)라고 부르는 플라멩꼬 고유의 심오한 정서적인 표현이 바로 노래에서 나타나며, 때로 현란한 기타 연주나 무용수의 화려한 춤보다 더욱 강렬한 자극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플라멩꼬 음악에서 만나게 되는 솔레아(solea), 불레리아(buleria), 시기리야(siguriya), 알레그리아(alegria) 등은 독특한 리듬이나 화음으로 구별되는 플라멩꼬의 양식을 의미하는 용어들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침체를 겪었던 플라멩꼬는 80년대 중반부터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흐름을 보여 준다. 누에보 플라멩꼬(Nuevo Flamenco-새로운 플라멩꼬)라는 이름의 이 물결은 플라멩꼬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재즈, 살사와 같은 라틴권의 음악, 록음악, 심지어 미국의 블루스나 인도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다시 한 번 플라멩꼬를 스페인 음악의 정상에 올려놓게 된다. 현재 월드뮤직 분야에서도 많은 보컬리스트와 기타리스트들이 뛰어난 음악 역량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4월 16일 고은사진미술관, Horn Trio Concert-  
(연주/혼 김영률, 바이올린 이경선, 피아노 Aviram Reichert)

신설령 \_ 음악평론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혼 트리오 연주회'

오래 전 브람스의 혼 트리오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모처럼 부산에서 연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요즘은 저녁시간 <2010 교향악 축

제>를 TV로 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곡을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부산까지 와서 연주한다는 데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는 이전에도 여러 번 찾았던 음악회이다. 고은사진미술관 2층의 작은 홀의 장소적 한계로 50명의 예약 청중만을 위한 음악회를 갖지만 이 점이 오히려 큰 매력이다. 연주자들이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그들의 음악적 호흡까지도 함께하게 되며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18, 19세기 소수의 청중을 위해 유럽 저택에서 열렸던 실내악 연주회를 상상하며 즐기는 은밀한 기쁨도 누린다. 음악회 시작 전, 혹은 끝난 후 사진 전시회도 볼 수 있으니 감동의 보너스라고나 할까.

첫 연주곡은 슈만의 '환상적 소곡 작품 73'에서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곡을 혼으로 바꿔 편곡한 곡을 연주하였다. 흔히 클라리넷 대신 첼로로 연주하기는 하지만 자주 듣기는 쉽지 않은 혼 연주로 듣는 건 색다른 묘미가 있다.

두 번째 연주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이다. 제 1악장이 시작되고 곧바로 든 느낌은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다. 두 악기 간 음량 대비를 잠깐 염려하는 사이 곡은 2악장으로 넘어가 있었다. 2악장은 특히 아름다운 악장이다. 그 아름다움과 깊은 서정성을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음색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바이올린 연주는 특히 화음에서 나타나는 깨끗한 음정 처리 등이 돋보였다. 3악장으로 접어들자 피아노 소리는 이제 익숙해지고 바이올린과 주고받는 대화는 두 악기 사이의 완벽한 호흡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악장에 이르자 피아니스트를 향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반클라이번 콩쿠르 수상자인 그는 이제 브람스의 음악을 풍성하게 하는 연주자가 되어 있었고, 바이올린 또한 피아노 소리를 뚫고 나오는 강하고 탄력 있는 연주로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였다. 이 날의 연주는 이제까지 듣고 본 브람스 소나타 3번 중 특히 열정적인 소나타로 다가왔다. 이 곡에 이렇듯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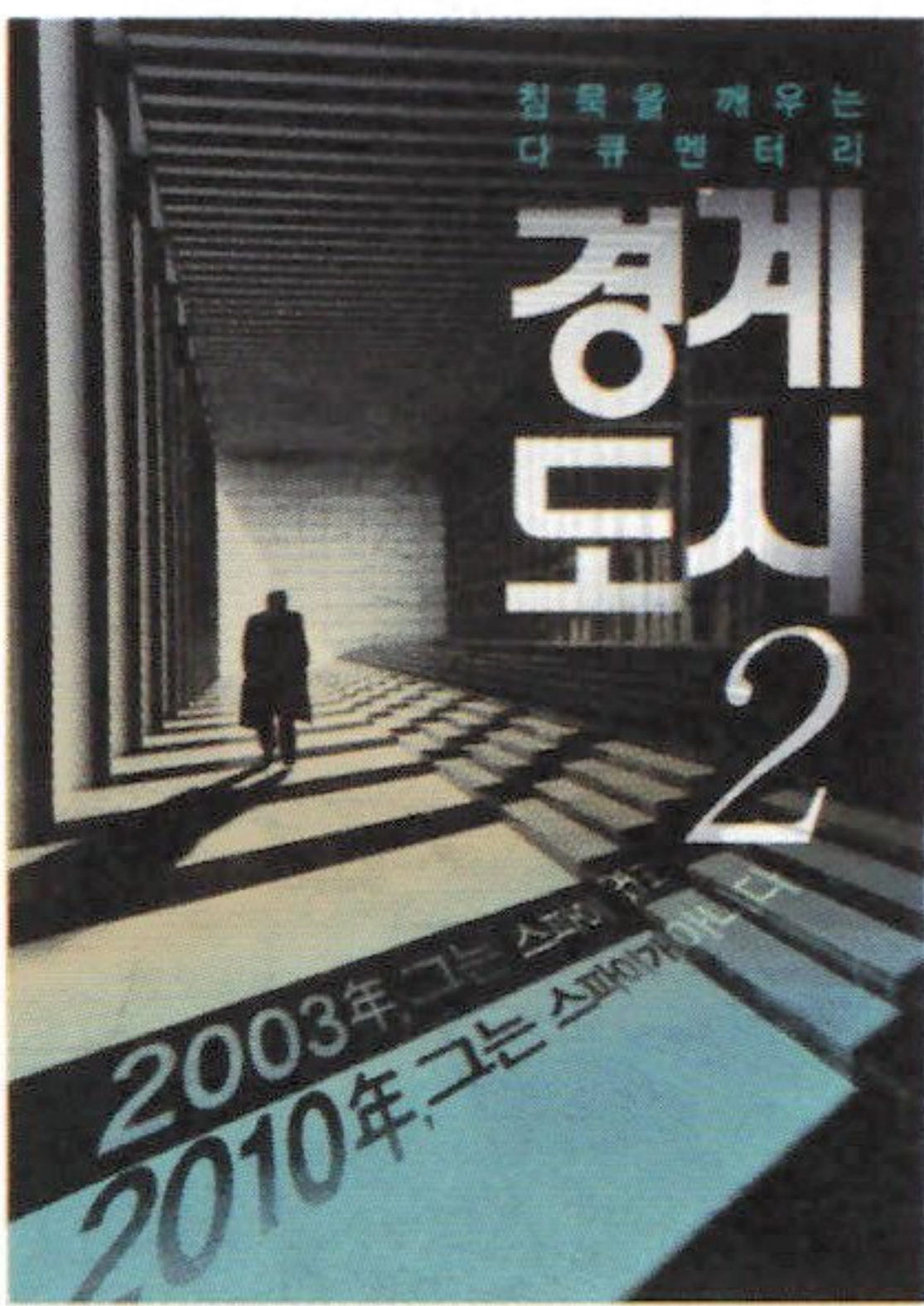
마지막 곡은 '브람스 혼 트리오'였다. 혼 연주자의 간단한 해설에 이어 혼이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하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물씬 품어냈다. 음악을 따라 숲 속을 거닐고, 2악장의 밝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상상을 한다. 그런데 혼의 음량이나 피아노의 음량이나 만만치 않는데 그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는 바이올린이 탁월하다. 제 3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듯 어머니를 여윈 슬픔을 음악 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통함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바이올린은 빼어난 서정성으로, 혼은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피아노는 저음을 보다 두껍고 진중하게 연주함으로써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절한 슬픔을 음악으로 나타내었다. 잔인한 이 4월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듯이!

그러나 어디 인생이 슬픔뿐이라.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듯이 혼은 팡파르를 울리고, 거기에 화답하듯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다그치듯 연주하며 화려한 앙상블을 이루어냈다.

#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 경계도시 2

김희진 \_ 영화감독



2003년 37년만의 귀국길에 오른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한국 땅을 다시금 밟게 되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해외에서 투쟁의 길을 걸었던 그는 이 귀국길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일이 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귀국 후 열흘이 되는 시점부터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이란 이름이 붙여지고 그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이념에 대한 격론의 장을 만드는 태풍의 눈이 된다. 보수 우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이 회오리바람은 언론의 날갯짓을 통해 수많은 의심의 깃털로 이 땅을 뒤덮어 버린다. 한국 사회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소리 내는 대나무 숲이 되고 화산재에 뒤덮인 하늘이 되어 버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송두율 교수의 귀국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난해 완성되었다. 지금은 저 멀리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건드린다. 송두율 교수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개인의 신념은 주변의 목소리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어 간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자 했으므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그에게 눈곱만큼의 인간애도 보여주지 않는 사회를 만난 것이다. 국가가, 언론이, 동지가, 그리고 국민이 그를 차례로 공격해가고,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랐던 대한민국을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그를 간첩으로 몰았던 이 사회는 한 개인을 고통과 파멸

로 몰아넣은 다음 잊어버리는 탁월한 정화능력을 보여줬다. 그는 개인이었으므로 과거에 모두를 위해 해왔던 일들은 무시되고 단지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그에게 신념을 저버리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역설을 강조한다. 모든 판단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그럼 송두율 교수의 가치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 역설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고, 언론이 있었다. 이념의 유령으로부터 햄릿의 독백만이 메아리치는 대한민국은 한 개인을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경계도시 2〉는 한국 사회가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폭력 중에 가장 강력하고 침예한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신념을 지킬 수 없고 그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마지막엔 그 대상을 잊어버리는 사회가 이 사회인 것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나 스스로에게 향하는 화살촉의 날카로움에 몸이 떨렸다. 그동안 내가 당해 온 이 사회의 폭력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극장의 어둠만큼이나 갑갑한 호흡곤란을 느꼈다. 한 개인이 타인에 의해 개인의 존엄성이 망가져 가는 과정을 보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가 떠올랐다.

홍형숙 감독은 영화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분열의 고통을 겪었을까. 용기 있게 공개한 이 사회의 모순과 치부를 보여주어 고맙다. 아픔은 언제나 치유로 나아간다. 누군가 이 고질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우리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라고 일깨워주는 것 같다. 먼저 나부터 치유하자.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을 아프게 하지 말자. 오늘도 경계에 서서 혼자만의 몸무게로 세상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신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자. 〈경계도시 2〉는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함을 일깨워 주는 영화였다.



영화공간 '보기드문'

## 예술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영화공간 **보기드문**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중앙동 도심 한가운데 '보기드문' 공간이 탄생했다. '영화'를 매개로 예술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특별한 곳, 바로 영화공간 '보기드문'이다.

도심에 새로운 문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문을 연 '보기드문'은 독립영화 '범일동블루스'로 알려진 부산의 영화감독 김희진 씨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만큼 영화공간 '보기드문'에는 영화를 사랑하는 김희진 씨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

란히 배여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밋밋한 건물 외관과 달리 건물 4층에 자리한 '보기드문'은 마치 잘 꾸며진 북카페 같다. 여럿이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널찍한 테이블들을 중심으로 좌우 벽면에 테이블을 겸한 나지막한 서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 곳 서가에 구비된 영화관련 자료만 2,000여 점. 김희진 씨가 소장하고 있던 각종 영화 비디오와 DVD, 영화관련 서적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이 쉽



게 구할 수 없는 예술영화, 독립영화들이라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는 마치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벽면을 장식한 각종 영화포스터와 영화소품 역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재미있는 볼거리이다.

3월 20일 개관식 이후 다시 찾은 '보기드문'에는 마침 엄마 손에 이끌려 이곳을 찾은 어린 관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이 한창이었다.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영화세상에 빠져 있는 꼬마 친구들에게도 '보기드문'은 재미있는 놀이터이다. 프로젝트 스크린을 이용한 단체관람이 아니더라도 한쪽에 구비된 PC와 노트북 등을 이용하면 개별적으로도 영화관람이 가능하다. '보기드문'을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영화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보기드문'은 누구나 들러서 편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개관 후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인근 직장인들의 쉼터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김희진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숏 런치(Short Lunch)'를 열고 있다. '숏 런치(Short Lunch)'는 말 그대로 점심식사 후 남는 짧은 여유시간에 열리는 단편영화 상영회이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12시 30분과 1시, 두차례 열리며 매일 다른 주제의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세계 우수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최지영 감독 '산책', 영화 '질투는 나의 힘' '과주'의 박찬옥 감독의 단편영화 '느린 여름', 상큼발랄 귀여로맨스 김조광수 감독의 '소년, 소년을 만나다' 등 일반 영화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단편영화가 상영되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4월말부터는 각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추천하는 '지금 이 영화'전이 열릴 예정이다. 그들이 자신있게 추천한 영화 상영과 함께 추천 인사들이 직접 출연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한다. 6월부터 진행되는 '키워드 극장' 역시 '보기드문'이 야심차게 기획하는 특별 프로그램. 매월 한가지의 주제를 정해 예술 장르간의 상호소통을 꾀하는 '키워드 극장'은 지정된 키워드를 주제로 영화상영과 전시,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매 시기 별로 연관된 영화인들을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갖는 '영화

인열전', 영화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재밌는 영화세상' 등도 가까운 시일내에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 '보기드문'에서는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김희진 씨가 운영하는 소모임 '직통'이 꾸려진다. '직통'은 '직관과 통찰'을 줄인 말로, 영화이론을 보다 전문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소모임이다. 이밖에 시민영상제작교실, 시나리오교실, 영화읽기교실 등 영화강좌와 영화인 초청 특강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영화로 만나는 열린 영화공간 '보기드문', 부산영화 역사의 산실이었던 중앙동에서 새로운 영화바람을 기대해본다.(글, 사진/정복엽)

■문의 : 영화공간 보기드문(www.tttg.kr, 070-4110-1895)



영화공간 '보기드문'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앙동 직장인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 음악을 통한 여유와 행복 The 和音餘幸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행복감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나는 ‘The 화음여행(The 和音餘幸)’이 지난 3월 30일 1주년 생일을 맞아 해운대의 한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평소 작은 하우스음악회 개최를 소망해온 화음여행 회원들이 1주년을 기념해 친분 있는 연주자들을 특별히 초청, 1년간 꿈꾸어온 특별한 음악회를 연 것. 1주년인 만큼 그동안 함께 해온 화음여행 회원과 마음으로 든든하게 후원해준 회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감미로운 하우스 콘서트가 열렸다.

모차르트 ‘오보에 4중주’와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테마 등 감미로운 오보에 선율에 취한 화음여행 가족들은 지난 1년간 음악과 함께 한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화음여행’은 2009년 1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민클래식교실에 참가한 곽창우, 안인성, 우귀화, 윤정화, 황선영 등 열성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8주 과정의 시민클래식 교실을 마치고 나니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음여행(和音餘幸)은 화요일과 음악에서 발음 '화음'을 차용하고 그 뜻은 harmony의 화음(和音)으로 하고 음악을 통한 여유(餘裕)와 행복(幸福)을 조합한 이름이다.



화음여행 회장을 맡고 있는 안인성 씨. 그는 이제 재미를 붙인 클래식 공부를 그만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뜻을 같이 한 수강생 5명과 화음 여행을 결성했다.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전부터 시립교향악단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혀왔고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 쉽게 의견이 모아졌다.

모임 이름인 화음여행(和音餘幸)에는 많은 뜻이 있다. 화요일과 음악에서 발음 '화음'을 차용하고 그 뜻은 harmony의 화음(和音)으로 하여 모임 성격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꿈과 행복을 찾는 행위인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화요일마다 만나는데 뜻을 모으고 화요일을 '음악을 통한 여유(餘裕)와 행복(幸福)의 날'로 정하면서 회 명칭을 화음(和音) 여행(餘幸)으로 조합했다.

인생 제 2의 막을 음악으로 열고 싶다는 화음여행 가족들은 더불어 살면서 음악과 사람과 세상, 자연과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2명. 40대 괄창우 회원부터 70대 황선영 회원까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음악' 사랑을 펼치고 있다.

소문난 클래식 애호가인 안인성 회장은 아내 우귀화씨와 함께 화음여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주년을 맞은 3월 30일에는 진애명 회원의 남편 김광수 씨가 신입회원으로 모임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부부가 자연스럽게 회원에 가입하게 된 것.

"화음여행과 같은 아름다운 모임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나의 꿈과 행복을 찾아 음악을 듣겠다는 결심으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화음여행은 단순히 음악을 함께 듣는 데만 그치는 음악동호회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매주 클래식 공부에 열심이다. 체계적인 음악공부를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세 씨를 초빙해 매주 음악 감상과 클래식 입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모임시기에 맞춰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비롯해 특별한 연주회가 있으면 레퍼토리를 미리 들어보고 회원들이 함께 공연장을 찾는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게 되면서 화음여행 가족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최고의 명언으로 꼽게 되었다. 한 주 한 주 모임을 거듭하면서 지식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새로운 음악 세상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때 들리는 클래식 선율은 깊은 심연에 이르러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클래식음악을 좋아해 그동안 음악회를 자주 갔지만 우리 나이에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듣고 느끼는 정도였어요. 1년간 화음여행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클래식음악을 조금씩 배우게 되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한한 음악의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주년 행사에 맞춰 처음으로 가진 하우스 음악회에서는 그동안 회원들과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감동을 맛보았다. 화음여행 가족들은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클래식음악을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하우스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1년간 화음여행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그 어느 여행보다 행복했다는 안인성 회장과 화음 여행 가족들. 꿈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들의 음악여행은 계속된다.

(글, 사진/백경옥)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2010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 COMEDY

5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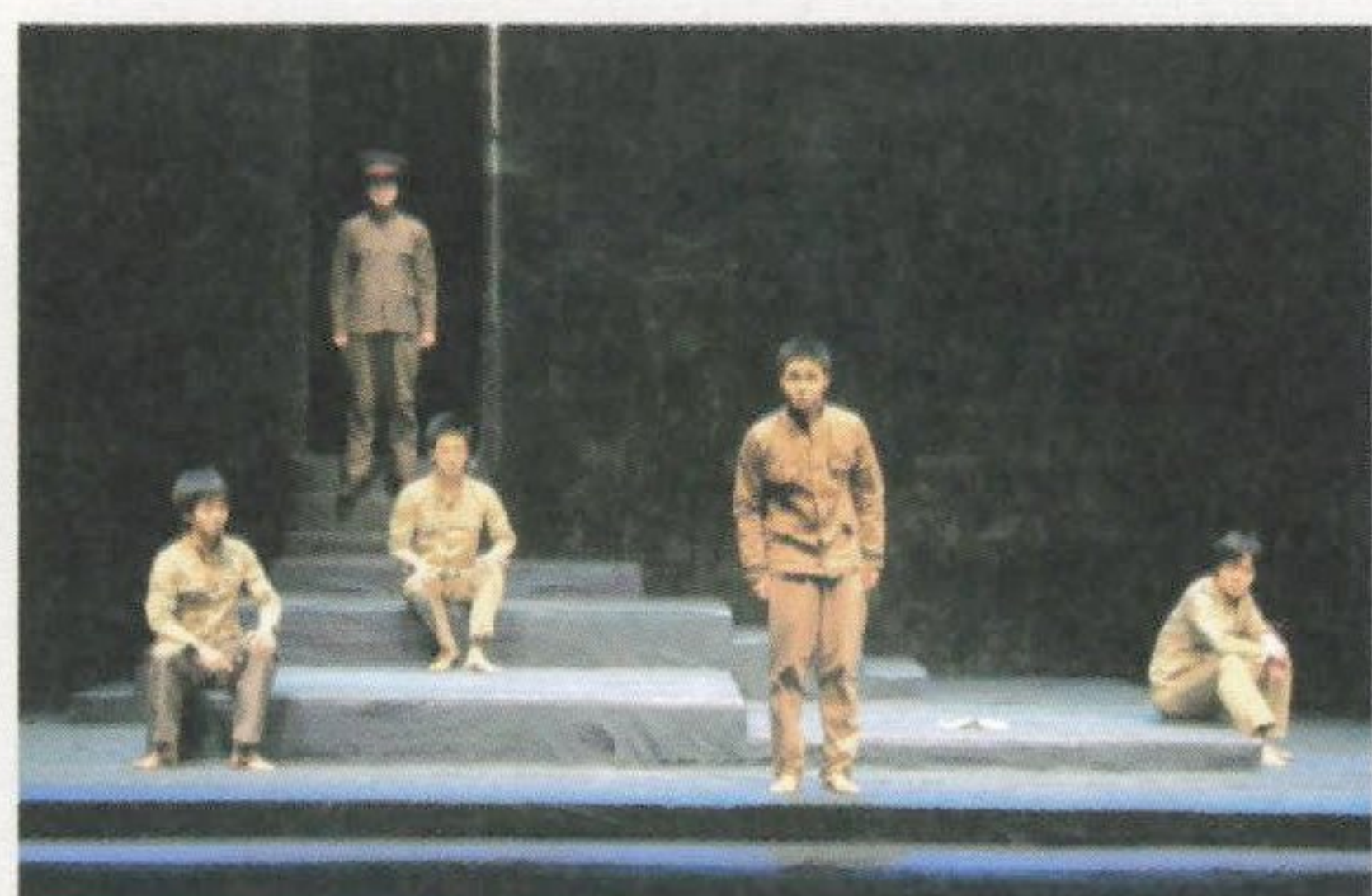
‘연극의 경계선(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atre)’을 컨셉으로 6개국 19편 작품이 펼쳐지는 2010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프랑스 Nasser Martin-Gousset Company의 ‘COMEDY’.

일반적인 연극 공연에만 길들여져 있는 관객들에게 모던 댄스와 블랙 코미디의 절묘한 만남으로 연극의 재미를 선사한다.

- 안무/Nasser Martin-Gousset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일 공연 20% 할인)
-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 2010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 한국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5월 5일-6일 수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으로 다시 만나는 부산국제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꿈꾸

는 화석’은 일제 강점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수한과 진한, 기영의 삶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본다.

- 작/고연옥 · 연출/강성우
- 출연/허정현, 권병익, 신동훈, 배진만, 강봉금, 황유나, 조성배, 우영태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 2010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세번째 전환

5월 7일-8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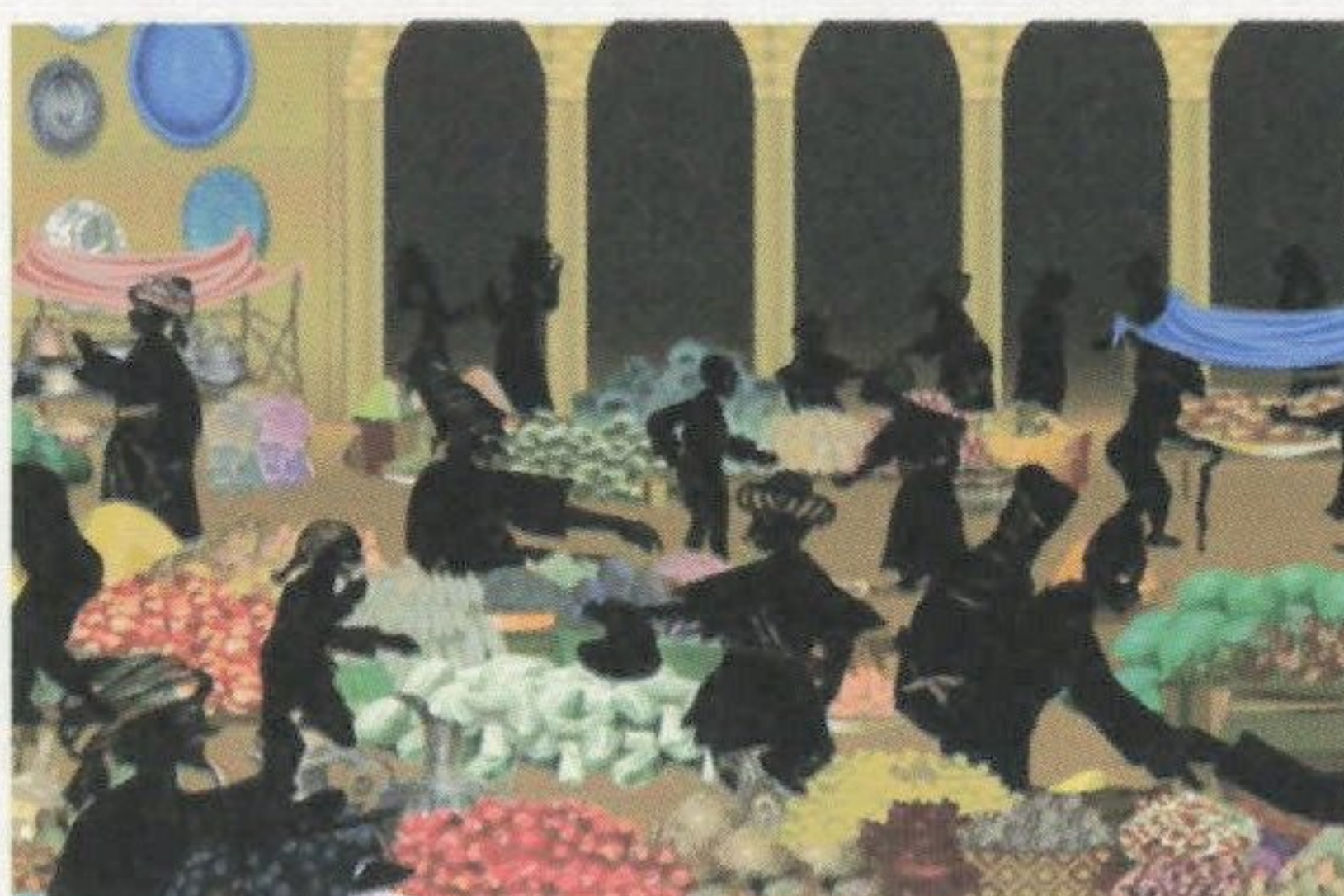
거친 에너지와 꾸밈없는 날것의 몸짓을 통해 호소력 짙은 무대를 선사해 온 트러스트 무용단의 ‘세번째 전환’ 부산무대.

- 안무/김형희
- 예술감독, 연출/김윤규
- 출연/이선영, 최진한, 구선진, 이재은, 서진욱 외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 2010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한국 수레무대 이슬람 수학자

5월 9일-10일 일요일 오후 7:00,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브라질 작가 말바 타한의 수학소설 <The Man Who Counted>(국내 번역소설:셈 도사 베레미즈의 모험)를 각색한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이슬람 수학자’.

영상의 영화적 기법과 그림자극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 작품은 셈 도사 베레미즈가 풀어나가는 대서사시적 규모의 스토리와 난해한 수학 공식, 도형에 대한 이미지들을 명쾌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유쾌한 작품이다.

- 연출/김태용 · 영상감독/이은아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9일 공연 20% 할인)
- **문의**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5월 11일-12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9년 창립 이래 피아노 듀오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선생을 중심으로 207명의 회원들이 매년 2회의 연주회, 콩쿠르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제 1일 5월 11일(화) 피아노 듀오 연주회**  
윤혜정 & 박희정, 최민경 & 임효진, 김선화 & 정희경, 서양지 & 정수연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연주회.

###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작품 94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  
아렌스키/모음곡 제 1번 등

- **제 2일 5월 12일(수)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문주와 부산대학교와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진희의 듀오 연주회.

### 프로그램

슈베르트/그랜드 론도 D.951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브리튼/서주와 부를레스크풍 론도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진희(010-9928-3733)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Mooco...n Dance Project -차이(差異) 추억 그리고 기억

5월 12일-13일 수-목요일 오후 8:00 소극장



각각의 차이 덕분에 보다 충만한 하나를 만들어가는 Mooco...n Dance Project-차이(差異)가 새롭게 선보이는 '추억 그리고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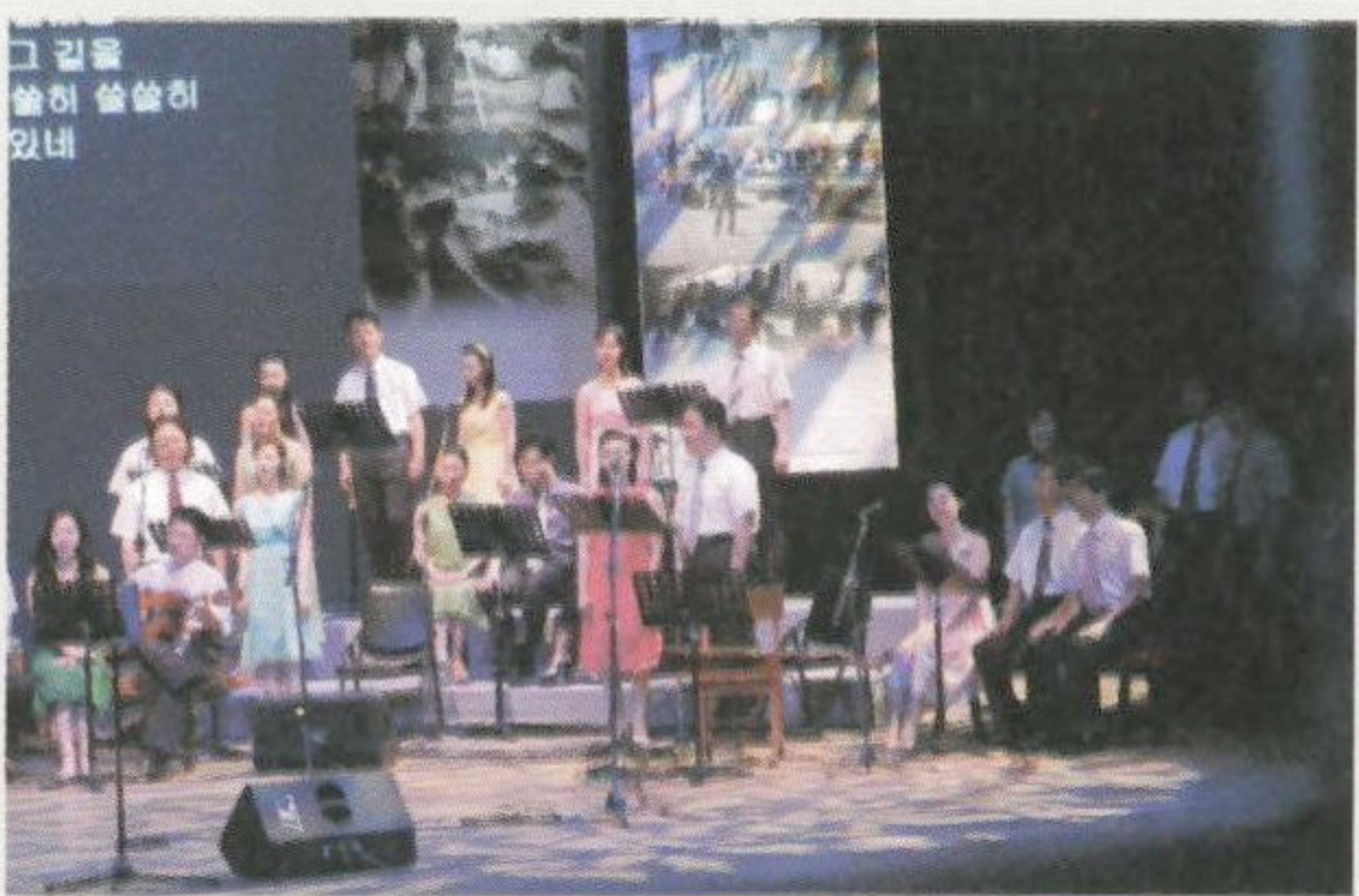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남자가 들여다본 골목안의 풍경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억 속 저 너머 과거 여행을 떠난다.

· 안무/문라옥 · 연출/구현철  
· 출연/문라옥, 김종현, 김초슬, 정문경

■ 관람료 일반 15,000원  
■ 문 의 안주현(010-2704-2552)

## 부산시립합창단 7080 가요합창음악회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가요 합창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7080 세대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가요 합창' 여섯 번째 이야기.

2009년 관객의 반향이 가장 컸던 '팔도강산' '경상도 아가씨'로 시작하는 '리멤버 2009',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만화주제가를 들려주는

'70년대 어린이 만화 주제가 모음', 1970년대 국민 드라마 주제곡을 모은 '70년대 온 가족이 함께 보던 드라마 주제가모음' 등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훈훈한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리멤버 2009/팔도강산, 경상도 아가씨, 나의 기타이야기

70년대 어린이드라마 주제가모음/짱가, 로봇 '태권 브이', 독수리 오형제, 태권 동자 '마루치 아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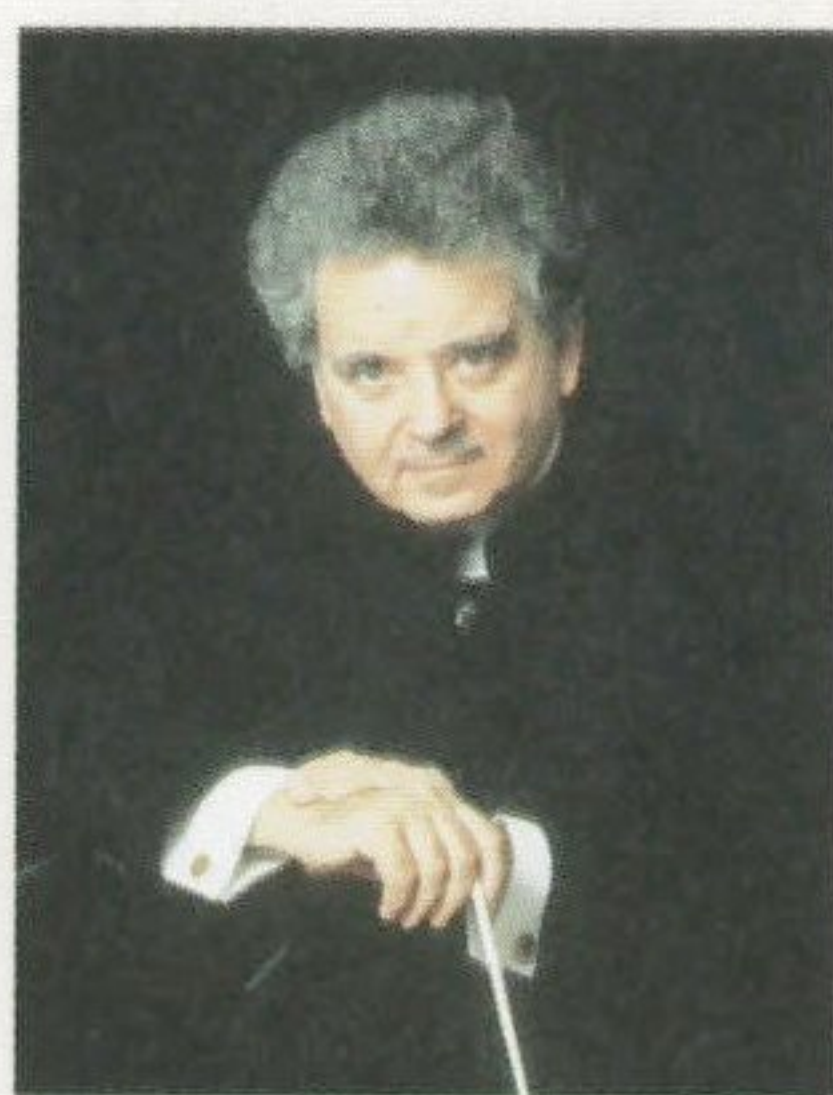
70년대 온가족이 함께 보던 드라마 주제가모음/여로, 꿈나무, 전우 등 수곡

· 지휘, 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편곡/문지은, 백현주, 윤지영, 최석태  
· 드럼/김진훈 · 포크기타/김정태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9회 정기연주회 BBB II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유리엘 세갈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유리엘 세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BBB (Beethoven & Brahms in Busan)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지난 해 부산국제음악제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를 통해 부산음악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객원지휘자 유리엘 세갈은 1969년 뉴욕의 국제 미트로폴로스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후 유럽과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어 수많은 객원 지휘를 했다. 유리엘 세갈은 현재 인디아나 음대의 제이콥스 음악원 수석 객원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1, 2부 모두 협연자 없이 교향곡으로 구성된다.

###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4번 내림나장조 작품 60  
브람스/교향곡 제 4번 마단조 작품 98

· 지휘/유리엘 세갈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9 이상은 스타더스트 STARDUST

5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아홉 번째 주인공 이상은 부산 무대.

일렉트로니카로 진화한 이상은의 새로운 사운드와 영상 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

는 따스함을 부여한 컴퓨터 사운드와 VJ의 옛지 있는 영상으로 최근 발매한 14집 새 앨범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들려준다.

1988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19세의 나이로 데뷔한 이상은은 한국적, 아시아적 감성을 극복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5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젊고 패기에 찬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 38회 정기연주회.

2003년 부산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선정된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뛰어난 연주력과 음악적 열정으로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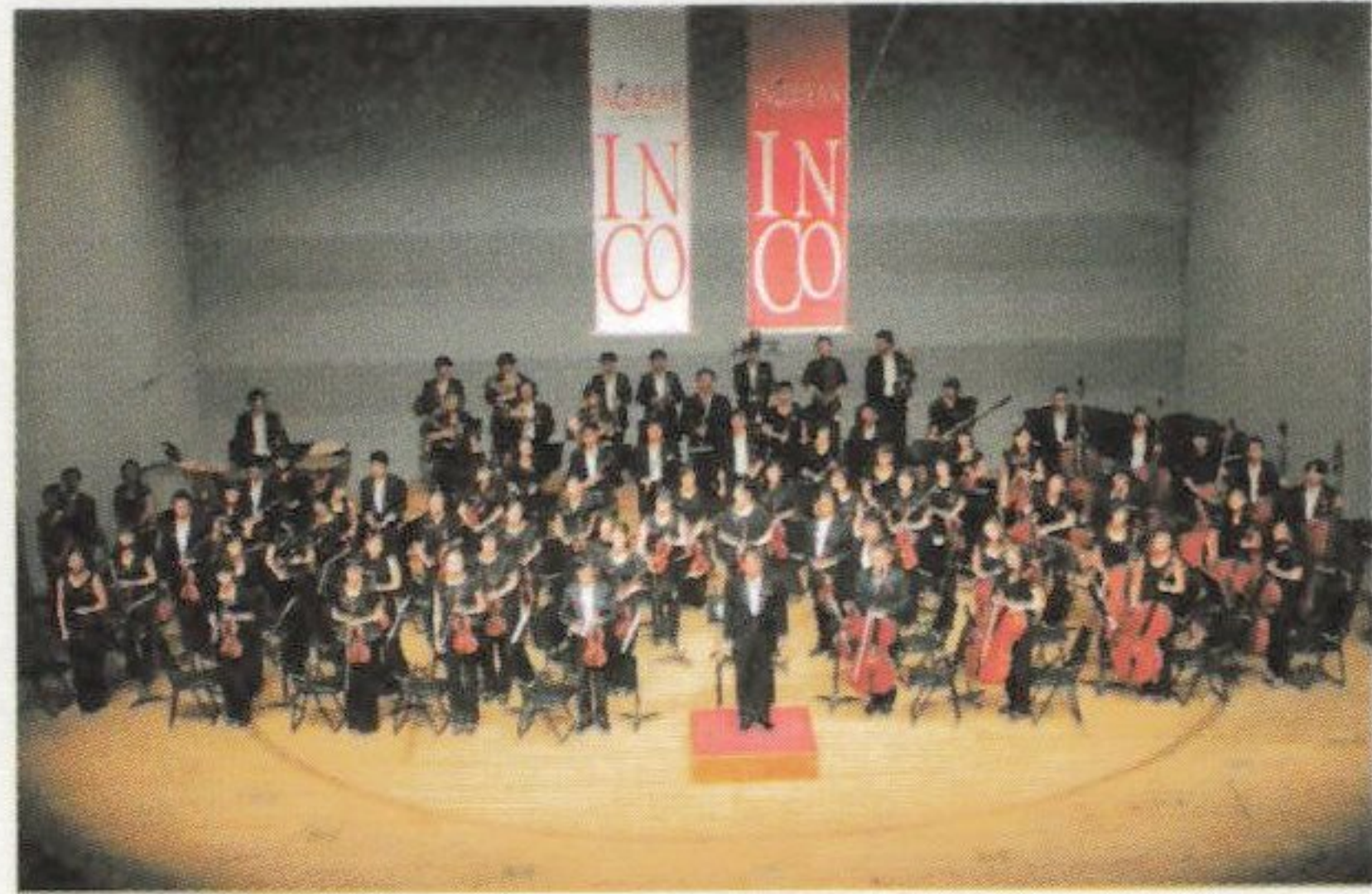
### 프로그램

베토벤/서곡 '레오노레' 제 3번 작품 72  
베토벤/삼중협주곡 작품 56  
베토벤/교향곡 제 7번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음악과 교수)
- 음악감독/김용문(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 협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정준수(동의대학교 외래교수), 한영란(연세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17-843-6688)

## 한국플루트교육자협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바른 음악교육과 대한민국 플루트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출범한 한국플루트교육자협회(Flute Educators Association)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4회 정기연주회.

한국플루트교육자협회(FEA)는 현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 단원, 대학, 학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플루트를 교육하고 있는 플루트 교육자 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 하이든/교향곡 제 101번 '시계'
- 드볼작/교향곡 제 8번 사장조 작품 88
- 모차르트/4대의 플루트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내림 마장조 K.297b
- 슈베르트/교향곡 제 5번 D.485 등 수곡
- 회장/박해성(라 플루타 솔리스트 앙상블 리더)
- 협연/박예니(부산시티오케스트라 단원)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플루트하우스(02-3487-2462)

## 제 20회 전국시낭송경연 부산대회

5월 16일 일요일 오후 1:00 소극장

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91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낭송대회를 열어온 재능문화 전국 시낭송대회 부산대회.

본선대회 각 부문 대상에게는 '김수남 시낭송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수여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재능문화 (02-3670-0180, 016-291-5620)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9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5월 17일-19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6년 4월 창단연주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2회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9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 첫째날 5월 17일(월) 이지선 피아노 독주회  
인디애나 음대 졸업 시 성적 우수자에 한해 초청되는 Pi Kappa Lambda에 초청받은 바 있는 이지선은 학구적인 기반위에 Indiana University Chopin Concerto Competition 입상 후 이스트만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로 발탁된 바 있다.

### 프로그램

- 베토벤/소나타 제 7번 라장조 작품 10-3
-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arr. F. Liszt)
- 쇼팽/안단테 스피니아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등 수곡
- 둘째날 5월 18일(화) 슈만의 밤  
2010년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화, 김정은, 최지은이 들려주는 슈만의 밤.
- 셋째날 5월 19일(수) 솔로와 듀오의 밤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 박미성, 심정연, 이선령, 박윤정 & 박영신, 서민기 & 강은경, 박선미 & 서미라가 들려주는 솔로와 듀오의 밤.

### 프로그램

- 쇼팽/즉흥곡 작품 36 제 2번, 작품 66 제 4번
- 차이코프스키/동카 작품 59
- 존필드/녹턴 제 4번 가장조
- 로웰 리버번/녹턴 제 2번 작품 31
- 라벨/왈츠(transcription par l'auteur)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박지은(010-5160-0968)

## 박순자 피리독주회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자의 첫 피리 독주회.

### 프로그램

- 서용석류 피리산조, 판소리, 경기태평소, 태평소 시나위
- 판소리/남상일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순자(010-6806-4566)

## 춤 연분 흥 젊은 춤 작가 육성 프로젝트 I 조희정의 먹거나 먹히거나

5월 19일-20일 수-목요일 오후 8:00 소극장



실험적인 춤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독립춤꾼 그룹 춤패 연분 흥의 '2010 연분 흥 젊은 춤 작가 육성 프로젝트' 3부작 중 첫 번째 무대.

야생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관계 안에서, 문명 세계에서 인간의 전쟁 속에서, 인간과 기술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 미시세계와 인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성립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되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춤 언어로 나타낸다.

- 안무/조희정
- 예술감독/임현미
- 출연/김현진, 이용진, 정영민, 이소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단체 10,000원  
중고생 5,000원
- 문 의 김경희(010-2434-4466)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 콘서트 시리즈 II Dance in Classic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남국의 관능과 정열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  
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  
과 함께 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II Dance  
in Classic' 두 번째 무대.

3월 24일 펼쳐진 2010년 웰빙콘서트 첫 무대  
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남국의 관능과 정  
열이 넘치는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들로 흥  
겨운 무대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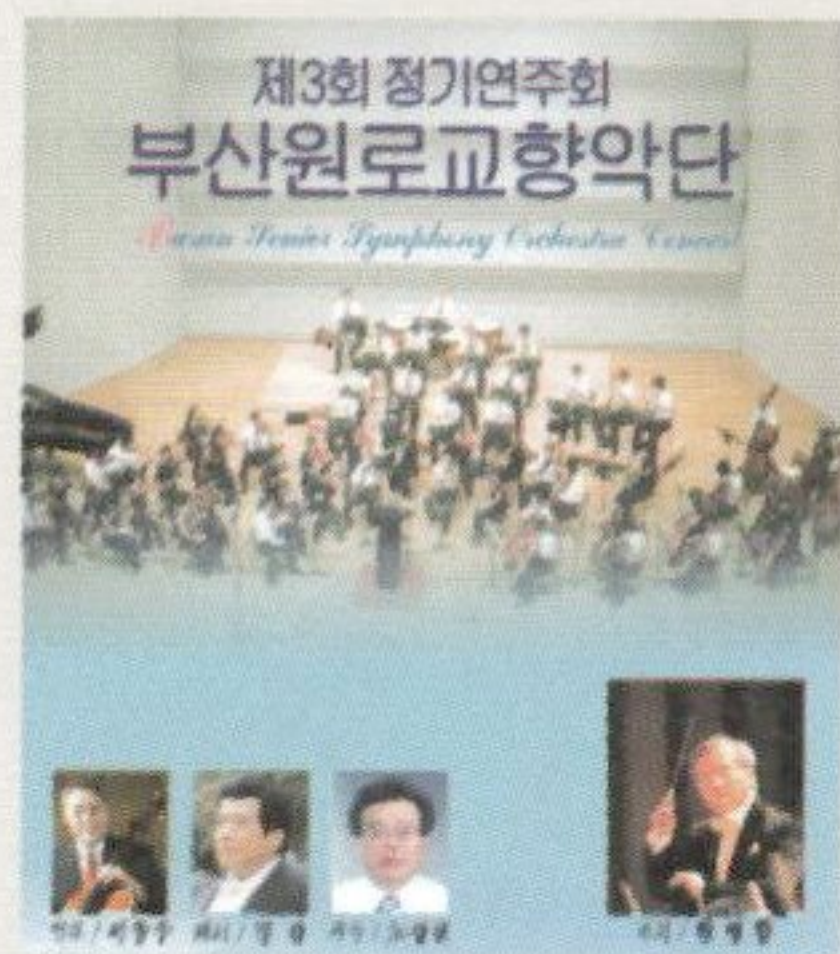
### 프로그램

- 비제/카르멘 전주곡-하바네라-꽃노래-집시의 노래
- 멘델스존/교향곡 제 4번 가장조 '이탈리아'
- 라벨/어릿광대의 아침노래
- 로시니/춤, 나폴리 타란텔라
- 비발디/글로리아 중 '도미네 데우스'(시칠리아노)
- 번스타인/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
- 지휘/이동신
- 해설 및 진행/김문경
- 협연/김지호(테너), 김정화(메조소프라노)
- 안무 및 댄스/김희정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3회 정기연주회

5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8년 부산지역  
클래식 음악의 초석을  
다져온 제 1세대 음악  
인들을 중심으로 창단  
된 부산원로교향악단  
의 제 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주역으로 제 2대 수석지휘자를 지낸 지휘자  
한병함의 지휘로 베토벤, 드보르작의 명곡과 청  
십자의원 노상현 원장의 창작가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 3번 작품 55 '영웅'
- 노상현/어느 화창한 봄날 그대 음성 들려, 진정  
사랑하기에, 경주 청유기
- 드보르작/첼로협주곡 작품 104
- 지휘/한병함
- 첼로/이동우(울산대학교 교수)
- 테너/정광(영남대학교 교수)
- 작곡/노상현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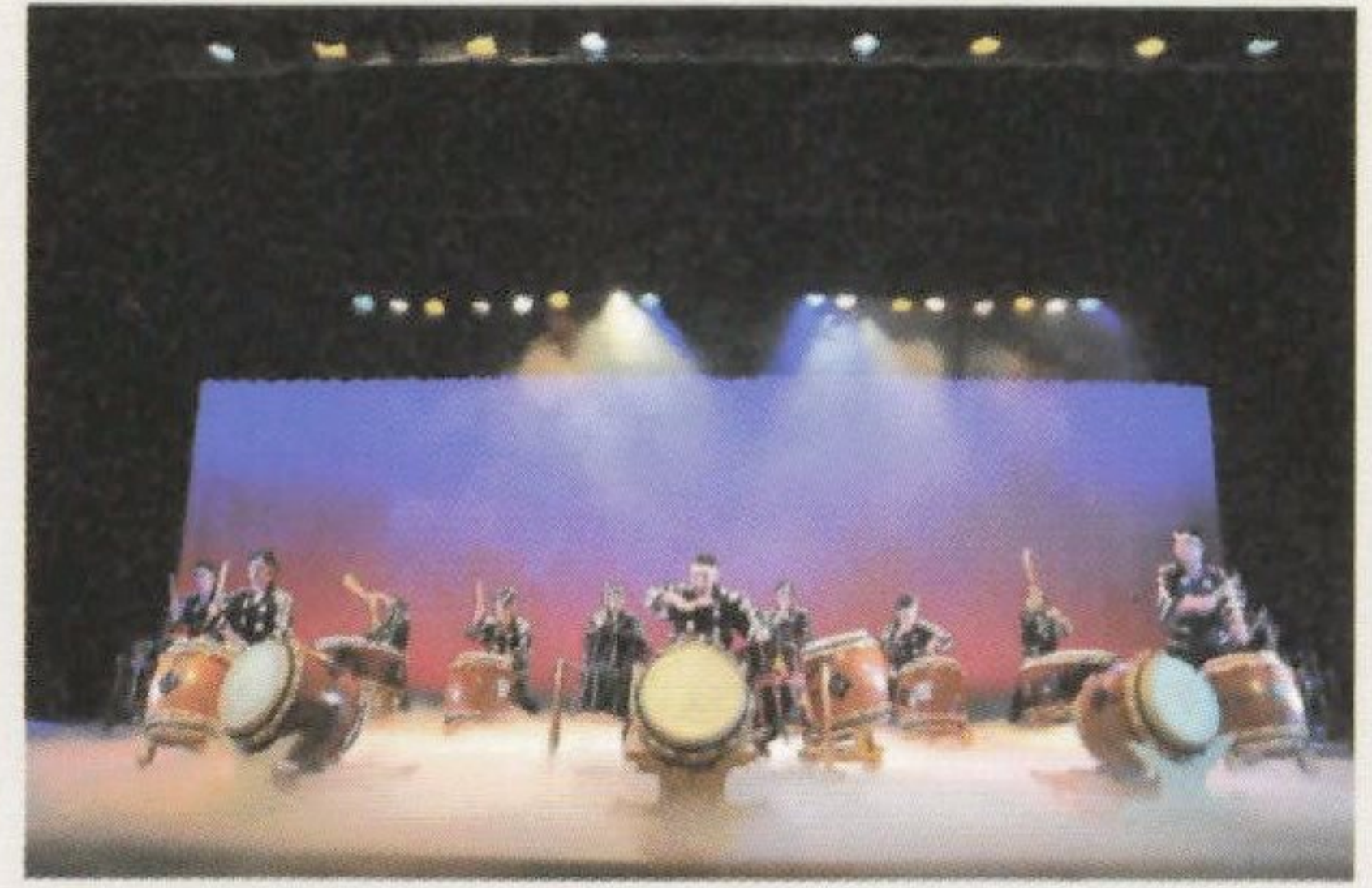
## 한·일 전통 타악 페스티벌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00 소극장

현대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통의 새로운 모  
습을 계승해온 해미르전통예술단과 일본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후쿠오카현 시메마치(志免町) 일본  
대북공연팀 '志免飛龍太鼓(시메히류다이코)',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옛소리' 예술단, 부산  
지역 대학연합보컬팀 블루웨이브가 함께 마련하  
는 한·일 전통 타악 페스티벌.

### 프로그램

- 환영과 우호의 노래(출연/블루웨이브)



- 오고무(五鼓舞)(출연/옛소리)
- 놀이 신명(출연/옛소리)
- 다이코(太鼓)(연주/시메히류(志免飛龍))
- 판굿(연주/해미르예술단)
- 삼도사물놀이(연주/해미르예술단)
- 아리랑 타악 환타지(출연/대학연합보컬 블루웨이  
브, 옛소리, 시메히류다이코(志免飛  
龍太鼓), 해미르예술단)

- 관람료 무료(초대권 배부)
- 문 의 부산레일아트(816-9991)

## 첼리스트 송영훈의 월드 프로젝트 콘서트 Part III 라틴 아메리카의 여정

5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2007년 탱고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Tango Again', 2008년 영원불멸의 탱고  
'Eternal Tango', 브라질의 숨결이 느껴지는  
'Song of Brazil', 2009년 아르헨티나의 뜨거운  
정열과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피아졸라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아낸 공연 'Original Tango'에  
이은 송영훈의 새로운 탱고 무대 '라틴아메리카의  
여정'.

'탱고 황제' 아스트로 피아졸라 밴드의 피아니  
스트 파블로 징어, 2008 에버리 패셔 커리어 그  
랜트 수상에 빛나는 클라리네티스트 호세 프랑크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바에스테르가 함께 하는 이번 월드 프로젝트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멕시코, 쿠바, 브라질, 우루과이 등 새로운 라틴 아메리칸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Julio Alberto Hernández/Merengues dominicanos

Luiz Simas/Suite 'Momentos felizes'(행복한 순간)

Paquito D'Rivera/Aires Tropicales:'Cuando se quiere de veras' Medley(쿠바,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남미 노래모음) 등 수곡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문의 스톱뮤직 (02-2658-3546~7, www.stompmusic.com)

## 제 5회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5월 23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발달장애인 복지회관인 나사함 발달장애복지관 가족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당나귀 난타 공연단, 이병주 Quintet이 들려주는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나사함은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프로그램

Heal the world(Flute & Saxophone), Lately(Stevie Wonder), Sir Duke(Stevie Wonder), 소나무(Bobby Kim)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의 E-Zen 엔터테인먼트 (904-8881, 011-856-4753)

## 창작합창 21 2010 정기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5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창작합창



21'의 2010년 발표무대.

동의대학교 최삼화 교수를 비롯해 황장수, 조혜선, 박규동, 오세일, 이기녕, 진소영, 김성재, 정혜란, 백성영의 창작합창곡 및 가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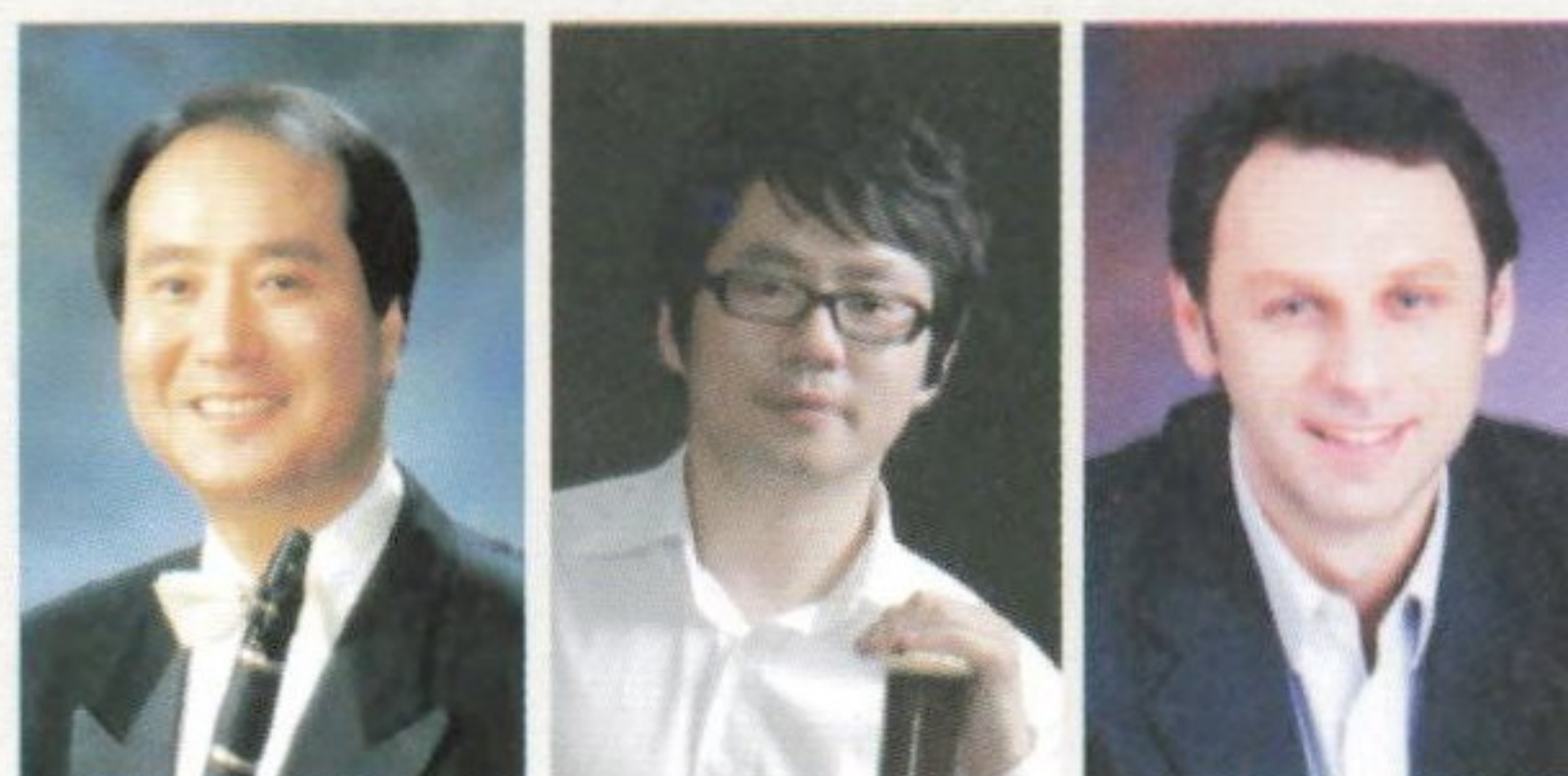
## 프로그램

최삼화/한 여름밤  
황장수/진달래 꽃  
조혜선/나의 친구  
박규동/바닷가 아이들 등 수곡

- 합창/코람데오합창단(지휘/황장수)  
기장어린이합창단(지휘/박규동)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조혜선(010-8501-5117)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5회 정기연주회 우리시대의 낭만음악

5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정우영

윤태준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3월 민족혼을 담은 국민주의 음악을 연주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세기에 작곡된 작품들 중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 '우리시대의 낭만음악'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낭만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풍부한 선율과 서정성이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 미국 작곡가 바버와 헨스, 표제음악과 교향시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독일 낭만파 거장 R.슈트라우스, 러시아 민속 선율을 낭만주의와 인상주의적인 요소로 구성한 글리에르의 작품으로 감동을 전한다.

## 프로그램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R.슈트라우스/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소협주곡 작품 147  
글리에르/콜로라투라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품 82  
헨스/메리 마운트 모음곡 작품 31

- 지휘/이동신
- 협연/정우영(클라리넷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윤태준(바순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그랜드오페라단 제 28회 정기공연 오페라 '봄봄'

5월 28일-29일 금요일 오후 3:00,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창단 14주년을 맞은 그랜드오페라단이 우리 민족의 예술적 정서와 표현양식에 맞는 오페라적 미학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오페라 '봄봄'.

우리 근대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김유정의 동명소설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이건용 교수가 작곡한 오페라 '봄봄'은 옛 시골 농가를 배경으로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과 이들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장인과 사위의 갈등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선율로 그리고 있다.

희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적절히 가미하여, 소설의 탁월한 언어감과 극적인 구성을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의 어법으로 풀어낸 오페라 '봄봄'은 토속적인 무대와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담은 아리아, 다채로운 타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악기의 리드미컬한 연주를 통해 우리 문학작품을 성공적으로 오페라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지귀와 아랑'을 연출한 바 있는 안호원이 연출을, 예술의 전당과 영국 로얄오페라하우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피가로의 결혼' 음악감독을 맡은 바 있는 정금련이 지휘봉을 잡는다.

소프라노 김정원, 베이스 김정대, 테너 황성학 등 전문 성악가들이 연극배우 이정비의 전문적인 연기지도를 거쳐 무대에 선다.

· 작곡/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교수)

· 총예술감독/안지환(신라대 음악학과 교수)

· 연출/안호원 · 지휘/정금련

· 오케스트라/그랜드챔버오케스트라

· 안무/왕정희

· 출연/소프라노 김정원, 테너 황성학, 메조소프라노 황윤정, 베이스 김정대, 테너 서민규 외 전문 성악가 다수

■ 관람료 VIP석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850-1201)

## 제 10회 아르스칼렛 연주회

5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1년 창단 이래 정기연주회 9회, 부산 MBC 창사기념 제 44회 목요일음악회, 부산음협 주최 실내악 축제, 갤러리 자미원 초청 '송년음악회',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연주, 봉생병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등을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 온 아르스 칼렛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스메타나/현악 4중주 제 1번 마단조 '나의 생애로부터'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 연주/조현미(바이올린 · 신라대학교 교수), 권남희(바이올린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성호(비올라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하경희(첼로 ·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 피아노 협연/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 의 정매니지먼트(011-589-3111)

## 제16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6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뒤늦게 음악공부를 시작, 전문성악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멜로매니아의 제 1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가곡/오라, 목련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가고파 대중가요/그대 그리고 나, My Way  
외국곡/O Sole mio, Funiculi-funicula, Che faro senza Euridice 등 수곡

출연

원요한, 김덕영, 최성협, 오거돈, 한성권, 민정식, 김성홍, 윤치연

· 반주/곽윤희

■ 관람료 초대

■ 문 의 멜로매니아(011-590-111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0회 정기연주회 및 2010 부산연주인시리즈 BBB III

6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동신

최정윤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프로젝트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세 번째 무대.

부지휘자 이동신 지휘로 불굴의 투지로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이자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교향곡 제 3번 '영웅'으로 고전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장조 작품 58  
베토벤/교향곡 제 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 지휘/이동신 · 협연/최정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국내 최고 전문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 글로벌아트홀

첼로 김미나 줄리어드, NEC 동시합격(올해) - 2009년 10월 5일 글로벌아트홀에서 녹음한 CD제출곡으로








| 녹음사례 | 피아노 송정민 : 이스트만음대 수석합격 4년 전액 장학생, 바이올린 이슬기 : 피바디음대 합격, 성악 김혜원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합격 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녹음 및 대관 문의 : 051-505-599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 MUSIC

### 2010 평화장터공연 문화나눔 놀이터 Kiss the sky, 입에서 입으로

5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대연성당 평화장터 야외무대

음악과 춤, 다양한 포퍼먼스로 우리의 공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무대.

- 관람료 무료
- 문의 평화장터(622-0991)

### 모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5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아마추어연주자들로 결성된 모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정홍기 · 협연/정화음(첼로)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향련(010-3448-6975)

### 제 1회 하인철의 서도소리 발표회

5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도소리배뱅이굿 부산광역시보존회 회장으로 있는 소리꾼 하인철의 서도소리 발표회.

· 특별출연/박준영(중요무형문화재 서도소리배뱅이굿 준인간문화재)

- 관람료 무료
- 문의 하인철(757-4579, 011-550-4189)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 1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가야금병창 '내고향의 봄' '꽃이 피었네', 대금과 구름시나위, 통영교방진춤 등

- ▶ 8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동래한량무,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실내악 '춘무', 봄노래 민요연곡 등

- ▶ 15일 프로그램

춘앵전, 가야금병창 '꽃타령', 생소병주 '수룡음', 진주교방굿거리춤, 모듬북과 사물놀이 등

- ▶ 22일 프로그램

수요남극, 태평무, 시조 '동창이...', 실내악 '춘광여정', 승무, 살풀이, 판굿 등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 4일 추임새국악예술단 '국악향으로 봄꽃처럼'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 16호 부산농악 전수자 박종환이 단장으로 있는 추임새국악예술단의 신명넘치는 무대.

#### 프로그램

창작춤 '봄꽃 만발하여라', 김병섭류 우도설

장구, 소고춤, 퓨전사물놀이 등

- ▶ 11일 장선희무용단 '춤터'의 풍류

김진홍전통춤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춤꾼 장선희가 이끄는 장선희무용단 '춤터'의 전통춤판.

- ▶ 18일 황지인 '살리리 살리리랏다'

부산시여성문화회관 한국무용 강사로 있는 춤꾼 황지인의 전통춤판.

#### 프로그램

입춤, 진주검무, 살풀이, 한량무, 태평무, 승무 등

- ▶ 25일 홍선숙 거문고 독주회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로 있는 거문고주자 홍선숙 독주회.

#### 프로그램

경풍년,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보리피리 등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 ▶ 4일 안나 쉘류드코 피아노 독주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안나 쉘류드코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과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 ▶ 11일 듀오의 재발견 '드보르작 & 그리그'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이 드보르작과 그리그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진성 · 해설/장진규

- ▶ 18일 부산YWCA합창단 초청연주회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 여성합창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부산YWCA합창단 초청연주회.

· 지휘/김소천 · 반주/정미전

- ▶ 25일 피아니스트 최지원, 배미정 듀오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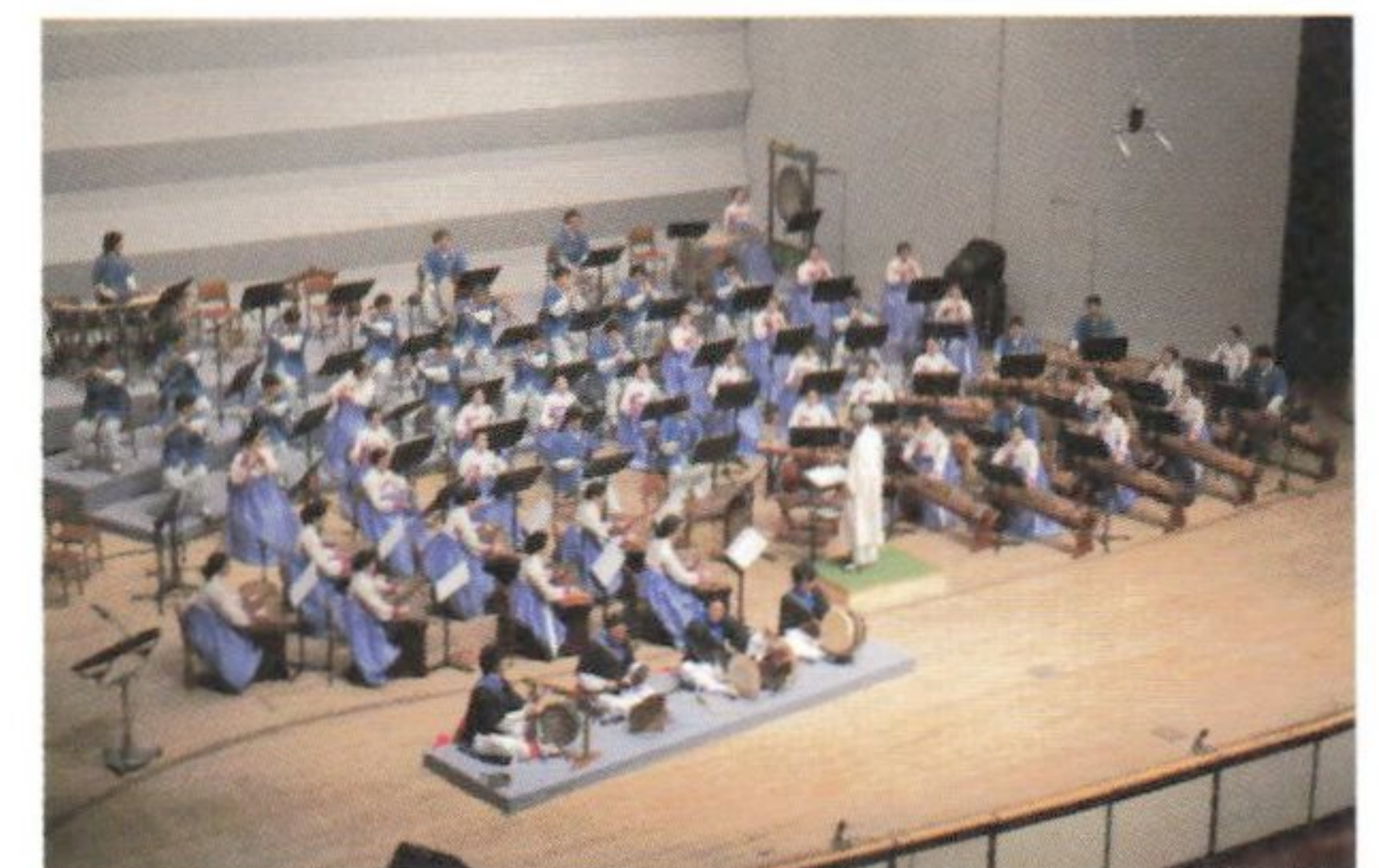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기악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최지원, 배미정 듀오무대.

최지원은 미국 북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전문연주자과정을, 배미정은 독일 부페탈 국립음대, 라이프치히국립음대를 졸업했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 5월 가정의 달 기념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족사랑 콘서트 '천원의 행복'

5월 3일(월), 6일(목)~8일(토), 10일(월)  
17일(월)~19일(수), 26일(수)~27일(목)  
부산지역 區 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합창단 '예술가곡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3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 교향악단 앙상블 디 마레  
'노래가 있는 즐거운 나의 집'  
6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콘서트  
7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8일(토)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연주/유라시안 챔버오케스트라  
· 협연/황세미(마림바)
- ▶ 무용단 '전래동화 속의 우리 춤'  
10일(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7일(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 국악관현악단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18일(화)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 ▶ 교향악단 레이스 필 앙상블  
'어린이 합창 그리고 즐거운 나의 집'  
19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합창단 '우리들의 노래 7080 이야기'  
26일(수)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7일(목)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 ▶ 국악관현악단 '소리가 있는 국악'  
27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균일 1,000원(culture.busan.go.kr에서 예매)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 트리오 연주회 가족, 사랑...그리고 삶

5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고마음, 서울대학교 및 줄리어드음대, 보스턴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최유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콘서바토리를 졸업

- 한 첼리스트 심어라가 들려주는 트리오 무대.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내림나장조 K.502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제 1번 나장조 작품 8 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제 5회 선소리 산타령 부산 정기공연 김경민의 경서도 소리판 배뱅이굿

5월 6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로 있는 김경민의 경서도 소리판 배뱅이 굿.

예능보유자 이은관의 독창을 창극으로 각색, 부인인 소리꾼 최주경과 함께 소리와 춤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김경민(010-4570-0398)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끝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 6일 가족극 '노래하는 강아지똥'  
춤과 노래, 인형극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 ▶ 13일 마임이스트 김세진 창작마임공연  
'자니스토리:The Best'  
2009 세계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3위에 입상한 마임이스트 김세진의 마임공연.
- ▶ 20일 소프라노 김현숙 & 이은미 & 신정순  
부산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김현숙, 이은미, 신정순의 3인 3색 무대.
- ▶ 27일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밖을 뛰쳐나오다  
젊은 국악인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신윤복, 김홍도 그림 속에 등장

하는 예술가들의 모습으로 색다른 무대를 펼친다.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김동규와 함께하는 I LOVE PARENTS!!! 부모님 사랑합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화려한 무대매너와 편안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바리톤 김동규가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시크릿가든/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수곡  
· 연주/YMCA 네오피로케스트라(지휘/김봉미)  
· 찬조출연/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홍지형, 크로스오버가수 JUN-O

- 관람료 VIP석 45,000원 · R석 35,000원  
A석 2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5)

## 제 3회 락음국악단 특별연주회 어버이날 효도 큰잔치

5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창업 55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한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필요할 경우 서점 방문이 어려운 도서 및  
인터넷주문: www.munbook.co.kr  
전화: 051) 241-5555(대)  
팩스: 051) 245-1181, 051) 243-2333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71-1

**각종업무안내**

- 1. 해사도서
- 2. 기술전문서적
- 3. 국경교과서
- 4. 경제경영양본
- 5. 서고, 컴퓨터관리실
- 6. 24시간 문화, 청소년, 민화, 여성도서

**문우당서점**

필요할 경우 서점 방문이 어려운 도서 및  
인터넷주문: www.munbook.co.kr  
전화: 051) 241-5555(대)  
팩스: 051) 245-1181, 051) 243-2333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71-1

**각종업무안내**

- 1. 각종지도
- 2. 각종외국어서적
- 3. 각종사면
- 4. 국산지구본
- 5. 수인지구본 소·중·대형
- 6.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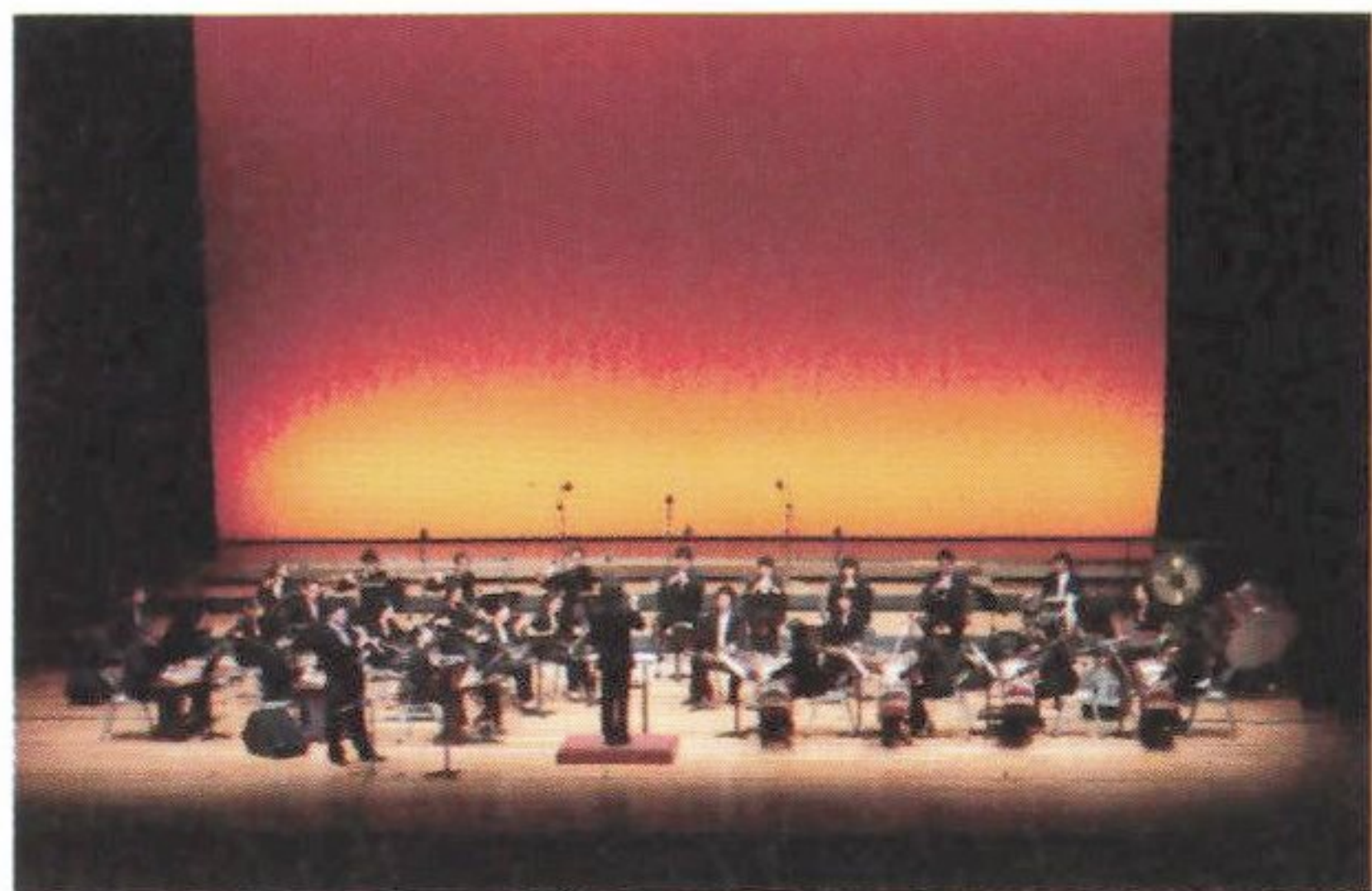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너를 건너면]**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원터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문화나눔을 실천하는 락 음국악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무대.

### 프로그램

회심곡, 부채춤, 노랫가락, 창부타령, 농악, 관현악 '프론티어', 가야금협연 '한오백년'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락음국악단(02-766-5112)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8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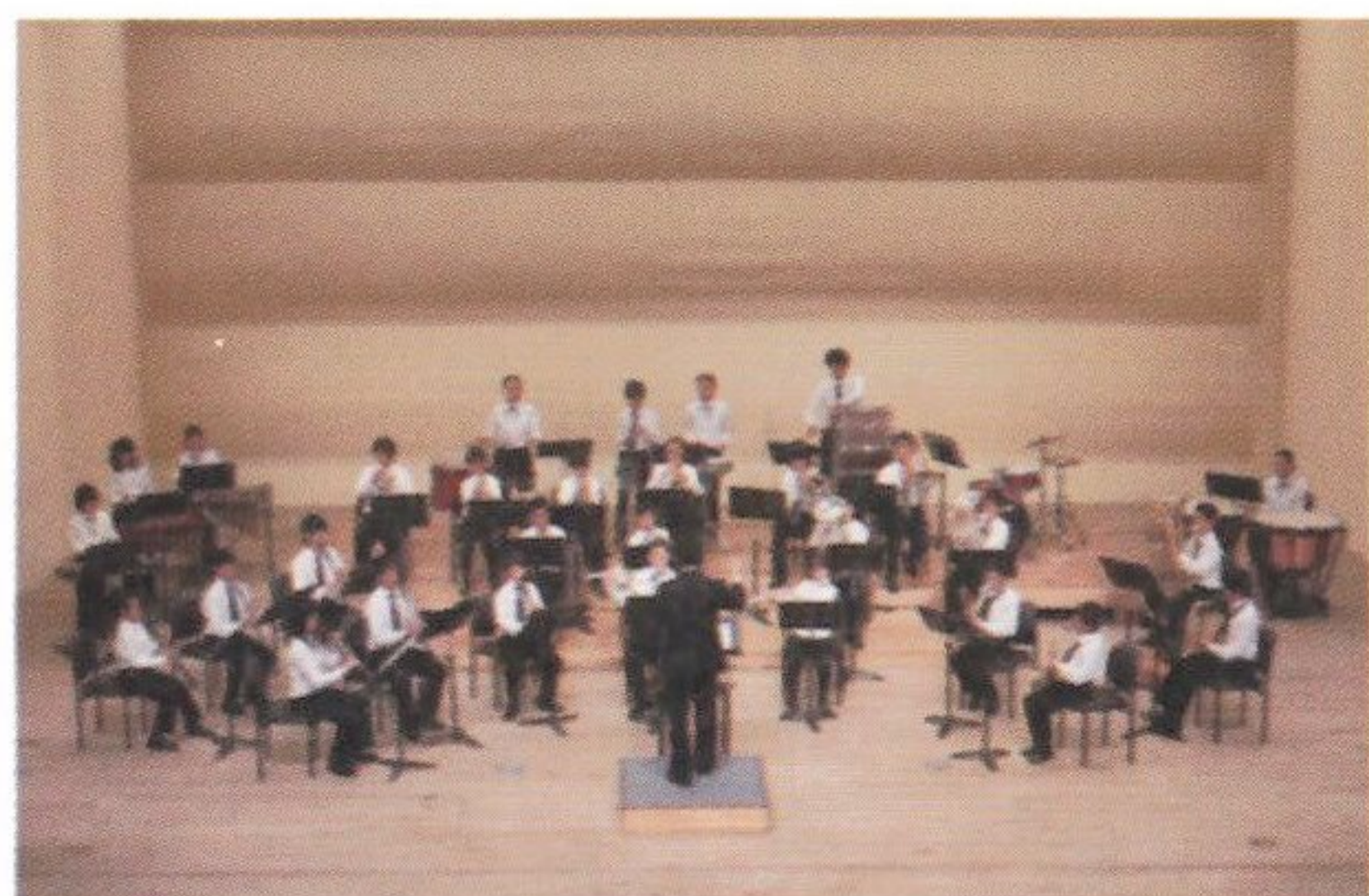
5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2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온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지휘/안유경
- 협연/김정강(피아노), 이혜림(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011-9511-3768, 010-8511-5863)

##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5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소속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지휘/황남용
- 협연/손영진(트럼펫,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동성원(582-4635)

## 2010년 경성대학교 교수음악회

5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들이 마련하는 교수음악회.

### 출연

서심미(피아노), 박미경(소프라노), 조현선(피아노), 장원상(테너), 임병원(바이올린), 김성규(바리톤), 최윤희(피아노), 정경님(오르간), 이화영선(피아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김희정(피아노)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경성대학교(663-4918)

##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10주년 기념음악회 2010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5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남지역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56명의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의 대향연을 펼친다.

###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46 제 1, 2, 8번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의 정년경(017-563-5301)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12일 피아니스트 김성숙·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 'Children's Corner'

현재 동의대 교수로 있는 김성숙과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메쓰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무대.

▶ 19일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경성대학교와 동대학원,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 26일 최준호 호른 독주회



독일 아헨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김해 GASC관악단, 서울세종윈드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호른리스트 최준호 독주회.

모차르트 협주곡 제 1~4번까지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김현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국 메네스음대와 뉴욕 퀸즈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은 UN필하모닉, Ureuk심포니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378  
드뷔시/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임재원 대금연주회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KBS국악관현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임재원 초청 대금연주회.

임재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 2005

년 KBS국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가야금/김일륜(중앙대학교 교수)
- 장구/김인수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제자음악회 클라리넷은 나의 친구

5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음악회.

- 출연/정남기, 정경용, 오혜인, 서유진, 홍도희
- **관람료** 무료
- **문의** 황남용(010-8007-8087)

##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5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이끄는 부산신포니에타가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 지휘/백진현(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출연/김경은(피아노·부산예고 3년), 김창환(피아노·학장중 3년), 심해수(울산옥수초등 6년·바이올린), 심지민(울산옥수초등 5년·바이올린), 심채영(울산옥수초등 4년·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 하은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하은영 귀국독주회.

### 프로그램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에프렘 짐발리스트/림

스키 코르사코프 '황금닭' 테마에 의한 환타지아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8번 작품 30-3

- 피아노/정광민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파리 에콜 노르말 최고사범과정, 파리 국제콘서바토리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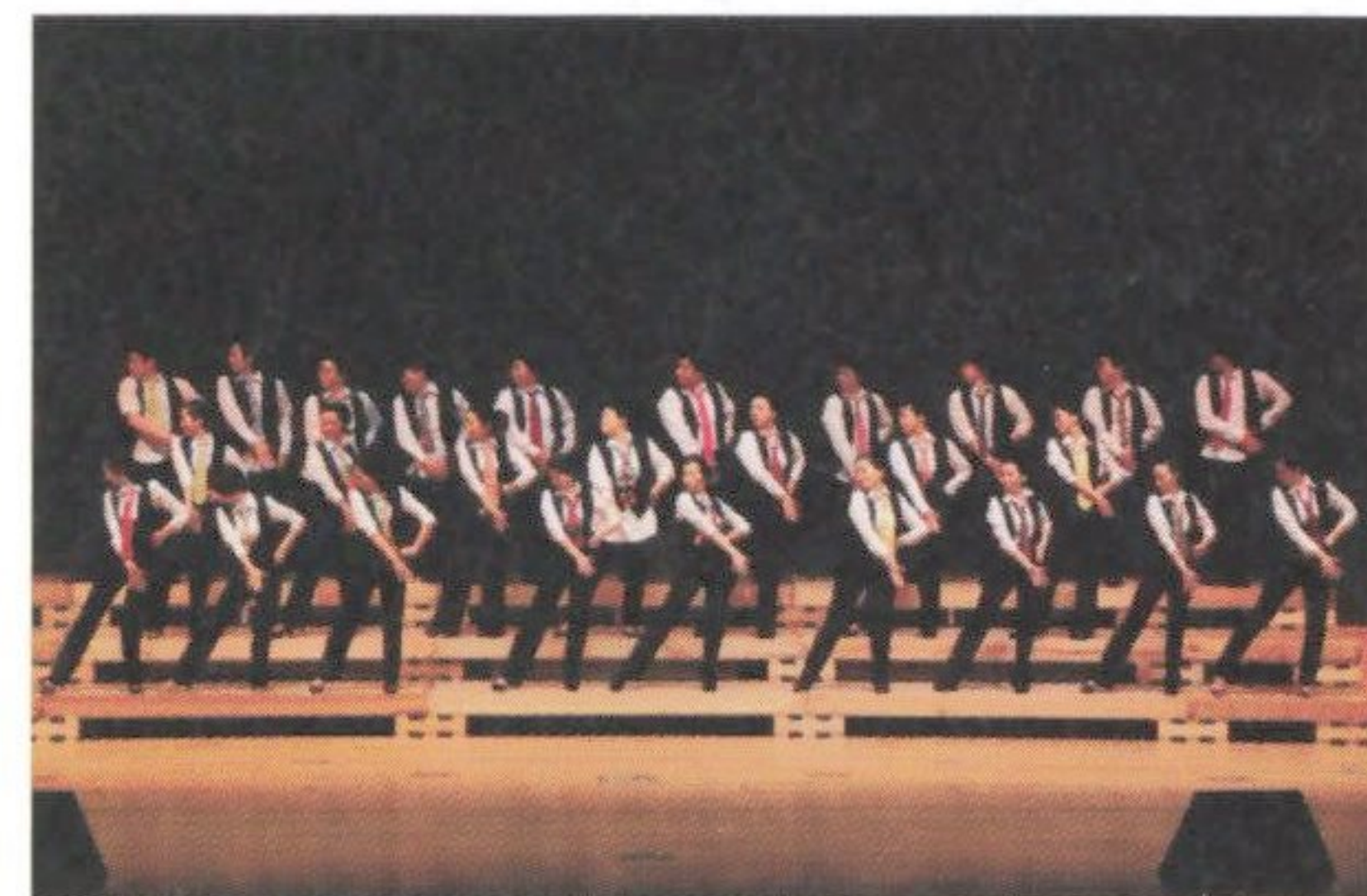
한정민은 2002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 YMCA부산오페라합창단 특별연주회 브로드웨이 뮤지컬 갈라콘서트

5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5일 화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정통합창곡에서 뮤지컬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민들과 만나온 YMCA부산오페라합창단이 마련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갈라콘서트.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언킹, 가스펠,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레미제라블의 주요 삽입곡을 들려준다.

- 예술총감독/김명규 · 객원지휘/김영석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YMCA부산오페라합창단 (070-8261-6209)

## 2010 랑데부 드 부산-프랑스문화축제 올리비에 물랭 피아노 콘서트

5월 20일 목요일 오후 4:00 신세계문화홀

프랑스 리옹국립음악원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대학을 졸업하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물랭 피아노 콘서트.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www.wendl-lung.co.kr

The early years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정나영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30 글로벌아트홀



제 9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쿠르에서 대학부 1위 및 전체대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정나영 초청독주회.

### 프로그램

리스트/난쟁이의 춤  
그라나도스/연주회용

알레그로 작품 46 등 수곡

· 특별찬조출연/김재원(바이올린)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테너 이철성의 아홉 번째 독창회

5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이태리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해 화제를 모은 테너 이철성 9번째 독창회.

승해 화제를 모은 테너 이철성 9번째 독창회.

###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오랑캐꽃

도나우디/그만두지 마세요

로저 켈터/진홍빛 꽃잎은 이제 잠든다 등 수곡

■ 관람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프리모 아트 매니지먼트  
(010-9334-6105)

## 글로벌콰이어 제 7회 가족음악회

5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82년 창단된 후 폭넓은 레퍼토리와 파워풀한 합창사운드를 선보여온 글로벌콰이어가 마련하는



가족음악회.

독창과 중창, 합창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장용균(011-9345-1224)

## 권은영의 거문고 10th Love story

5월 26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권은영의 거문고 독주회.

불꽃같은 인간의 사랑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까지 다양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거문고 창작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김대성/거문고 독주를 위한 '강남곡'(위촉초연)

이은경/Love Actually(위촉초연)

이은경/청 · 靑 · 淸 등

· 찬조출연/양욱진(첼로), 백현주(피아노), 하정희(타악), 부산거문고악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권은영(510-2941, 010-7507-9385)

## 에도왈도 페르난데스 기타독주회

5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현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콘서바토리 교수로 있는 우루과이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도왈도 페르난데스 기타독주회.



### 프로그램

바흐/모음곡 BWV 995

줄리아니/로시니아니 제 4번 작품 122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2)

## 제 1109회 MBC목요음악감상회 오월을 노래하는 천사들

5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하늘소리 중창단

지난 2008년 전국의 동요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등 170여명으로 창단한 (사)한국동요문화협회 부산지회 소속 중창팀들이 출연, 꿈과 희망을 노래한 창작동요를 들려준다.

· 사회/전성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 제 29회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5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상설무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 제 19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5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독주회.

### 프로그램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모차르트/소나타 마단

조 Kv.304

차이코프스키/우울한 세레나데 등

· 피아노/이진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경성대학교(663-4918)

## 데이드림의 스토리 콘서트

6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드라마 '겨울연가' 삽입곡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데이드림 콘서트.

### 프로그램

러브, 아 목동아, 겨울연가 메들리, 어게인 등  
· 협연/신수진(해금)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올인스문화사업부(070-7595-2033)

# PLAY

##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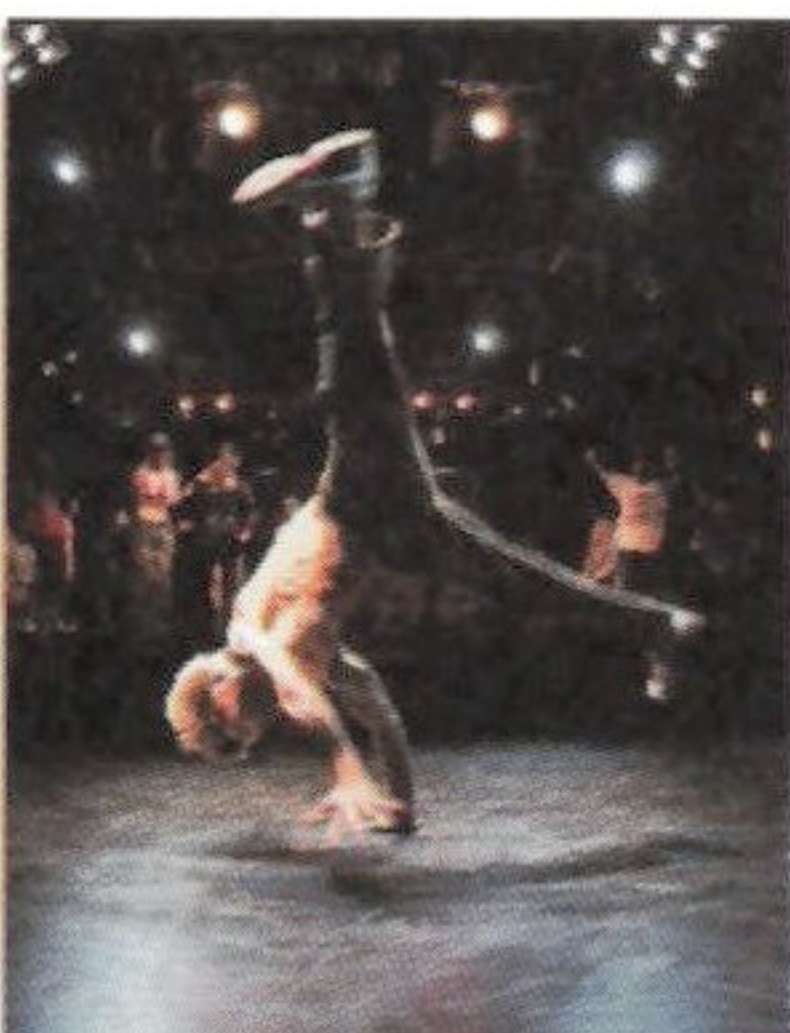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2005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B씨어터(804-2252)

## 라이어 2탄-라이어 그후 20년

3월 12일(금)-5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두명의 부인과 자녀를 둔 택시운전사 주인공의 좌충우돌 이중생활이 기막힌 상황과 거듭되는 반

전 속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폭소코미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3월 26일(금)-5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스물아홉 미혼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10년간 모은 적금을 사수하기 위한 세 친구의 결혼하기 대소동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 연출/홍주연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미누, 시즈위 밴지를 만나다'

4월 14일(수)-5월 15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오늘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작품.

· 원작/아돌 후가드 · 연출/이성민

· 출연/이현식, 김재형, 이도현

- 관람료 일반 20,000원·청소년 15,000원
-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 제 2회 가마골 젊은 연출가전2 화려한 만남

4월 23일(금)-5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가마골소극장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세대풍자극.

· 작, 연출/김세환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출연/신현규, 조진우, 최윤희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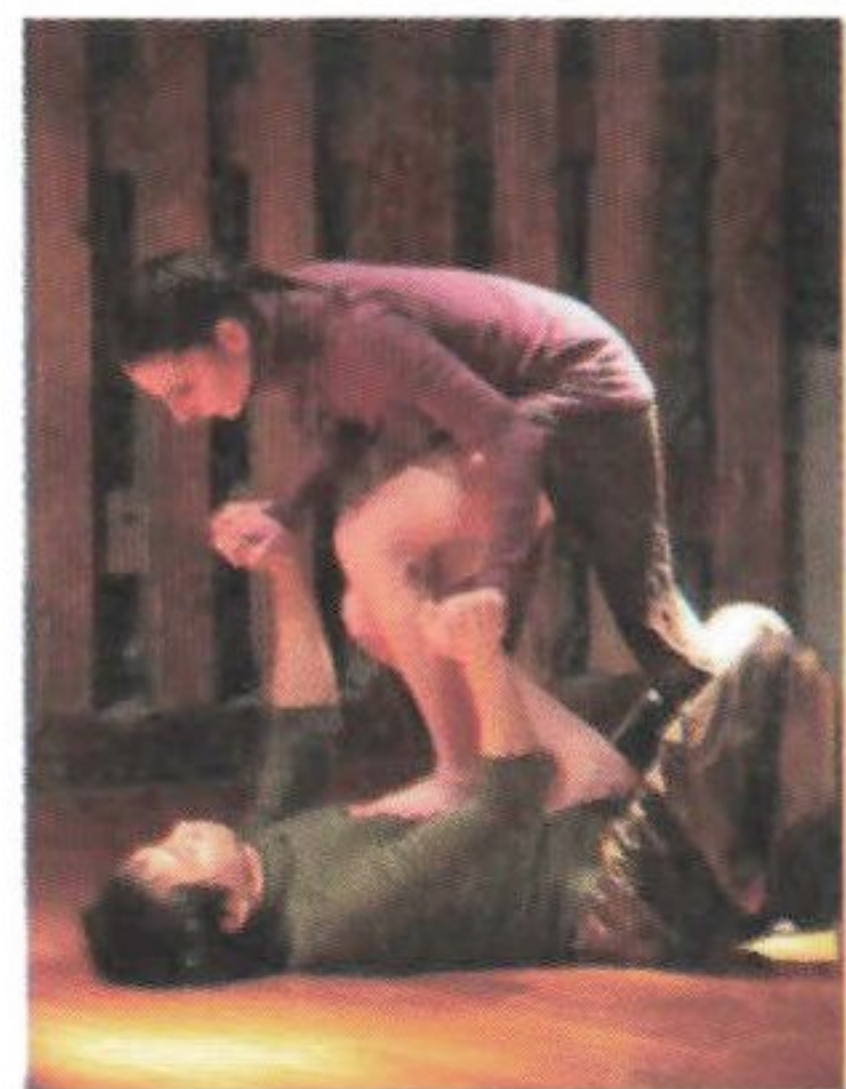
##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5월 1일(토)-10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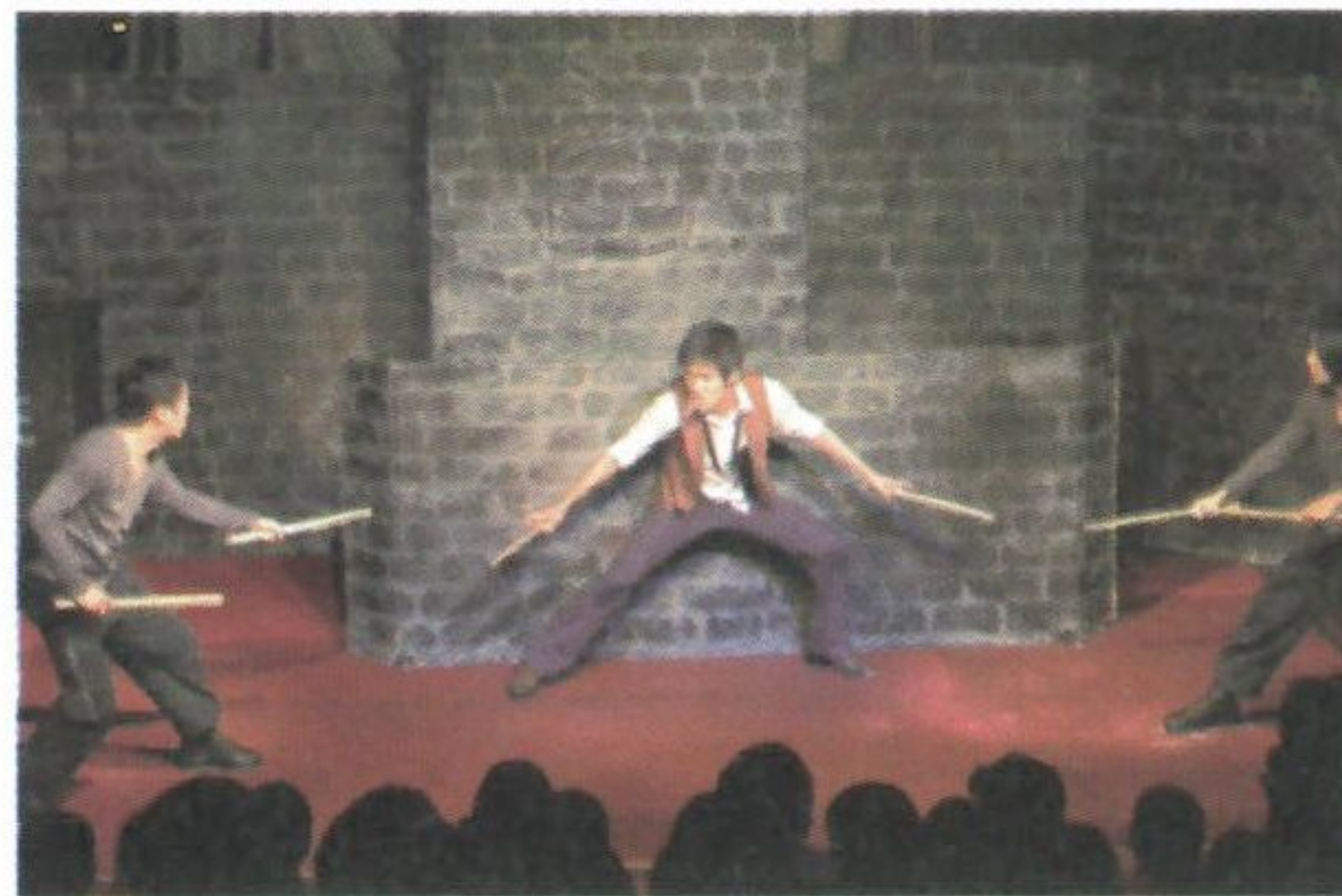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경성대학교 외

6개국 19개 작품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컨셉트 연극제 제 7회 부산국제연극제.

- 극단 해오름 '바쁘다 바빠'  
(한국, BIPAF Open Stage)  
5월 1일(화)-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5일, 2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빈민층의 열악한 삶을 풍자와 해프닝으로 그려낸 폭소극.
- 가을엔터테인먼트 '그 남자 그 여자'  
(한국, BIPAF Open Stage)  
1일(토)-10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작품.  
· 작/이미나 · 연출/추상욱
- Et Aussi Dance company '조각(Fragment)'(한국/프랑스, BIPAF Main Stage)  
2일 일요일 오후 4:00, 7:00, 3일-4일 월-화요일 오후 6:00, 8:00 용천지탈 소극장  
무용가 셀린바케와 김봉호가 2007년 공동으로 설립한 Et Aussi Dance company의 무대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담은 작품 '조각(Fragment)'을 선보인다.



- 창작공동체 아르케 '아름다운 살인자! 보이책'(한국, BIPAF Open Stage)  
2일 일요일 오후 4:00, 7:00, 3일 월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밑바닥 민중의 현실과 소통이 단절된 인간관계의 부조리,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절망 등 인간사회에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
- 그룹 포차 '추격자'(한국, BIPAF Open Stage)  
2일 일요일 오후 4:00, 7:00, 3일 월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타악 퍼포먼스, 마임, 저글링, 마술, 인형극 등이 조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 극단 맥 '비나리' (한국, BIPAF Open Stage)  
2일(토)-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6번출구 소극장  
동해안별신굿과 가면극, 인형극을 바탕으로, 전통 연희 속의 춤과 소리, 몸짓, 가락이 어우러진 토종연극.
- 열혈예술청년단 '오이디푸스'  
(한국, BIPAF Main Stage)  
3일-4일 월-화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 일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극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계층의 아이러니를 표현한 작품.
- Productions Illimitées 'The Shadow Orchestra'(프랑스, BIPAF Main Stage)  
4일 화요일 오후 8:00, 5일 수요일 오후 4:00,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마술사 사비에 몰티메가 펼치는 음악이 있는 환상의 여행.
- The Puppet & Its Double Theater 'I am another yourself'  
(대만, BIPAF Open Stage)  
5일 수요일 오후 4:00, 7:00, 6일 목요일 오후 4:00, 8:00, 7일 금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극장

인형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움직임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성인들을 위한 인형 동화극.

- 극단 나무 '애들이 같이 놀자'  
(한국, BIPAF Open Stage)  
5일 수요일 오후 2:00, 6:00, 6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시민회관 소극장  
폐품을 활용한 64가지 상황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놀이극.
- 예술마당 살판 '학수고대'  
(한국, BIPAF Open Stage)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7:00 용천지탈소극장  
놀이와 재담, 해학과 풍자, 남사당 6마당의 기예가 마당극으로 전개되는 강학수 모노드라마.
- Slow in Waltz Project '스로우닝 왈츠'  
(일본, BIPAF Main Stage)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4:00, 7: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사무라이의 마음의 여정을 생동감 넘치는 마임으로 표현한 작품.
- 공연창작집단 팻 브릿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한국, BIPAF Open Stage)  
5월 7일(금)-6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 없음) 청춘나비 소극장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나선 아니생긴 여자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
- Teatro Persona '마네킹의 눈물(Treatise of Mannequins)'  
(이탈리아, BIPAF Main Stage)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도망칠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을 애절한 몸동작으로 표현한 작품.
- Black Sky White 'Bertrand's Toys'  
(러시아, BIPAF Main Stage)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8일 토요일 오후 4:00, 7:00, 9일 일요일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잔혹극의 대명사 Black Sky White 극단이 선사하는 잔혹함의 미학. 배우의 섬세한 움직임과 현란한 조명이 관객의 현실감을 무너뜨린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청소년 10,000원(단, 연극 '바쁘다 바빠' 일반 30,000원·대학생 25,000원·중고생이하 20,000원, 연극 '오이디푸스' 무료,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균일 25,000원)
-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 팬양의 버블판타지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2일 일요일 오후 1:30, 4:00  
KBS부산홀

세계 최고의 버블아티스트 팬양과 그의 아들인 버블아티스트 데니양이 함께하는 버블쇼.

- **관람료** R석 50,000원·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 어린이뮤지컬 강아지똥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2일 일요일 오후 2:00, 5:00  
MBC롯데아트홀

쓸모 없는 강아지똥이 꽃을 피운다는故 권정생 선생의 아름다운 동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강아지똥'.

- **관람료** R석 33,000원·S석 22,000원
- **문의** (주)컨피드스(1599-6171)

## 2010 최현우 매직콘서트

5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세계가 인정한 신세대 마술사 최현우와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제작진과 국내 최고의 전문 공연팀이 마련한 환상의 매직콘서트.

- **관람료** R석 50,000원·S석 40,000원
- **문의** (주)뉴페이스컴(1599-7448)

## 흑부리 소년과 도깨비 장단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전 11:00, 2:00, 5일 수요일 오전 11: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아기도깨비 깨비와 흑부리소년 흑이와의 우정을 인형극과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어린이뮤지컬.

- 작, 연출/김진수
- **관람료** 균일 18,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5월 4일 화요일 오전 10:10, 11:20, 5일 수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말썹꾸러기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모험을 통해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성장극 '피노키오'.

- 작, 연출/김수진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 가마골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 로맨틱뮤지컬 챗 온 러브

5월 5일(수)-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투테'를 원곡으로, 사랑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청춘들의 기발한 사랑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속에 펼쳐진다.

- 작/이채경 · 연출/남미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초중고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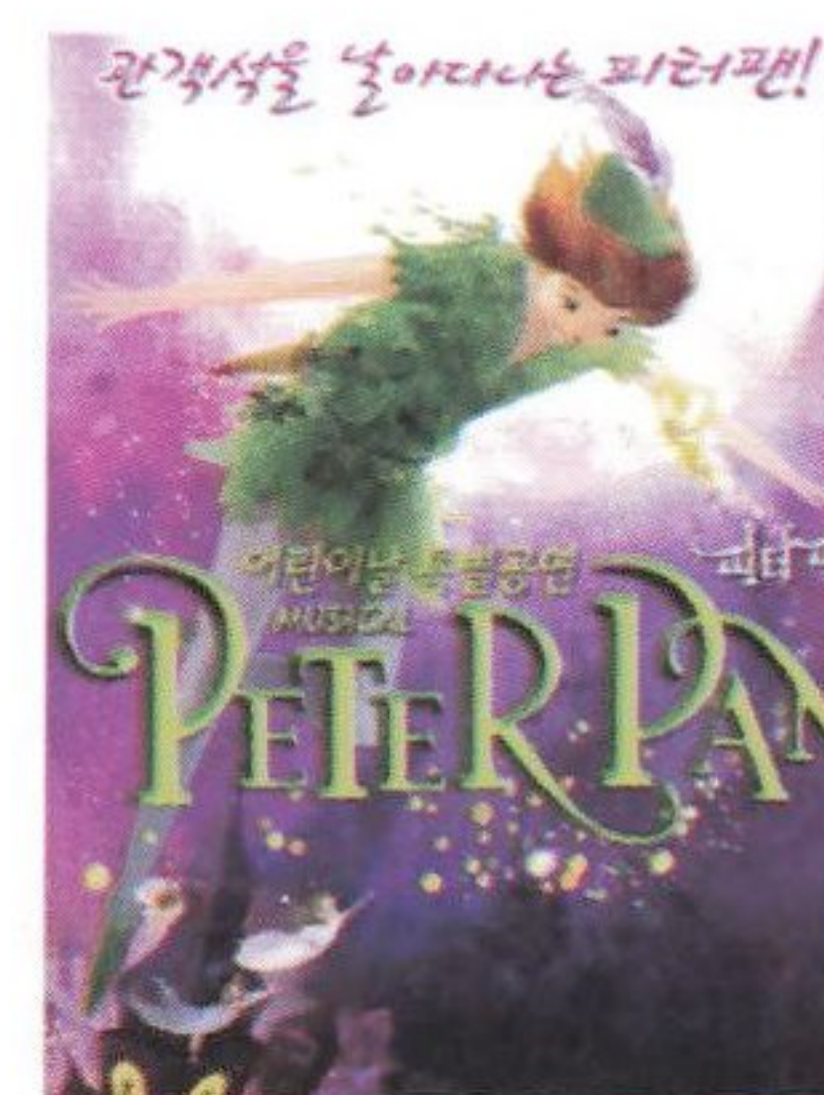
5월 5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5월 21일-22일 금-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소극장

아기돼지 삼형제에 등장하는 늑대를 주인공으로 새롭게 해석한 '아기돼지 삼형제'를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이 어우러진 무대로 선보인다.

- 작/강승균 · 연출/이정민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 어린이날 특별 뮤지컬 피터팬

5월 5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6일 목요일 오후 1:00, 4:00  
KBS부산홀



라스베가스 오리지널 플라잉 기술팀 ZFX사가 직접 내한해 무대에서 객석까지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플라잉액션을 통해 환상의 무대를 선사하는 꿈과 모험의 가족뮤지컬.

- **관람료** 피터팬석 50,000원·웬디석 40,000원·팅커벨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30% 할인)
- **문의** (주)월드쇼마켓(1600-1716)

## 2010 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

5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우리나라 고전소설 '이춘풍전'을 토대로 현 사회상을 빚대어 각색한 마당놀이 '이춘풍 난봉기'.

-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등 마당놀이 3인방이 출연,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마당놀이를 펼친다.
- **관람료** R석 55,000원·S석 44,000원
- **문의** KBS비즈니스(620-7182)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The Shadow Orchestra

5월 9일 일요일 오후 3: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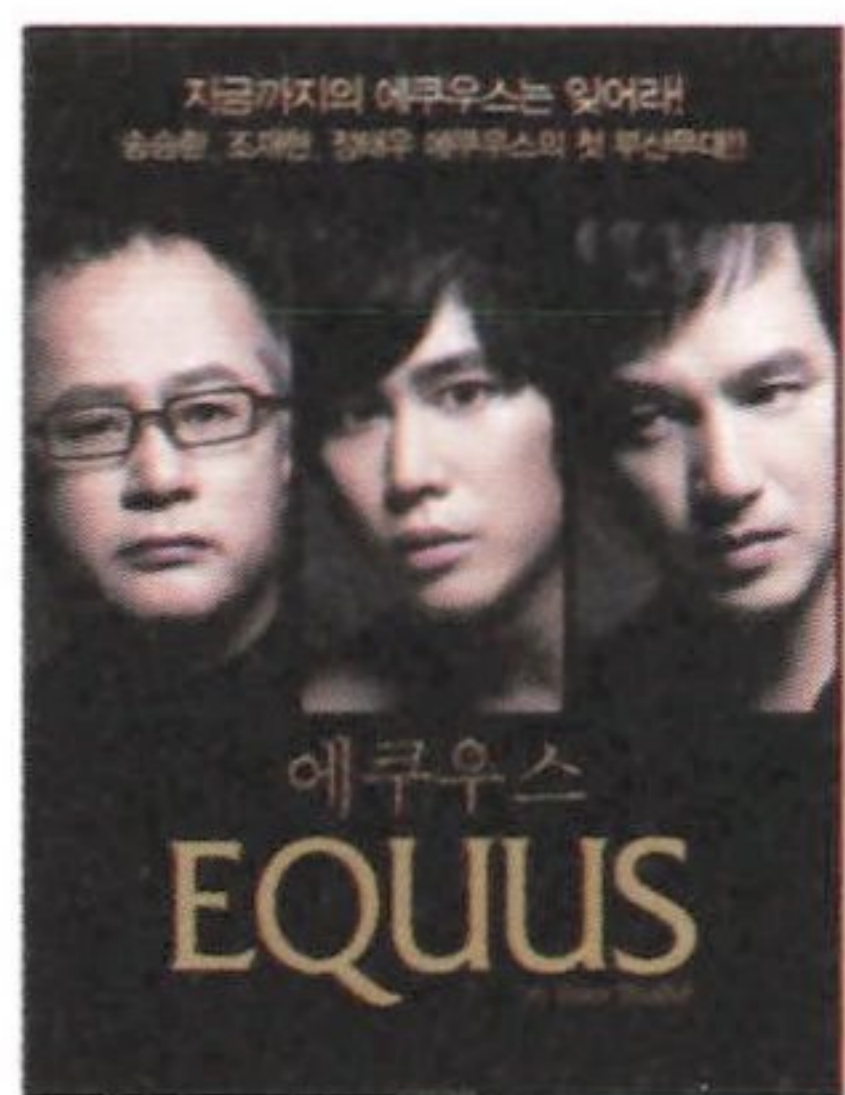
2010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인 매직쇼 'The Shadow Orchestra'.

마술사 사비에 몰티메가 펼쳐는 환상적인 마법 세계가 웃음과 감동 속에 펼쳐진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2)

## MBC롯데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작 제 2탄 에쿠우스

5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6마리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열여섯 살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1973년 초연 이후 매 공연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연극 '에쿠우스'.

역대 알렌 역을 맡아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송승환, 조재현이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 역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신예 정태우가 알렌 역을 맡아 자유롭고 도발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작/피터 셰퍼 · 역/신정옥
- 연출/조재현 · 협력연출/김낙형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 뮤지컬 맘마미아

5월 15일(토)~6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시민회관 대극장



아바(ABBA)의 음악과 유머넘치는 따뜻한 이야기로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 부산무대.

최고의 콤비 남경주, 최정원과 전수경, 이경미, 황현정, 성기윤 등 국내 최정상 뮤지컬배우들이 출연, 환상의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VIP 110,000원 · R석 9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 문의 예술기획 성우(1599-1980)

## 가족마술쇼

5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동부산대학 매직엔터테인먼트 학생들이 상상력을 키우는 환상의 마술쇼를 펼친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5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머리를 내밀었다 똥세레를 받은 꼬마 두더지의 범인찾기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 작/베르너 홀츠바르트
- 각색, 연출/김영주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 동화뮤지컬 피노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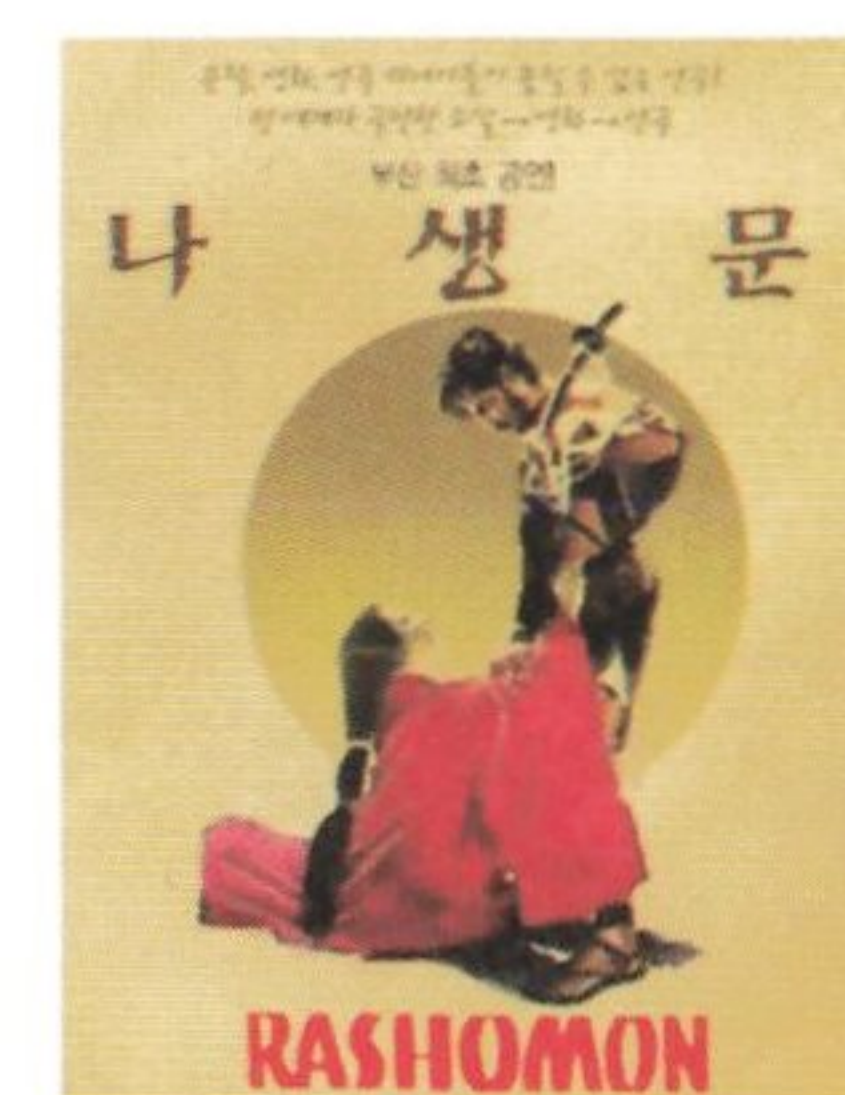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0:10, 11:20, 21일~22일 금-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공연장  
5월 2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뮤지컬로 각색, 클래식음악과 마임, 신나는 율동이 어우러지는 가족뮤지컬로 선보인다.

- 각색/김성철 · 연출/강신화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 전성환 고희 기념공연 나생문

5월 20일(목)~3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근대 일본문학의 거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나생문'을 원작으로, 부산에서 최초로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 '나생문'.

숲 속에서 일어난 범 죄를 둘러싼 세 사람의 엇갈린 진술을 통해 인간 본연의 이기심과 선(善)의 부재를 그린 작품이다.

- 드라마투르기/전성환
- 출연/권철, 윤석이, 이민영, 김지현, 박현형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동물뮤지컬 정글로 간 백설공주

5월 21일~22일 금-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백비둘기, 페럿, 너구리, 왕관앵무새, 기니아피그, 필리핀 원숭이 등 실제 동물들과 배우들이 무대에 함께 서는 동물 퍼포먼스극.

# Program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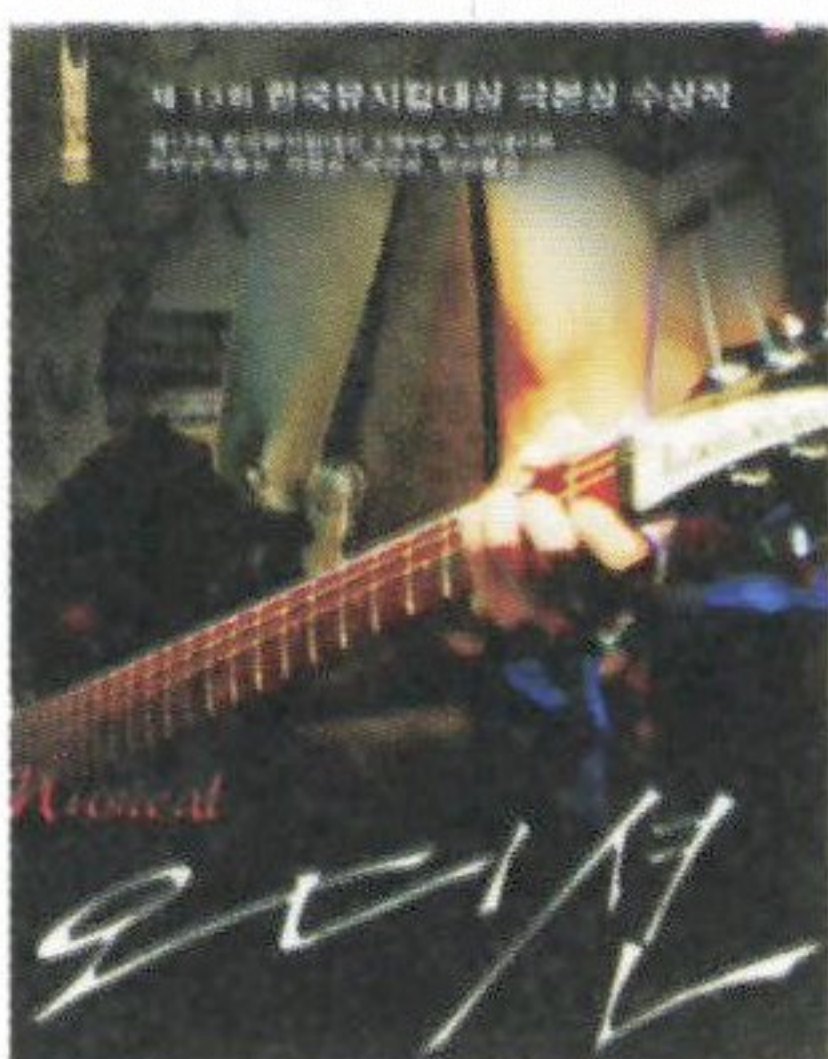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 뮤지컬 오디션

5월 21일(금)-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5/21일은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젊은 뮤지션들의 꿈과 현실을 그린 창작뮤지컬. 출연배우가 직접 밴드의 음악을 연주한다.  
· 작, 연출/박용진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 개그선물세트 2010-시즌2

5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TV 인기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이 총 출동하는 폭소 개그한마당.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 MBC롯데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작 제 3탄 이(爾)

5월 28일 금요일 오후 8:00, 2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2000년 초연 당시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한국연극상, 희곡상, 연기상, 2001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기상 등을 수상, 작품성을 인정 받은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爾)'.

'공길'역을 완벽히 소화해 최고의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던 배우 오만석과 김내하, 이승훈 등 역대 출연진이 출연,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작, 연출/김태웅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5월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무서운 늑대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우애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 DANCE

###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 2회 정기공연 영남춤에 뜻을 달고-두 번째 이야기

5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이후 영남춤의 계승과 발굴에 힘써온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두 번째 정기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 62호 좌수영어방놀이를 비롯해 진주교방굿거리춤, 불모산영산제 등이 무대에 오른다.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부산시립무용단 제 62회 정기공연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

5월 27일-28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자유를 향한 갈매기의 비상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춤언어로 표현한 부산시립무용단 제 62회 정기공연 '허허바다-갈매기의 飛上'.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황해순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MOVIE

### 구봉서 · 배삼룡의 시대

4월 27일(화)-5월 6일(목)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희극인 구봉서, 故 배삼룡 선생의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전.

맹진사댁 경사, 돌아오지 않는 해병, 단별신사 등 15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 동시대 유럽 거장전 2

5월 7일(금)-5월 23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동시대의 모순과 고뇌, 삶의 희열과 연민을 때로는 냉소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포착해낸 유럽 거장들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상영전.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2010 부산국제단편영화제

5월 12일(수)-16일(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컨벤션홀 외

올해로 개최 30주년을 맞은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가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혀 2010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 문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742-9600, bisff.org)

## CONCERT

### 2010 어버이날 이미지 디너쇼

5월 7일 금요일 오후 7:00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관람료 R석 180,000원 · S석 160,000원
- 문의 (주)신에스알(1544-8474)

### 레이프 가렛 내한공연-부산

5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10% 할인)
- 문의 (주)WSM(1600-1716)

### 2010 브라운아이드소울 콘서트

5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30일 일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C석 55,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EVENT

### 제 45회 동래민속예술축제

5월 2일 일요일 오전 11:00 부산민속예술관 놀이마당(우천시 5월 9일로 변경)

동래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무형문화재와 전통

예술, 민속놀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555-0092)

### 제 94회 부산시올림 시낭송회

5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예강(019-516-1867)

### 제 24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월 23일(일)-6월 8일(화) 시민회관

-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펼치는 예술한마당.
- 5/4일(화) 대극장-부산청소년 음악페스티벌
- 5/23일(일)-29일(토) 전시실-사진, 그림공모전
- 5/24일(월)-28일(금), 5/31일(월)-6/4일(금) 소극장-부산청소년연극제
- 5/29일(토) 소극장-청소년 가요, 힙합경연대회
- 5/30일(일) 소극장-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 6/5일(토) 소극장-시낭송 경연대회
- 6/8일(화) 대극장-청소년 창작무용공연
- 문의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 라자요기 찰리 호그 초청강연회 집중력을 키워주는 명상법-라자요가 명상

5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국제신문사 강강당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재금(512-2293)

## GALLEEY

### 김순임 개인전

4월 3일(토)-5월 9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품전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4월 3일(토)-6월 2일(수)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 관람료 일반 12,000원 · 학생 9,000원  
어린이 6,000원
-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05~7)

### 요셉 보이스展

4월 30일(금)-5월 30일(일) 부산조현화랑

- 문의 부산조현화랑(747-8853)

### 조안 림 개인전

5월 1일(토)-5월 31일(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가산 이기태 전

5월 3일(월)-5월 8일(토)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최바오르의 성화, 성상 목조각전

5월 4일(화)-5월 31일(월) 대청갤러리

- 문의 대청갤러리(462-1870)

### 윤미옥 개인전

5월 14일(금)-5월 20일(목) 부산롯데갤러리

- 문의 부산롯데갤러리(810-2328)

### 낯은 시간의 흔적, 하야리아 한정민 사진전

5월 24일(월)-5월 30일(일) 갤러리 영광

- 문의 갤러리 영광(816-9500)

## 수크 트리오와 슈베르트의 '노투르노'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슈베르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멜로디'와 '시에 대한 뛰어난 직관력'을 유기적으로 승화시켜 가곡을 마름질한 음악가! 사람들은 그에게 '가곡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주저 없이 붙인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대작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동기를 발전시키고 조직하는 작곡기법에 익숙하지 못해 그의 작품은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우나 전체적으로 허술하고 안정감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헤미안 기질의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아름다운 선율은 이런 단점을 뛰어넘는다. 슈베르트의 실내악곡 역시 형식이나 기법적으로 찬연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더없는 아름다움과 쓸쓸함을 지닌 선율이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와 방랑벽을 일깨운다.

밤에 수크 트리오(Suk Trio) 연주로 야상곡(Notturmo in Eb Major, D897, Op.148)을 들어보라. 당신의 영혼은 슈베르트와 보헤미아의 안개 낀 숲을 거닐며 그 숨결과 체취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요제프 수크(바이올린), 요제프 후흐로(첼로), 얀 파넨카(피아노)로 구성된 이 트리오의 슈베르트,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등의 3중주곡에서 감수성과 서정성이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수크 트리오의 연주에서 우리는 보헤미아 숲과 기질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체코가 자랑하는 레코드 레이블 수프라폰(Supraphon)을 알 것이다. 체코에 레코드 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과거 동유럽의 부국이었고,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보헤미아 출신의 연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이든과 고전파 작곡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만하임악파도 독일 남부 만하임

에 정착하여 살던 체코의 음악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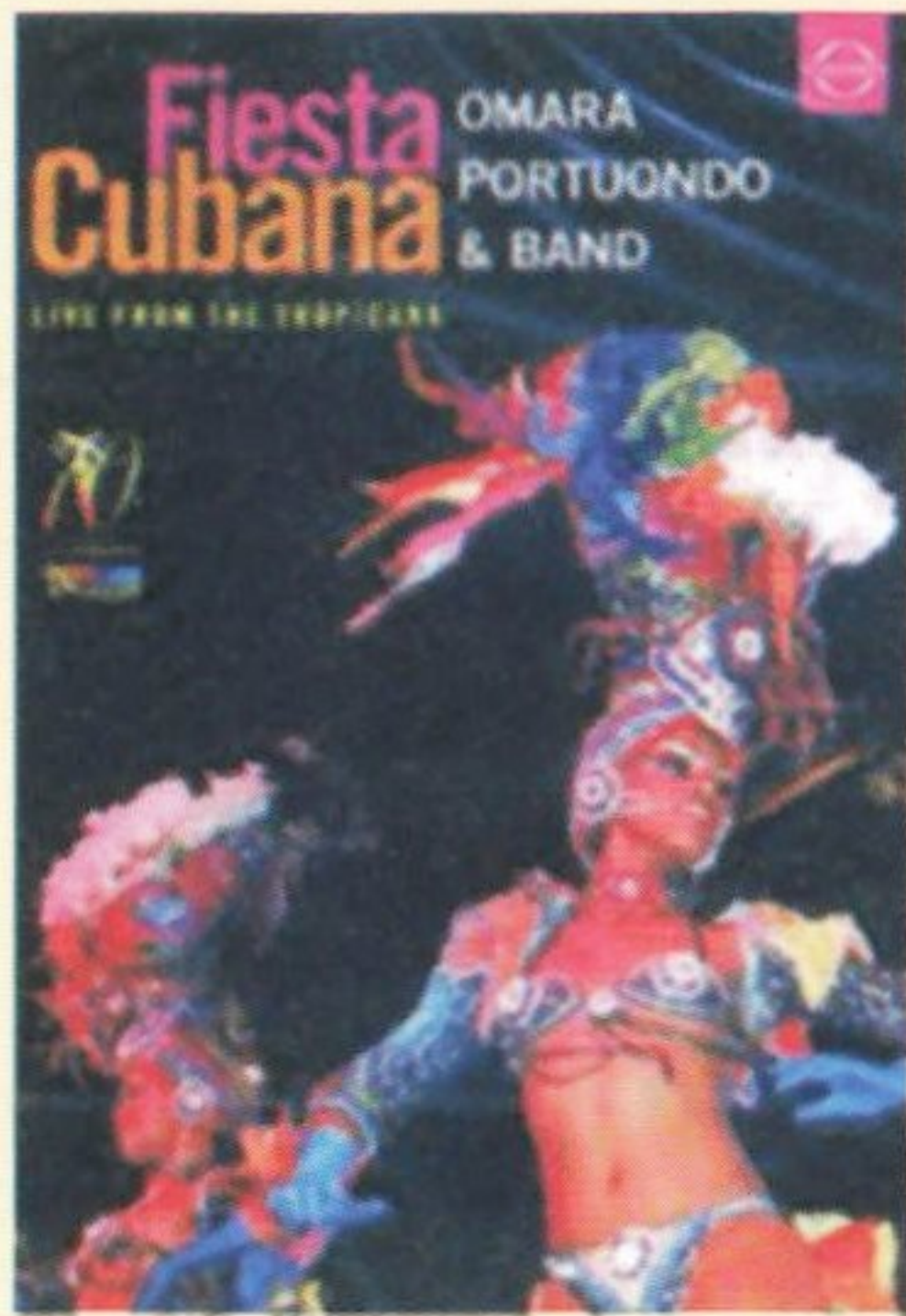
수프라폰은 체코를 동유럽을 대표하는 레코드대국으로 만들었다. 수프라폰은 바츨라프 탈리히, 요제프 수크(동명으로 수크의 조부),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의 작품을 소개했다. 또 리히터, 오이스트라흐, 로스트로포비치와 같은 위대한 연주자들을 데뷔시키기도 하였다.

오늘 소개하는 음악은 수프라폰에서 만든 'The Art of Suk Trio' 앨범 중 끝 곡 '노투르노'다. 이곡은 1827년경에 작곡되었으나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1828년) 뒤인 1845년에 출판되었다.

슈베르트는 짧은 생을 가난한 보헤미안으로 살았다. 한때 빈은 베토벤조차 밀릴 정도로 윗시니와 그의 오페라가 성행하고 있었다. 그는 돈을 벌기위해 많은 오페라에 도전했지만 작곡 기법이 탄탄하지 못했고 관현악을 효과적으로 잘 다루지 못해 실패를 거듭했다. 1827년 거장 베토벤이 죽자 슈베르트에게 기회가 왔는가 했지만 이듬해 31세의 나이로 요절한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던 친구들이 그의 유작 가곡을 모아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연가곡집을 출판했다.

북유럽에는 백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백조는 우아한 자태에 어울리지 않게 울음소리가 고약하다. 그래서 백조는 울지를 않는다. 일생에 단 한번 우는데 죽음을 직감하고 죽기 전에 구성진 소리로 애처롭게 울고 숨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 "슈베르트 자네는 백조처럼 살다 갔구나. 남아있는 이 곡들이 바로 구슬프고 애처로운 자네의 노래일세"라 말하며 '백조의 노래'라 이름 부쳤다고 한다.

피아노 3중주 '노투르노'! 비감하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나나 무스푸리가 가사(Only Time Will Tell)를 붙여 노래한 이 곡, 이 또한 백조의 노래가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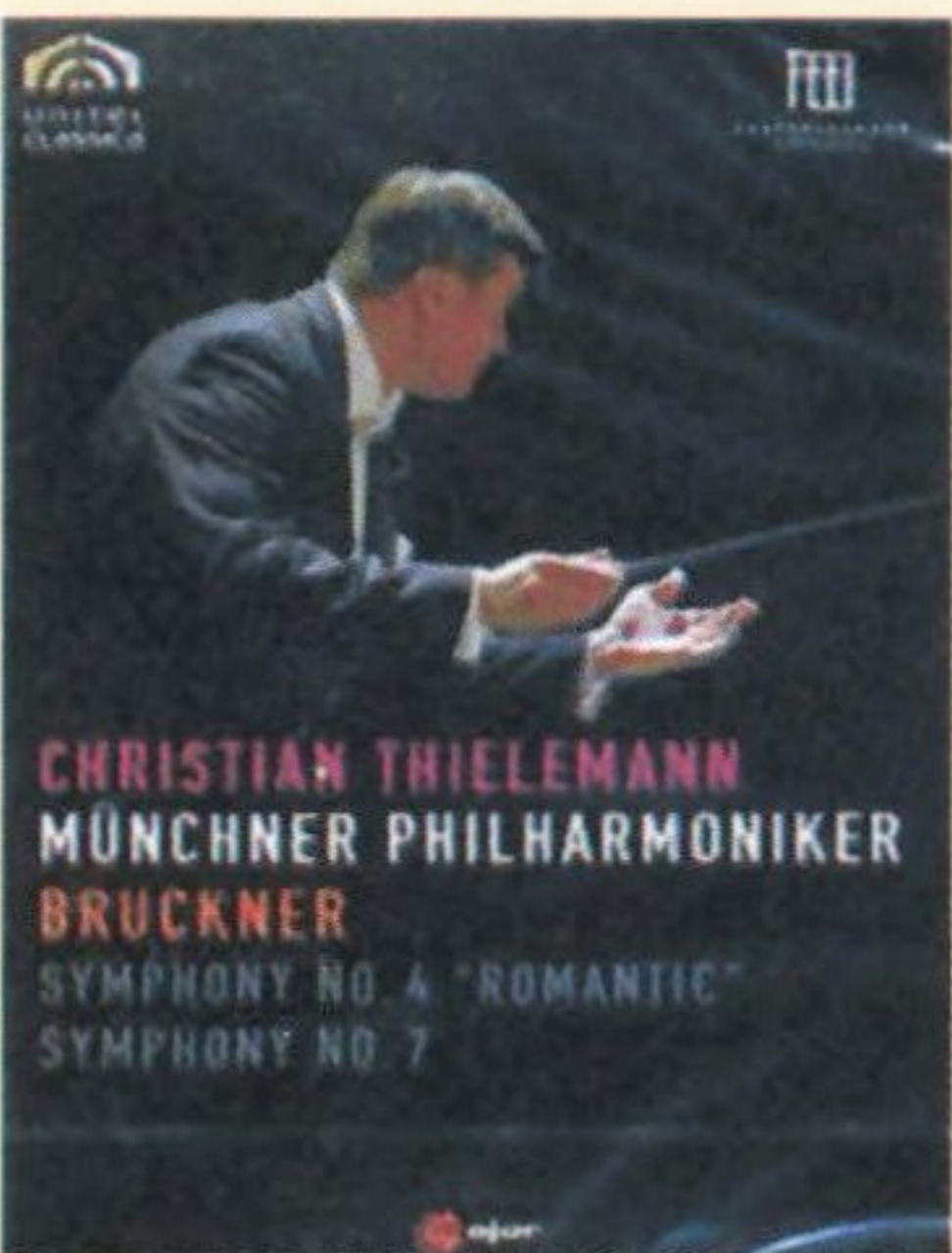


## 쿠바의 목소리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디바 '오마라 포르투온도' 트로피카나(Tropicana)클럽 실황

▶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감동적인 무대와 쿠바 최고의 클럽 트로피카나의 화려한 쇼

2009년 쿠바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 트로피카나 클럽에서 가진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실황 무대. '쿠바의 목소리'로 불리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따뜻한 감동이 흐르는 무대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트로피카나 클럽의 쇼를 함께 만날 수 있다. 'Dos Gardenias(두 송이의 치자꽃)', 'Guantanamera(관따나메라)', 'Veinte Anos(20년)' 등 잊지 못할 명곡들을 노래하는 노대가의 숨결과 아바나 최고 클럽의 공연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브루크너 교향곡 4번, 7번

지휘/크리스티안 틸레만, 연주/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계승자 틸레만의 브루크너 교향곡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현재 독일어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휘자다. 카라얀 이후 정통 게르만계 마에스트로에 목말라했던 수많은 이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줄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인 그는 바그네리언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에서도 음악감독 직책을 맡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를 이끌 예정이다. 본 DVD는 그가 지휘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2편을 담고 있다. 교향곡 4번 '로맨틱'과 교향곡 7번은 브루크너가 남긴 11편의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걸작들이다. 틸레만은 거대한 고딕대성당과 같은 이 작품들의 위용을 큰 스케일과 여유로운 흐름으로 당당하게 펼쳐나간다. 뮌헨 필 역시 과거 첼리비다케의 수하에서 일급 브루크너 악단으로 조련 받았던 악단답게 장쾌한 사운드로 틸레만의 지휘를 뒷받침하였다. 2006년(7번)과 2008년(4번) 독일 바덴-바덴의 페슈트필하우스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들로, 화질과 음질 양쪽 모두에서 큰 만족감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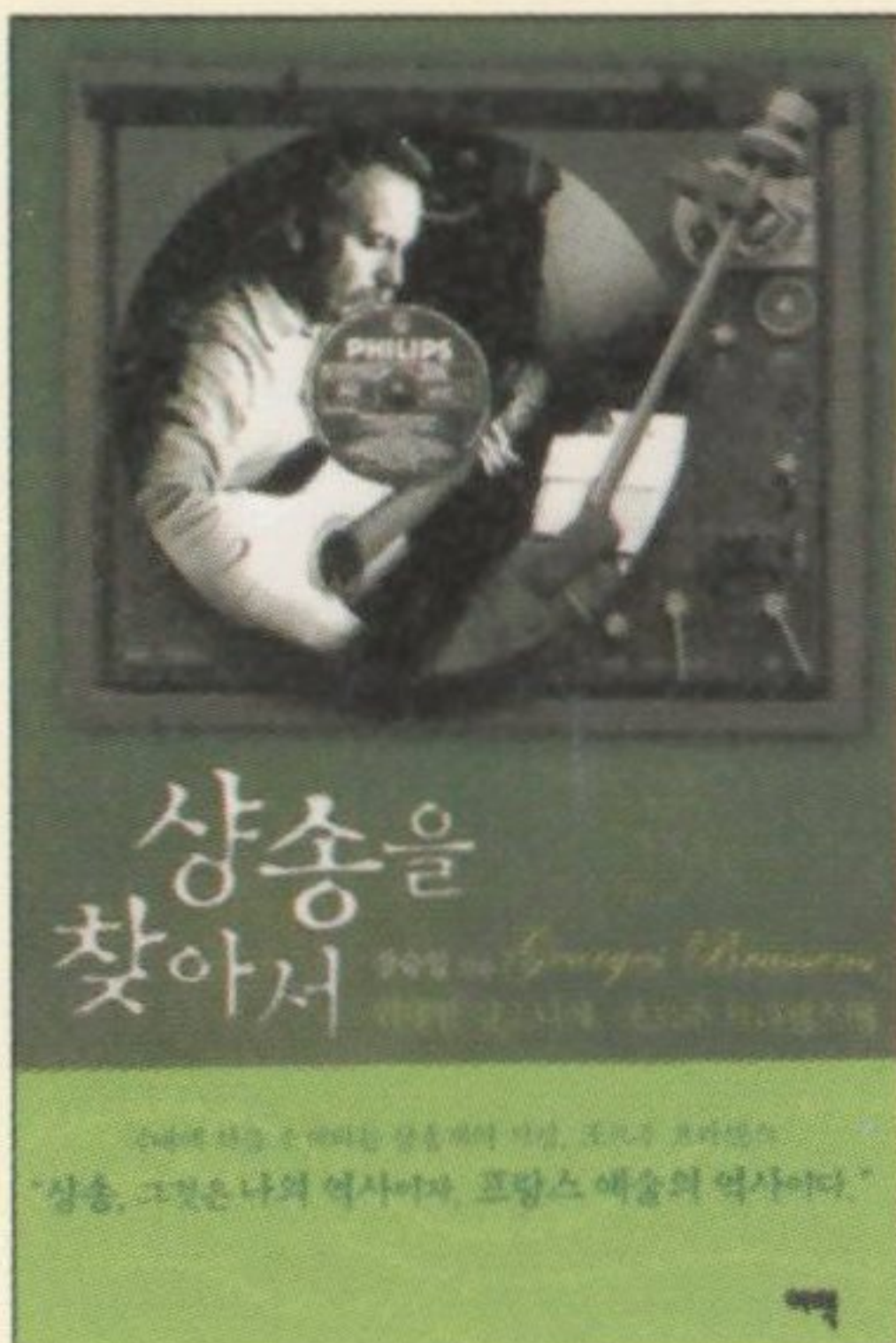
## 20세기의 마지막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전집

▶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라흐마니노프 작품 전집!

쇼팽과 리스트의 뒤를 이은 20세기의 마지막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브릴리언트 클래식스의 라흐마니노프 전집(28CD)은 화려한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라흐마니노프 작품 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레코딩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얼 와일드의 협연에 호렌슈타인이 지휘한 연주를 담고 있다. 이외에 므라빈스키와 더불어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휘자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교향곡 전곡을, 그리고 발레리 폴얀스키가 관현악곡을 비롯해 합창곡, 종교곡 등을 연주했다. 또한 게릭 올슨의 라흐마니노프 편곡집 전곡과 러시아 피아니즘의 후계자 니콜라이 루간스키가 연주하는 '회화적 연습곡', 다닐 샤프란의 첼로소나타 등으로 구성되었다. 28장의 CD에는 교향곡과 관현악곡, 피아노 협주곡 및 독주곡은 물론 실내악, 가곡, 오페라, 종교작품 등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전곡을 망라하고 있다.

# NEW BOOK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 상송을 찾아서

장승일 지음  
여백  
461p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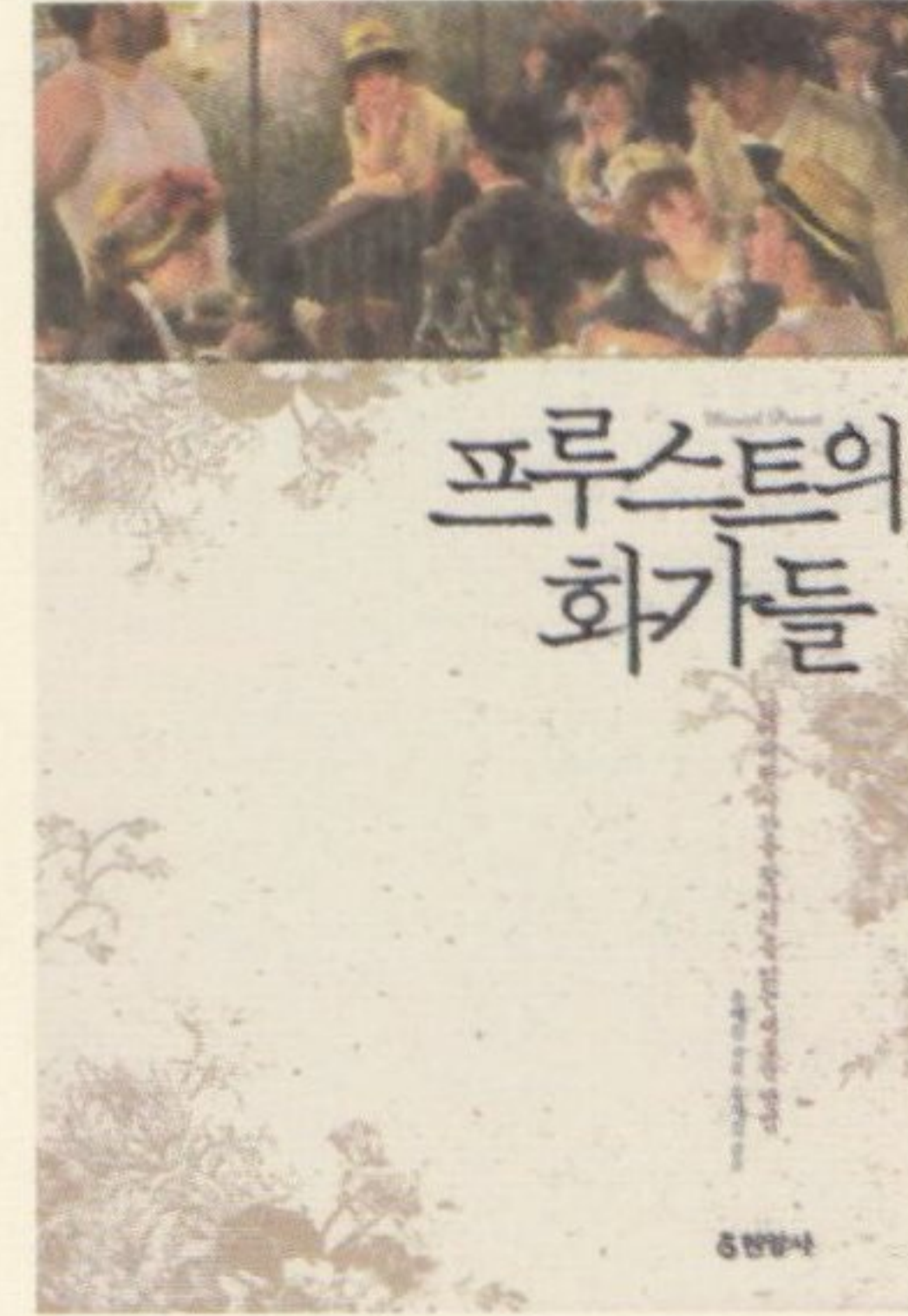
장승일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가 프랑스 상송 가수 조르주 브라센스(Georges Brassens · 1921~1981)의 평전을 냈다. 국내에서 이 가수의 이름은 보통 '브라상'으로 표기되지만, 그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 세트의 현지 발음을 적용하면 '브라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중세 음유시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최고의 샹소니에(상송을 작사, 작곡, 노래하는 사람) 조르주 브라센스는 상송에서 전설 같은 존재다. 정식으로 집계된 음반 판매량만 5,000만장을 넘는 그의 음악에는 높은 문학과 풍자, 해학이 담겨있다. 근본적으로 아나키스트인 브라센스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사회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노래로 불렀고, 그로 인해 방송 금지곡이 많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상송 가수였다. 프랑스 전역에 그의 이름을 딴 길과 학교, 도서관이 있으며, 유럽 곳곳에서 그를 기리는 공연과 축제가 열리고 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가장 사랑한 뮤지션, 프랑스 상송의 영원한 아이콘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찬사와 질투를 한몸에 받으며 불꽃처럼 살다 간 세계 최고의 샹소니에, 조르주 브라센스를 만나보자.



## 영화는 쉬지 않는다

이정국 지음  
서해문집  
363p / 15,000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국 감독의 시네마스코프.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영화 마니아들과 영화학도들을 위해 다소 무게감 있는 글들을 함께 엮었다. 단순한 작품 해설과 감상이 아닌, 현장 감독으로서의 시선과 해석을 만난다. 영화를 보고 만들고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은 취미이자 직업이자 삶이라는 저자가,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이 좋아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고민해보고자 틈틈이 몇 년에 걸쳐 써놓았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엽기에 관련한 영화', '멜로, 로맨틱 코미디, 휴먼 드라마에 관련한 영화', '학회지와 간행물 등에 발표한 논문과 잡문'의 세 장으로 구성하고,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할 영화 100편을 선정해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 목록은 저자가 직접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후 선정한 것들로,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제자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저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목록이지만, 영화사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금 보아도 재미있는 영화들이다.



## 프루스트의 화가들

유예진 지음 · 유재길 감수  
현암사  
349p / 16,500원

의식의 흐름을 좇은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적 소설을 그림을 따라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주인공 마르셀이 작가로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여기서 그가 예술 세계에 눈을 뜨도록 이끌어 주는 인물이 바로 화가 엘스티르다. 반듯한 인상에 하얗게 세기 시작한 수염, 허공에 고정돼 있는 꿈꾸는 듯한 시선... 엘스티르의 외모를 묘사한 대목은 모네를 떠올리게 한다. 프루스트는 모네, 휘슬러, 르누아르 등 여러 화가의 특징을 따와 엘스티르라는 인물을 창조한 것이다. 엘스티르가 그리는 작품 역시 이들 화가의 실제 작품을 모델로 했다. 소설에서는 모두 100여 명의 예술가와 200여 점의 작품이 언급된다. 각각의 예술작품은 마르셀이 삶의 최종적인 의미와 작가로서의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이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화가들과 그들의 회화 작품을 통해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에 대해 접근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해준다.

## 부산문화회관, 은성의료재단과 협약체결

- 아기사랑 콘서트 등 찾아가는 공연 개최 -



은성의료재단 산하 좋은문화병원

부산문화회관이 은성의료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임산부를 위한 아기사랑 콘서트 등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

부산문화회관과 은성의료재단은 4월 30일 좋은문화병원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출연하는 아기사랑 콘서트를 개최, 저출산 시대 임신과 육아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일깨워줄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성병원, 좋은삼선한방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정병원 등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 5월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일정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5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소외계층 나눔공연’ 등이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 ▶ 일정

- 5월 3일(월) 13: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아미초등학교와 함께’ 아미초등학교 강당(출연/시립무용단)
- 5월 4일(화) 15: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영도중학교와 함께’ 영도중학교 강당(출연/시립교향악단)
- 5월 4일(화) 18:30 내사랑부산공연 ‘수변공원 공연장개장기념공연’ 수변공원(출연/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 5월 6일(목) 15:00 소외계층 나눔공연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부산점자도서관(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7일(금) 15: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장안고등학교와 함께’ 장안고등학교 강당(출연/시립교향악단)
- 5월 10일(월) 9:30 내사랑 부산공연 ‘어버이날 행사 초청공연’ 부산시민회관(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12일(수) 12:30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시청 로비(출연/시립교향악단)
- 5월 13일(목) 14: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양덕초등학교와 함께’ 양덕초등학교 강당(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14일(금) 14: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남산고등학교와 함께’ 남산고등학교 강당(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19일(수) 15:00 내사랑 부산공연 ‘덕혜옹주와 함께하는 국악’ 감만중학교(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26일(수) 12:30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시청 로비(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8회 정기연주회 'BBB(Beethoven&Brahms in Busan)'

금요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연주회는 대극장에서의 연주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의 salon 음악회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왔고 지휘자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송미령(사하구 다대1동)

### 제 37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평일 저녁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 유호석님의 지휘로 웅장한 느낌의 애국가로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연주자들과 지휘자의 혼연일체된 모습이 객석 저 뒷쪽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앵콜 무대로 연주된 '그리운 금강산' 때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라덴츠키 행진곡'에서 다함께 박수를 칠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윤상호(김해시 장유면)

### 뮤지컬 '스켈리두'

사랑을 부르는 스켈리두~스켈리두~ 얼핏 영화 '그남자 그여자'와 비슷한 느낌도 나지만 이 4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표현력 또한 연극의 진정한 볼거리이다. 특히, 멀티맨 남자는 혼자서 바쁘다 정말... 멀티맨 남자와 멀티맨 여자가 있어 배잡고 많이 웃었다. 뒷내용을 짐작하게끔 하고, 뻘한 스토리라 생각이 들었지만, 독고다이쇼핑몰은 너~무 신선하고 참신한 소재라 생각한다. 뮤지컬을 본 후, 스켈리두~스켈리두~를 흥얼거리게 되고, 독고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한번쯤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연극 '오구'

결혼기념일 이벤트로 무얼할까 고민하다 구입한 오구 티켓. 아이랑 남편, 세식구가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열한 살 아이에게 죽음이란 주제가 조금 무겁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었는데 생각외로 아주 즐겁게 잘 보더군요. 마당놀이에서 볼듯한 징, 팽과리, 북소리에 더욱 신명 났던 무대였던것 같고 당장 얼마 안있어 내앞에 닥칠 일들(부모님)이라 공감도 가고 찡한 맘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1998년도에 서울 정동극장에서 관람을 했던 작품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느끼는 감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이 흐른 탓이겠죠? 석출역을 맡으셨던 김미숙님, 어머니역의 남미정님, 무녀역의 배미향님, 그외 모든 배우분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최정애(연제구 거제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식당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예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그윽한 국악선율에 취한 청도 봄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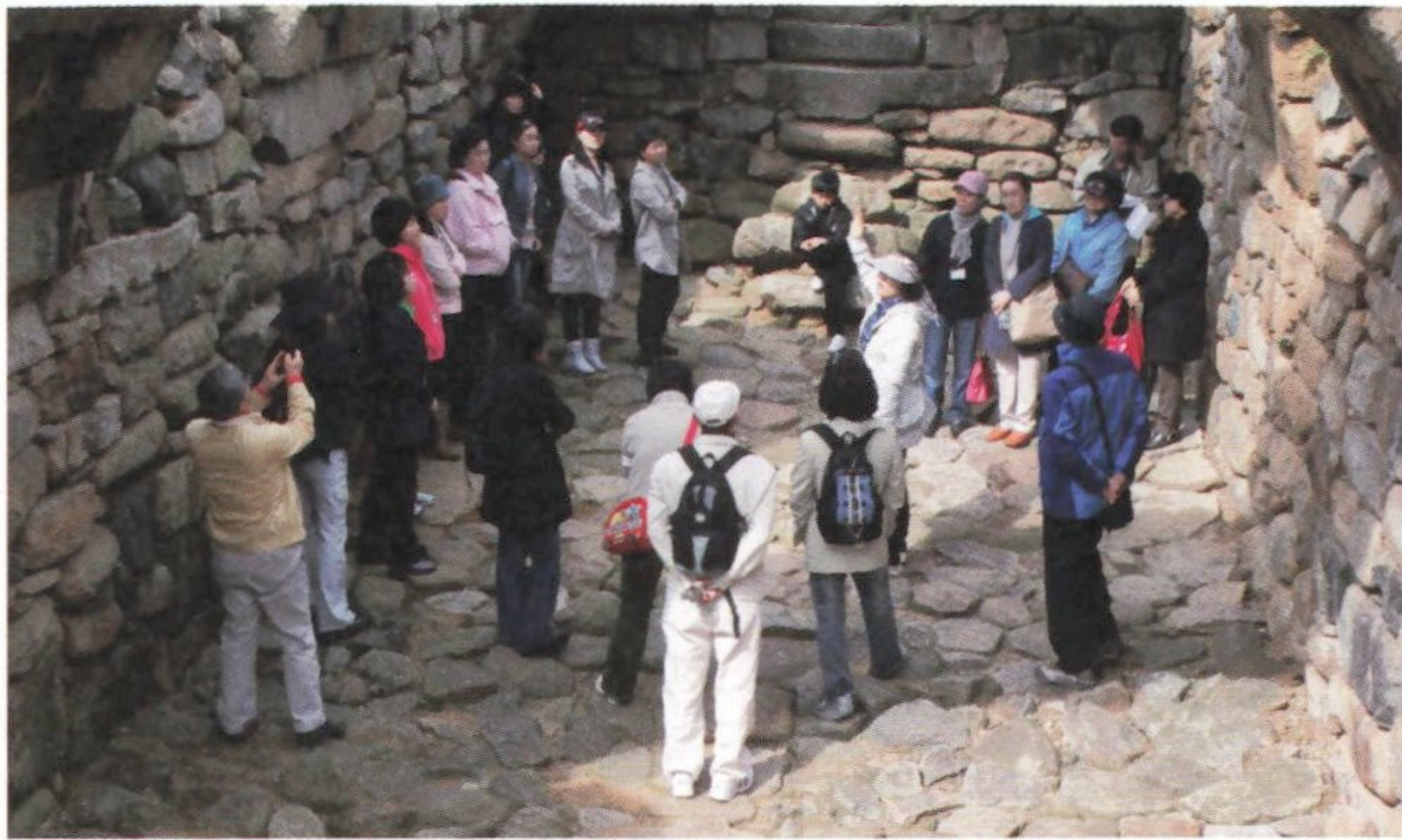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정기회원 테마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엽서를 보내는 순간부터 행복한 여행을 꿈꾸며 마음이 설렌다.

2006년 3월 '경주수학 여행 다시가기'로 시작된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4월 9일 경북 청도로 50번째 여행길에 올랐다. 청도는 테마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여행지다. 이번 청도방문이 여섯 번 째지만 청도는 사계절 다양한 빛깔로, 다양한 즐거움을 전한다.

50번째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위해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펼쳐질 4월의 청도는 복사꽃이 아름다운 분홍빛의 청도. 국악관현악단 신입 단원 박은희, 하지희, 김현주, 손한별이 정기회원 가족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50회 동안 몇 차례 참가한 정기회원들은 어느새 먼저 인사를 나누는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오늘 여행의 최연소 참가자인 10살 꼬마 숙녀부터 81세 할머니까지 모두 한 가족이다.

아침 8:10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9:20부터 김동기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먼저 청도 역사여행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석빙고. 숙종 39년(1713년)에 축조된 청도 석빙고는 경주, 안동, 창녕, 현풍 등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석빙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빙고다. 청도 석빙고는 다른 지역의 석빙고와는 달리 봉토가 모두 유실되어 앙상하게 흉예만 남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석빙고를 처음 보는 이들에게는 황망한 모습. 그러나 청도 석빙고는 골격이 모두 드러난 덕분에 석빙고 내부 구조를 한눈에 알





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김동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300년전 석빙고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쉬움을 달랜다. 석빙고에 이어 지난해 복원한 청도 읍성, 옛 청도의 객사 도주관을 둘러보며 김동기 해설사와 청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찾은 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도복숭아 시험장. 당초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발한 청도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복사꽃 개화가 늦어져 안타깝게도 꽃을 보지 못했다.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청도복숭아 시험장은 10ha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수많은 복숭아 나무가 펼쳐져있다.

복숭아시험장 김임수 실장과 복숭아 이야기가 오고가는 사이 시험장 마당에서는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연주회 준비가 계속되었다. 나무 한 그루에 자두나무, 매실, 살구, 앵두가 꽃을 피운 이색 나무를 중심으로 무대가 준비되고 손한별 단원의 설명으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따사로운 봄 햇살아래 울려 퍼지는 우리 선율에 탄성이 이어진다. 정악곡에서부터 민요 연곡, 팝송 메들리,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추노 OST '비익련리' 까지 가야금, 해금, 피리, 소금이 어우러진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했다. 그윽한 국악선율에 작업하던 인부들도 일손을 멈추고 음악 감상에 나섰다.

연주를 마친 후 청도읍으로 나오면서 자계서원에 잠시 들렀다. 무오사화로 희생된 탁영 김일손선생을 배양하고 있는 자계서원은 매년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지금은 탁영선생이 생전에 심었다는 수령 500여 년의 은행나무가 선생의 울곧은 선비정신을 상징하듯 하늘 높이 뻗어 있다.

점심 식사 후 시작된 오후 일정은 청도의 또 다른 명물



인 감물염색 체험과 감와인 터널 방문. 청도 감물염색의 대표주자인 꼭두서니(대표/김종백)에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감물염색을 직접 해보고, 김종백 선생의 손때 묻은 작품들을 감상했다. 와인터널 가는 길에 꼭두서니 맞은편에 위치한 청담아트갤러리에 들러 그림 속에 핀 화려한 꽃으로 뒤늦은 봄을 느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감와인 터널. 옛 남성현 역을 개조한 와인터널은 연중 15℃를 유지하며 감 와인 저장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감을 다양하게 응용해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낸 청도사람들과 함께 한 아주 특별한 하루였다.(글/백경옥)

■테마여행 협찬:(주)레임 투어편

2010년 6월에는 **경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5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5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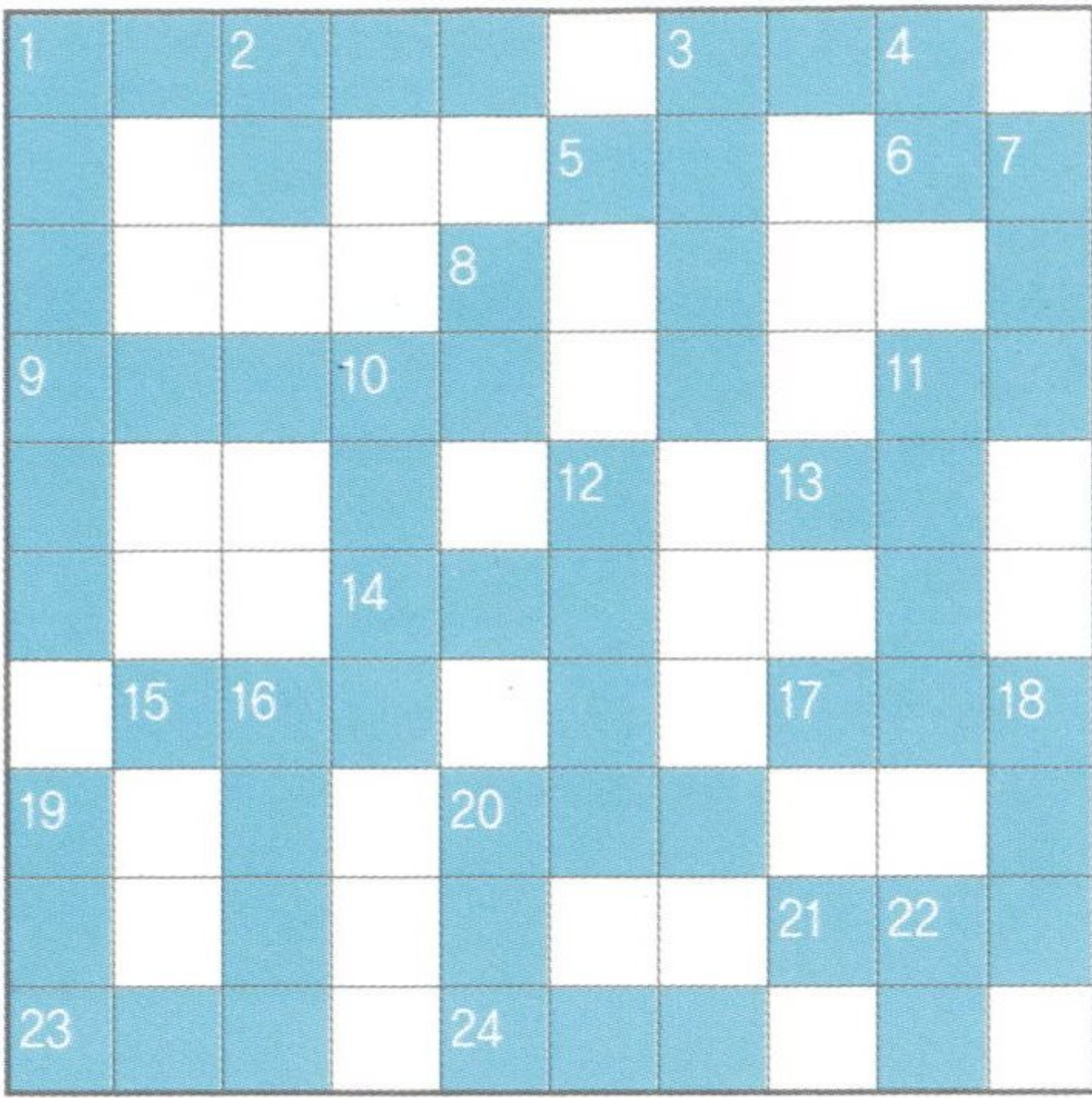
#### 엽서당첨자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김백운(사하구 당리동)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배강호(연제구 연산9동)  
서진태(해운대구 우1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이옥순(금정구 구서1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조영자(해운대구 좌2동)  
황진희(서구 동대신동3가)

#### 신규가입자

김문성(수영구 남천1동)  
김상윤(부산진구 양정2동)  
김승환(사하구 괴정동)  
서미선(부산진구 범천동)  
안수경(부산진구 부암3동)  
양충교(남구 대연4동)  
이규율(영도구 청학2동)  
최유신(연제구 거제3동)  
최임정(해운대구 반여1동)  
최현영(남구 대연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조선후기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 당시 조선 최고의 문인과 예능인들이 조선의 앞선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면서 한·일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담당했다.
- 3\_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장방형의 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여섯 개의 줄이 걸쳐 있는 전통 현악기로, 술대로 줄을 뜯어서 연주한다.
- 5\_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심신 단련법의 하나로,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해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_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살다 지난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한 스님. 정갈하고 맑은 글쓰기로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대표적인 저서로 '무소유' '오두막 편지' 등이 있다.
- 9\_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피아노 연주로 감동을

- 선사해온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그의 앨범 'December'는 한국에서만 100만장 이상이 팔리며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 11\_1940년대 야성미가 넘치는 강렬한 음색과 신선한 음향, 그리고 시원스러운 리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킨 라틴음악.
- 13\_중국 선종의 시조. 조선 후기 화가 김명국이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 14\_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
- 15\_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야수파(포비슴) 운동을 주도한 프랑스 화가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를 대표한다.
- 17\_지리산 연곡사에서 반야봉에 이르는 계곡. 옛날 이 일대에 피밭이 많아서 부쳐진 이름으로, 특히 이곳의 단풍은 지리산 10경 중 하나로 꼽힌다.
- 20\_그리스의 수도. 고대 그리스 유적이 남아 있는 관광 문화 도시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유명하다.
- 21\_해저에서의 지진, 해저 화산 폭발, 단층 운동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핵실험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 최근 칠레지진으로 태평양 연안국가에 000공포가 확산되기도 했다.
- 23\_1920년대 격변기 재즈와 갱문화가 발달했던 도시 000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지난 2002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 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 24\_영화 '역마차' '아파치 요새' '리오그란데의 요새' 등 서부극에 출연해 사랑받은 할리우드 스타.

-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 2\_한국의 나폴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자, 음악가 윤이상의 고향으로, 매년 그를 기리는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 3\_2010년 개통 예정인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다리. 개통되면 거리는 140km에서 60km, 시간은 3시간 30분에서 40분대로 단축된다.
- 4\_고수가 북장단을 치는 것.
- 7\_조선시대 세종이 창안한 악보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
- 8\_낭만파시대에 주로 피아노를 위하여 작곡된 소곡으로, 야상곡이라고도 한다.
- 10\_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신전이나 왕궁, 묘 등에서 발견된다.
- 11\_스웨덴의 팝그룹 아바(ABBA)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 12\_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소설. 스스로 중세의 기사가 되어 세상의 부정과 비리에 맞선 0000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 16\_광고의 대상자에게 호기심을 제공, 광고 메시지의 관심을 높이면서 후속 광고의 도입 구실도 하는 광고.
- 18\_예술작품의 해학과 풍자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 19\_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의 일대기 등을 서사적 형태로 쓴 시.
- 20\_000강과 그 지류들의 유역에 나타나는 대규모 열대우림으로,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하면서 '세계의 허파'로 불린다.
- 22\_금관악기에 대한 총칭. 오늘날에는 군대의 신호용 00을 가리킨다.

세로열쇠

- 1\_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 국보 제 151호로,

지난해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조은극장

- 김숙경(중구 중앙동)
- 김재희(연제구 거제3동)
- 여소정(사상구 삼락동)
- 이여진(남구 용호동)
- 정민영(사하구 하단동)

■ 공간 소극장

- 박차임(강서구 녹산동)
- 이미숙(사하구 하단동)
- 유윤정(사상구 삼락동)
- 장민정(금정구 장전2동)
- 하준석(부산진구 양정동)

■ 나랏소

- 강희범(부산진구 범천4동)
- 김현주(남구 대연동)
- 박미정(남구 문현동)
-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 황은희(수영구 남천동)

■ 큰집

- 김병수(부산진구 양정1동)
- 김성진(서구 서대신동1가)
- 문준후(부산진구 개금동)
- 이혜원(부산진구 전포1동)
- 형정민(동래구 온천3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민족 요리점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금당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 5월 가정의 달 기념

# 사랑의 콘서트 “천원의 행복”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ENSEMBLE

예술가곡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2010.5.3(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양상블 디 마레와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노래가 있는 즐거운 나의 집




2010.5.6(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가족사랑 콘서트



마침바 황세미  
연주 유리시안 챔버 오케스트라

2010.5.7(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2010.5.8(토)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전래동화속의 우리춤



수석안무자 홍기태

2010.5.10(월)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2010.5.17(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수석지휘자 김철호

2010.5.18(화)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레이디스 필 앙상블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어린이 합창 그리고 즐거운 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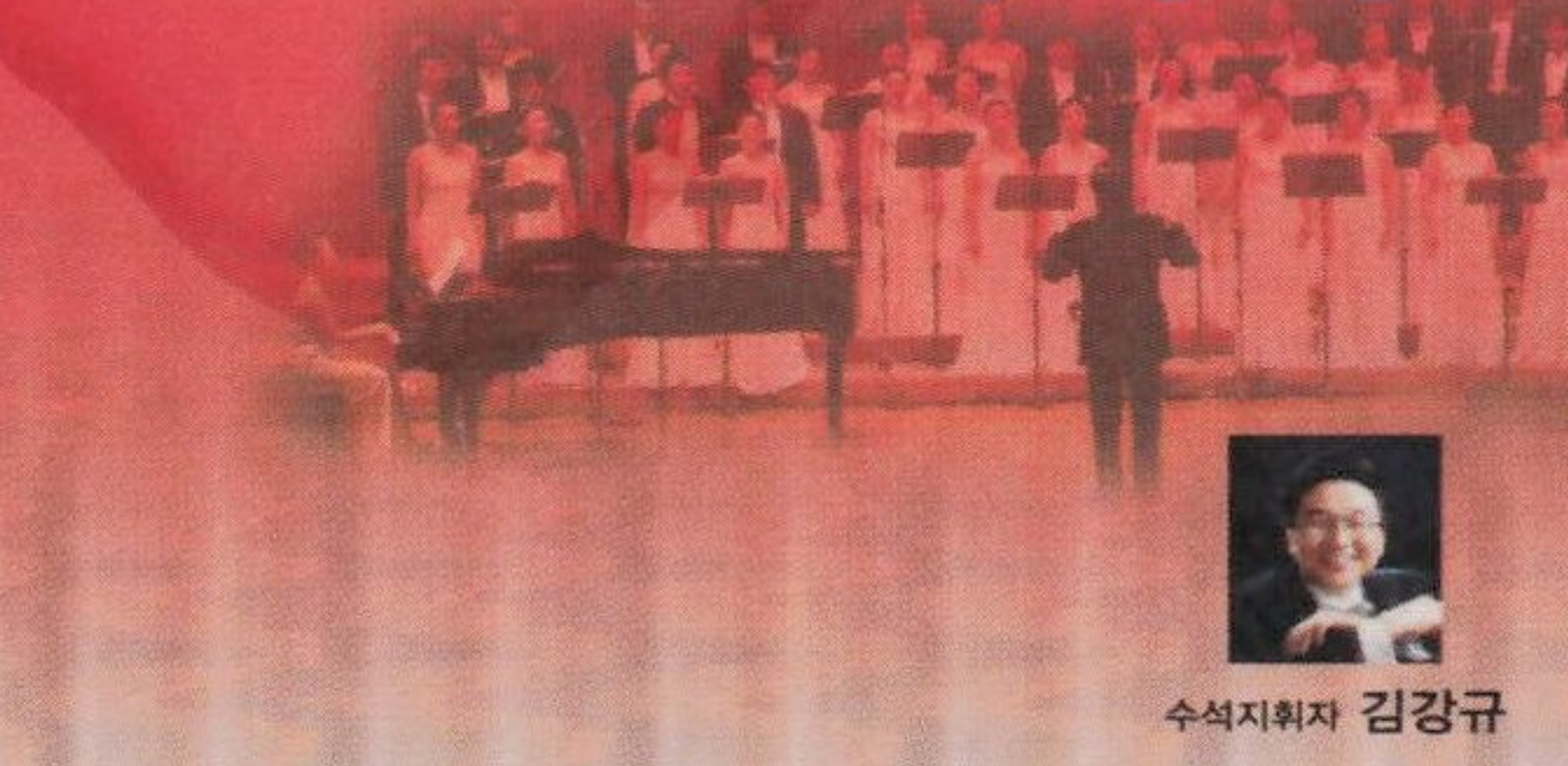


2010.5.19(수)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우리들의 노래 7080 이야기



수석지휘자 김강규

2010.5.26(수)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2010.5.27(목)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 입장권 전석 1,000원


.....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문화회관, 구 문화회관
-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051)607-3100  
공연과 (051)607-605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천원의 행복

## 소리가 있는 국악



수석지휘자 김철호

2010.5.27(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9회 정기연주회

# 부산시립교향악단

# B B B

Beethoven & Brahms in Busan II

베토벤 교향곡 제 4번  
브람스 교향곡 제 4번

지휘  
유리엘 세갈



2010. **5.1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0회 정기연주회  
2010 부산연주인시리즈

# 부산시립교향악단 B.B.B III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교향곡 제 3번 「영웅」

지휘  
이동신

피아노  
최정윤

2010. **6.3**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5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2007년 국악을 전공하는 고교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전통음악을 비롯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부산의 국악계를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

최지혜 편곡/가야금3중주 '울산아 가씨'(가야금/김경현, 방은지, 이바다)

김영재/해금과 기타를 위한 2중주 '적념 & 아리랑'(해금/정서화, 기타/변정우)

정대석/거문고 2중주 '무영탑'(거문고/김현경, 정주은)

최경철 편곡/국악실내악을 위한 '몽금포타령'(가야금/김지우, 거문고/최경철, 해금/조희규, 아쟁/장은교, 대금/박성주, 소금/정연욱, 타악/황진삼)

최경철 편곡/TV드라마 OST '대장금' '이산' '동이'

최경철 편곡/국악으로 듣는 아름다운 노래 '스승의 은혜' '아버이의 노래'

※ 해설/홍희철(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 금관5중주 프로그램

어빙 벌린/푸팅 온 더 리츠

아일랜드 민요/애 목동아

빌리지 피플/Y.M.C.A

퀸시 존스/소울 보사 노바 등

· Trumpet I/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Horn/막심 멜니코프

· Tuba/송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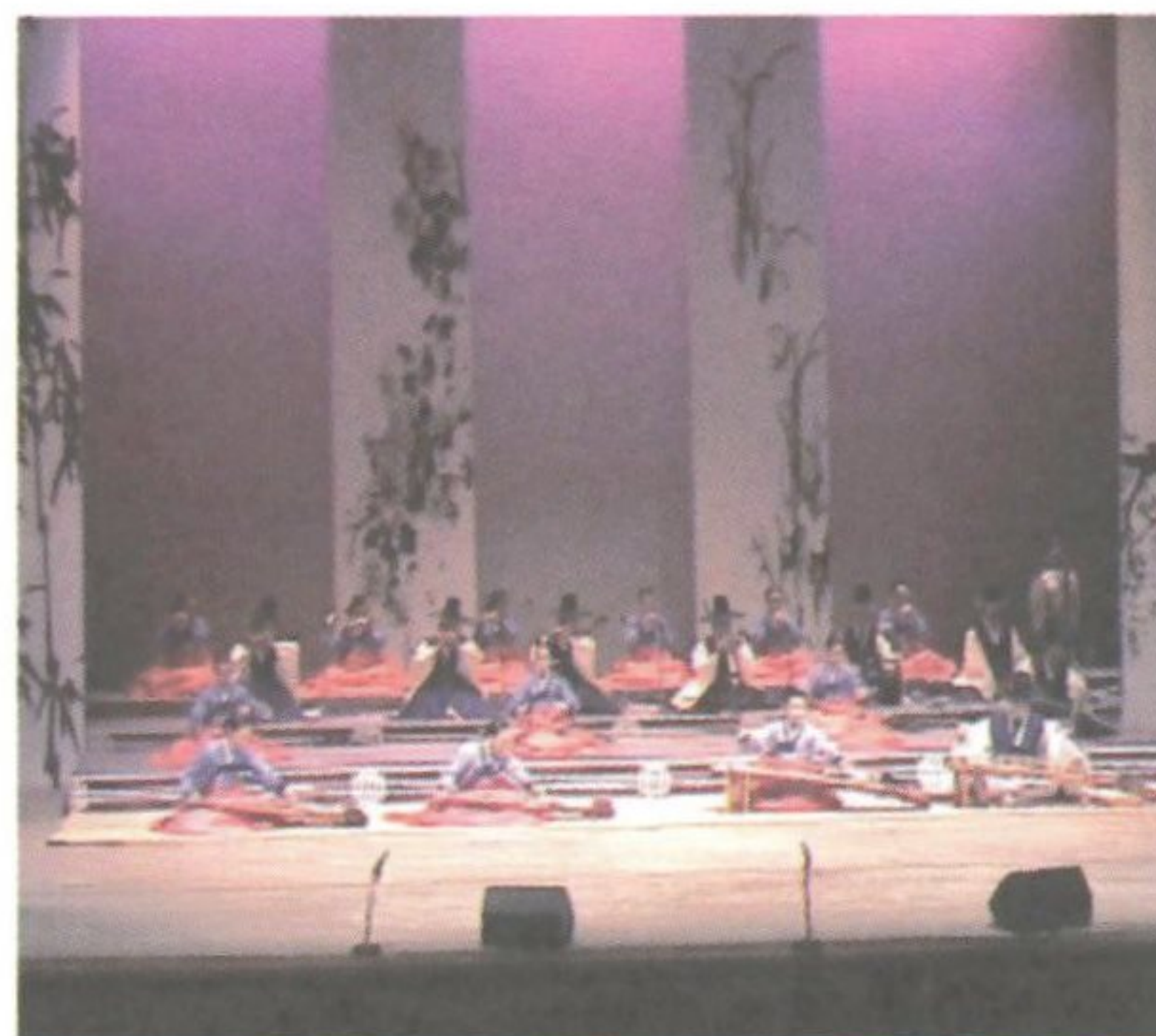
· Trumpet II/안명기

· Trombone/정선화

· SetDrum/조용길

## 5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 프로그램

홍동기/고구려의 혼

동살풀이 장단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곡.

이경섭/서편제 OST '천년학' 국악과 양악의 조화를 이루어낸 곡으로 투명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지녔다.

#### 이경섭/마지막 선물

전통적인 국악선율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창작한 관현악곡.

#### 드라마 추노 OST '비익련리(比翼連理)'

'비익련리'는 암컷,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인 상상의 새 비익조, 두 나무가지가 맞닿아 하나의 뿌리가 된 연리지를 뜻하는 것으로 깊은 남녀 관계를 가리킨다.

#### 이준호/바람

국악의 멋과 다양성을 친근하게 전해주는 신세대 국악실내악그룹 '슬기둥' 음반에 수록된 곡.

#### 원일/신뱃놀이

경기민요 '뱃노래'의 선율과 기본 장단을 바탕으로 리듬의 유희를 위한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 곡.

#### 민요/진도아리랑

· 연주/한영길, 김범석, 손한별(이상 대금), 김경수, 최요셉, 신정현(이상 피리), 방병원, 김원지(이상 해금), 홍영혜, 김고운(이상 아쟁), 윤경선, 김지현(이상 가야금), 오상훈(거문고) 외

· 해설/김지혜

## 5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6중주 & 금관 5중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6중주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 현악6중주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 라단조 작품 70

· Violin/김동욱, 이은옥 · Viola/김가영, 이성호

· Cello/양욱진, 김판수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첨성대

## ▶ 6월 11일 (금) 선덕여왕의 숨결을 따라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6월 테마여행. 선덕여왕 재임 중 건립된 분황사, 첨성대, 선덕여왕릉,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장군묘, 태종무열왕릉 등을 따라 가며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선덕여왕의 지혜를 배워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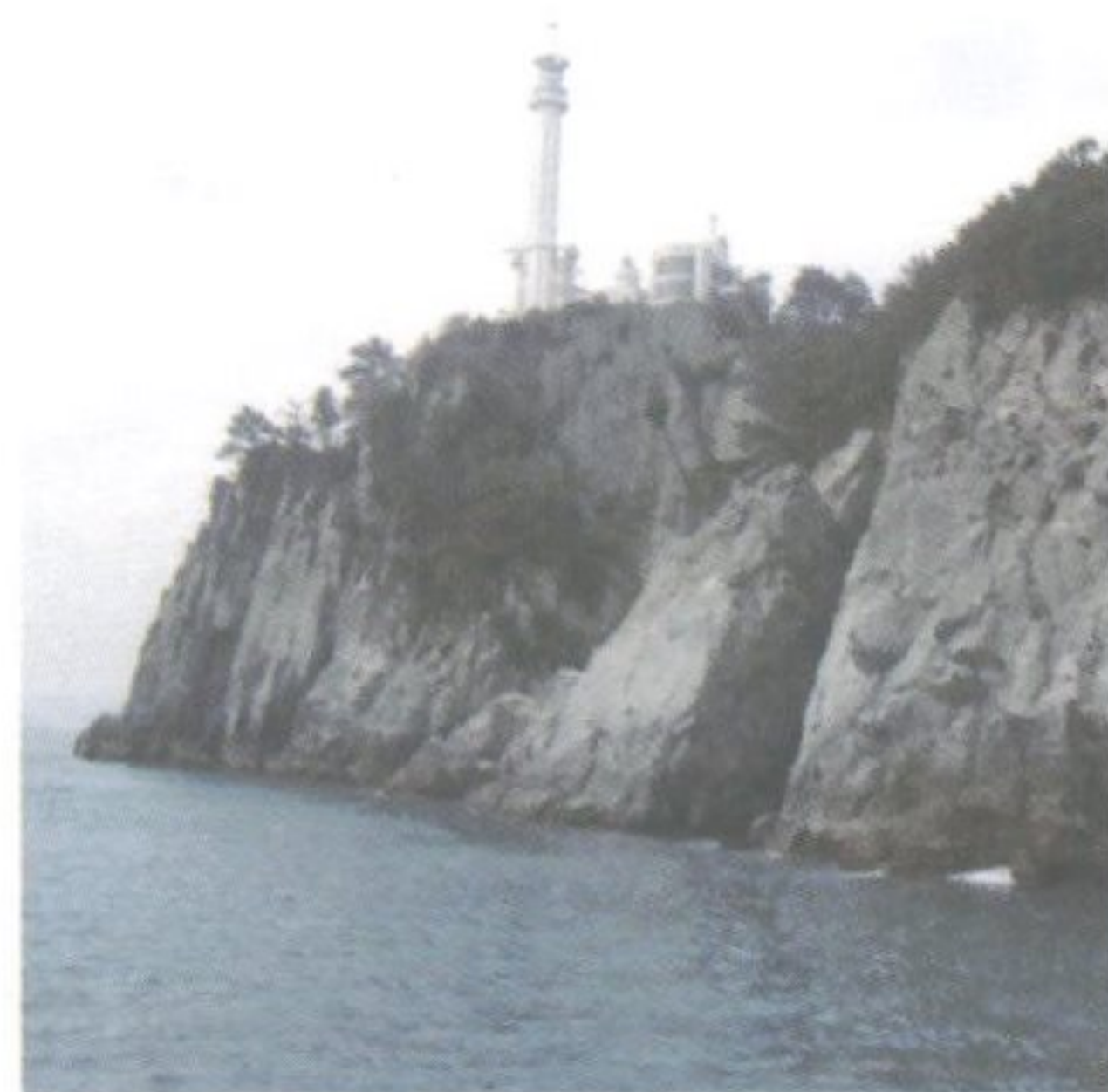
- ▷ 10:00 분황사, 황룡사터, 첨성대 관람
- ▷ 12:00 중식
- ▷ 13:00 능지탑, 선덕여왕릉, 사천왕사터, 김유신장군묘, 태종무열왕릉 관람
-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산딸기 따기 체험(산딸기 따기 체험은 수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솟대만들기, 은귀걸이 만들기로 변경됩니다)
- ▷ 17:00 부산 출발

## ▶ 7월 9일 (금) 역사의 섬, 가덕도

면적 20.78km<sup>2</sup>, 해안선 36km로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 신항만과 거가대교 공사가 한창 이지만 가덕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인적 드문 무공해 섬으로 남아있다.

가덕도 왜성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 35호로 지정된 가덕도 척화비, 1909년 12월 첫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창기 등대인 가덕도 등대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산재한 가덕도에서 또 다른 부산의 모습을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가덕도 도착, 천성에서 외양포행 배 승선
- ▷ 10:00 외양포 도착, 가덕도 등대로 이동
- ▷ 11:00 가덕도 등대 도착
- ▷ 12:00 중식
-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4:30 외양포 요새사령부 등 답사
- ▷ 15:00 외양포에서 천성행 배 승선, 부산 출발



가덕도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계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계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9** - 이상은

2010. 5. 14(금) pm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티켓 | 전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오디션' 20% 할인



2010. 5. 21(금)~7. 25(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5/21 오후 6:00 ·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점심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 부산광역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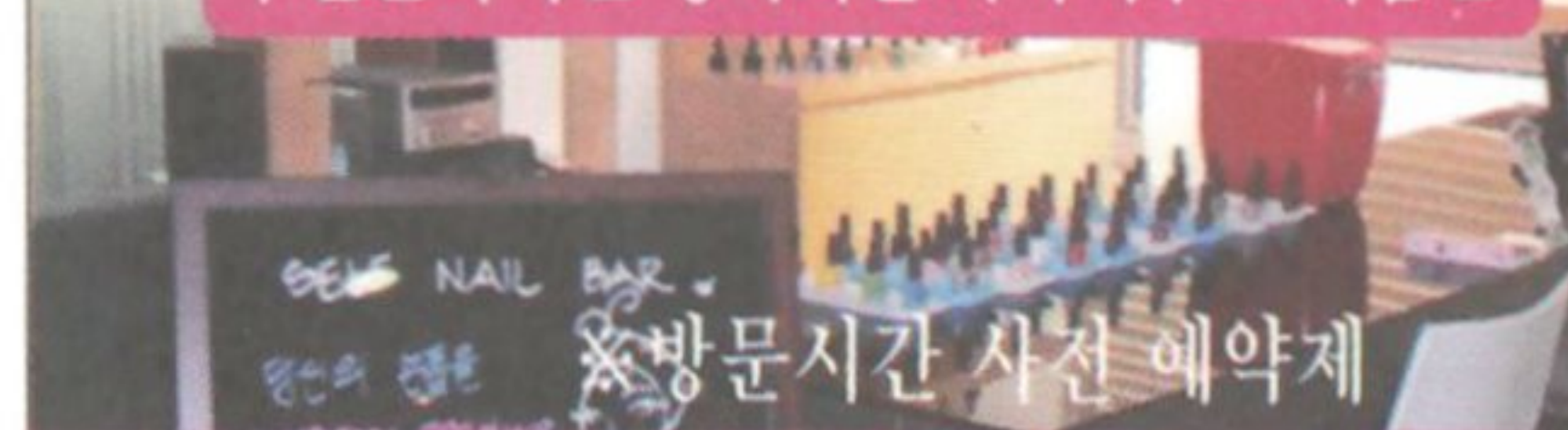
IBK \* 부산문화회관 후원 (부산문화회관 후원)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주문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공연, 할인카드 등 행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인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THEATER  
서면 구.은어극장

사랑한 비보이를 발레리나

20% 할인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화~금 20시 / 토 16,20시 /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주문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공연과 중복 불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2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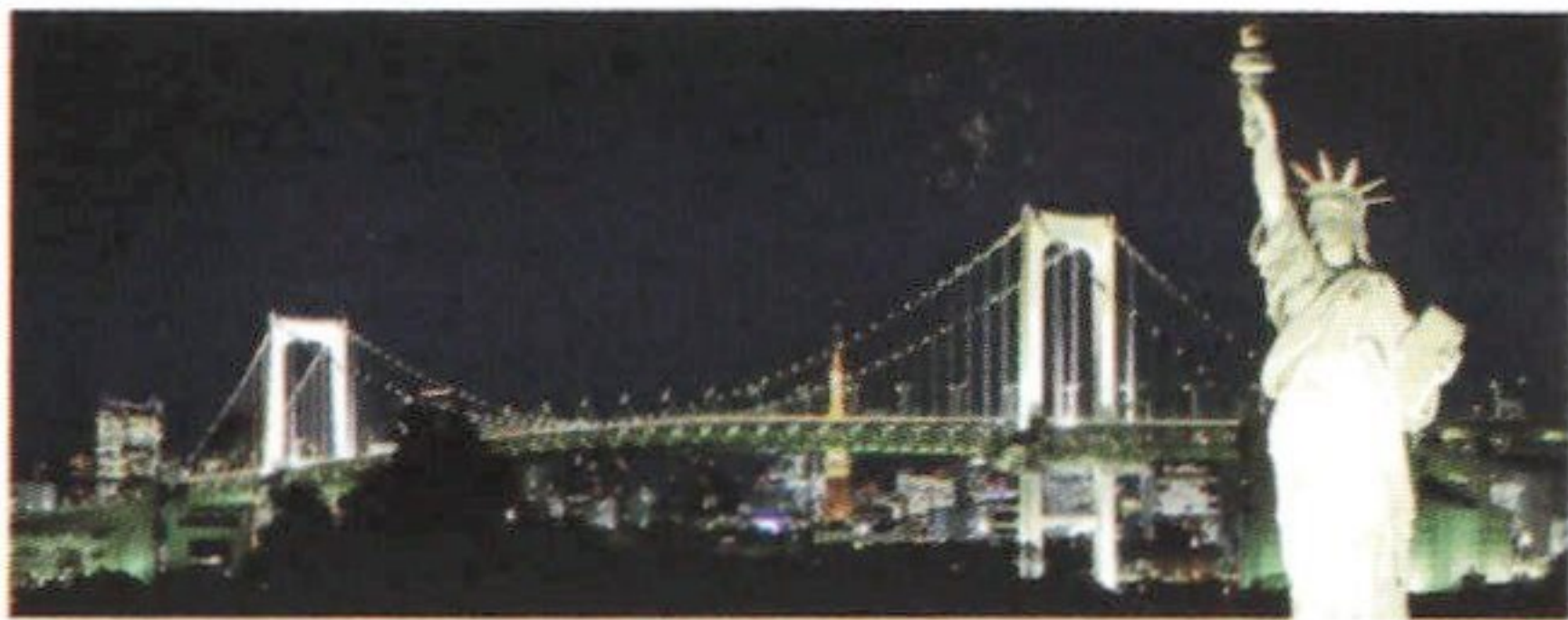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반짝 주말여행

주말에 떠나는 알짜배기 특가여행



[하네다 전세기]  
에어텔/도쿄 2박4일

JTA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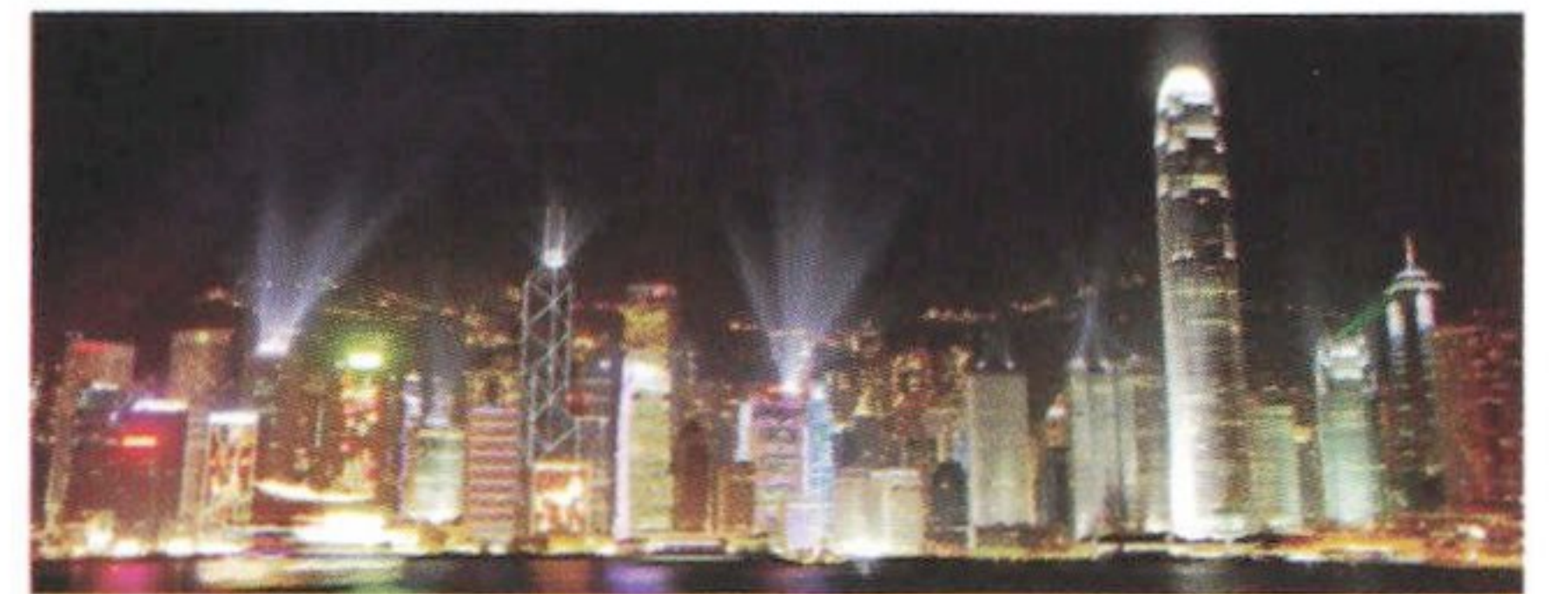
399,000원~



[비자 포함]  
상해 3일 [3가지 특전]

CCP730

429,000원~



[아이월]  
홍콩♪ 홍콩자유 4일

CHA701

499,000원~

### 꼭 가봐야할 명산여행

365일 갈 수 있는 곳은 NO!!



[부산 출발]  
황산/비취계곡 4일

CCP742

549,000원~



[장사 전세기]  
장가계/원가계 4,5일

CCP777

5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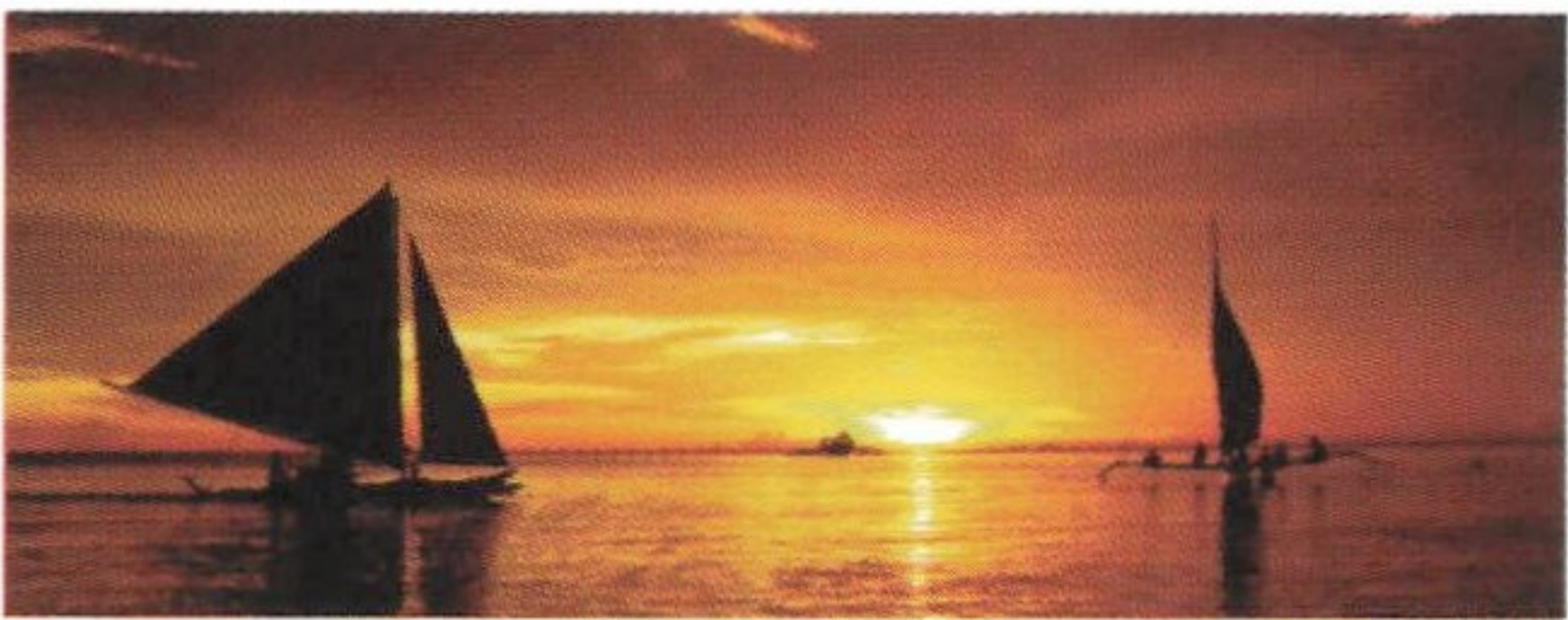
[백두산]  
심양/단동/고구려유적 3일

CNP788

699,000원~

### 아늑한 리조트 투어

휴식이 필요할 때, 럭셔리한 여행



[실속]  
마닐라 + 보라카이 4,5일

APP711

699,000원~



[일급]  
괌-산타페 리조트

PGP702

9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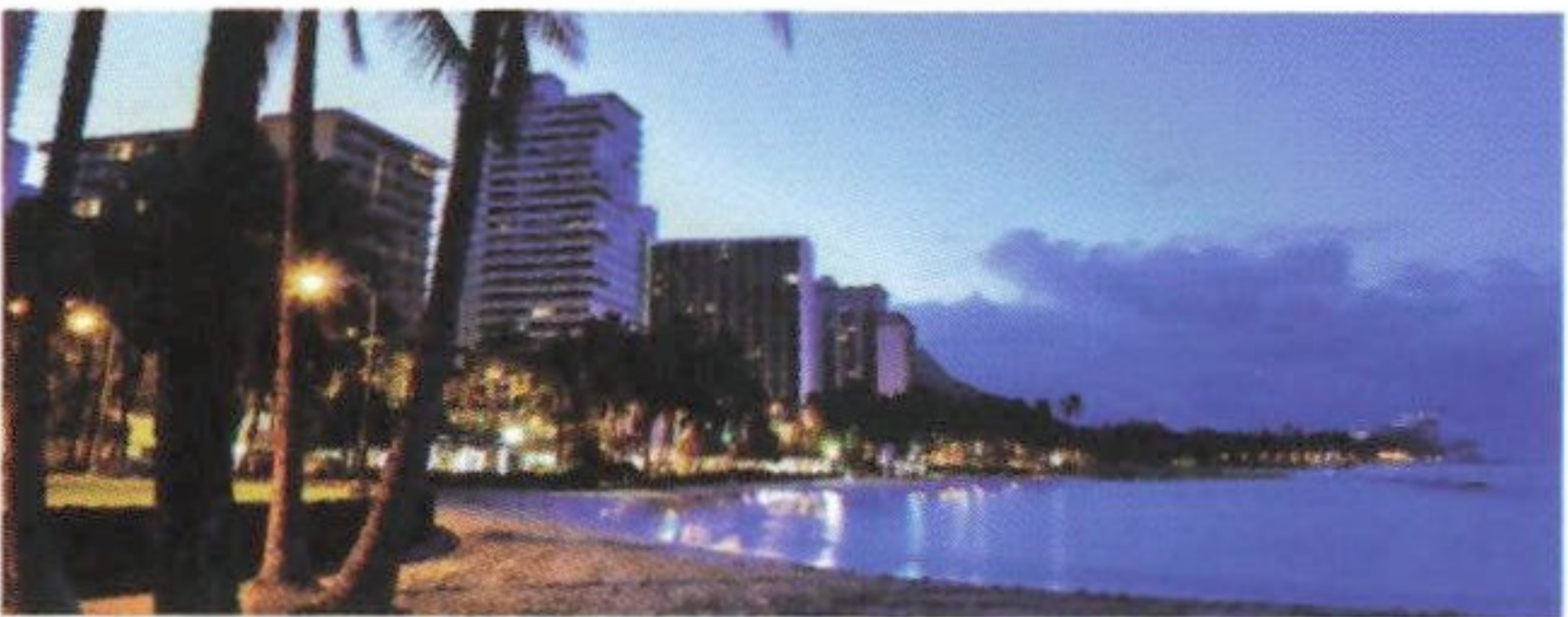
[아시아나]  
사이판-초특급 아쿠아 리조트

PSP740

1,149,000원~

### NO비자 미주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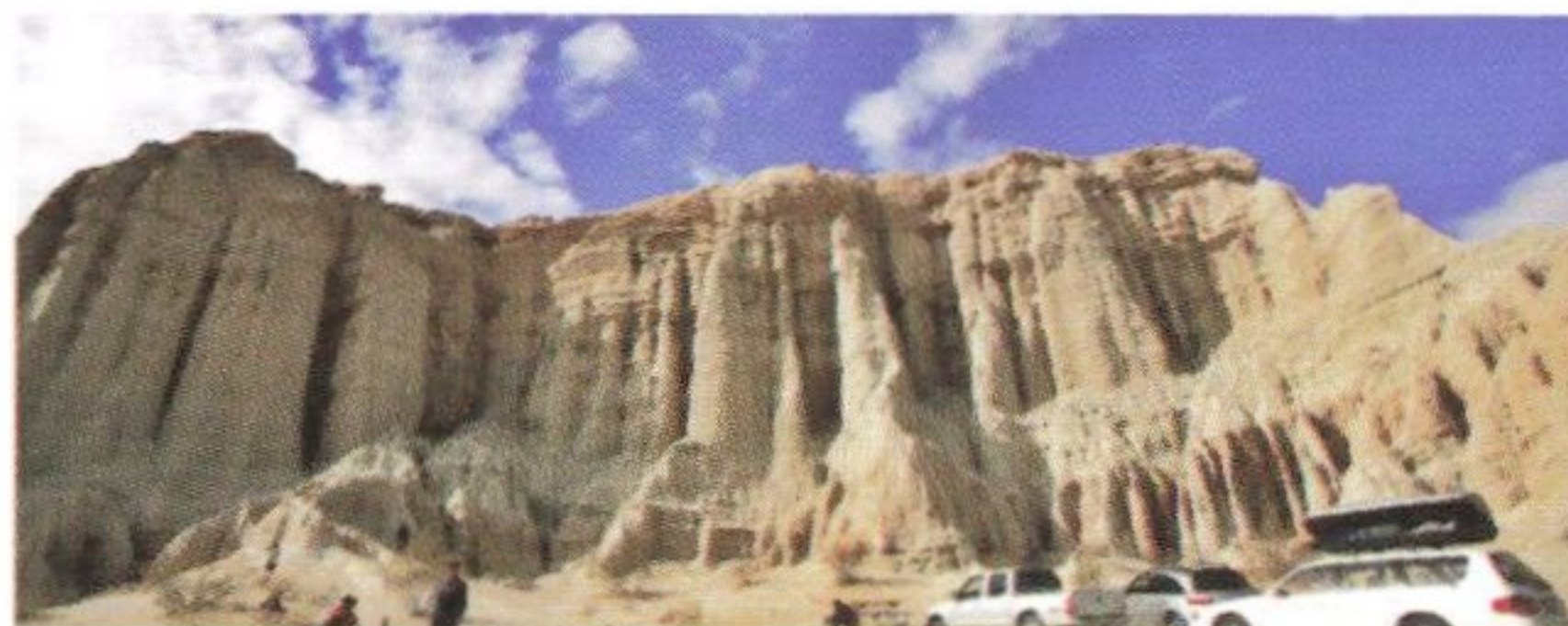
전자여권만 있으면 미주여행 OK~!!



[오아후]  
Aston Waikiki / 파셜 오션뷰

HHP705

1,290,000원~



[부산출발]  
미서부/3대 캐년 9일

HUP713

1,840,000원~



[부산출발]  
미동부/나이아가라 8일

HUP731

2,140,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팀장 070-8270-4217 / 김수현 070-8270-4209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www.hihana.co.kr

#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가요



지휘 김 강 규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2010.5.13(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www.bschorus.or.kr](http://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부산은행